

##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3. 13. (수요일), 14:00 ~ 18:0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이상 14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1  | 탕춘대성(蕩春臺成) 사적 지정                      | (공 개) |
| 2  |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 (공 개) |
| 3  | 청주 상당산성 내 유희부지 활용 및 기반시설 정비           | (공 개) |
| 4  | 관문성 내외 국도(울산~경주) 개설 및 확장              | (공 개) |
| 5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보호구역 내 중복사 추정터 정비          | (공 개) |
| 6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양동구역 제4-2·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공 개) |
| 7  |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 개) |
| 8  | 청주 상당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공 개) |
| 9  |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공 개) |
| 10 |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공 개) |
| 11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공 개) |
| 12 |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수목 벌채 후 조립               | (공 개) |
| 13 |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                        | (공 개) |
| 14 |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공 개) |

## 【검토사항】

|    |                               |       |
|----|-------------------------------|-------|
| 15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검토              | (공 개) |
| 16 |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 검토            | (공 개) |
| 17 | 부산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검토 | (공 개) |

## 【보고사항】

|    |                      |       |
|----|----------------------|-------|
| 1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공 개) |
|----|----------------------|-------|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3-001

### 1. 탕춘대성(蕩春臺成) 사적 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 소재 「탕춘대성(蕩春臺城)」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1차 회의('24.01.10.)에서 '탕춘대성(연흥서성)' 사적 지정을 검토한 사항으로 30일간 예고('24.1.24.부터 30일) 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 조건부 가결, 지정명칭은 '탕춘대성(蕩春臺城)'으로 함.
- 서울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오류정정 요청('24.1.16. / 사적 지정예고 전)
  - (정정사유) 사적지정 예고를 위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최종 확인과정에서 보호구역에서 누락된 필지와 지정·보호구역을 벗어난 필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오류정정 필요
  - 정정내역

| 구분   | 기 검토구역            | 정정구역              | 변경내역  |
|------|-------------------|-------------------|---|
| 지정구역 | 37필지<br>/11,065㎡  | 36필지<br>/11,055㎡  | 1필지 감/ 10㎡ 감<br>(감 필지)서대문구 홍은동 산1-45번지  |
| 보호구역 | 68필지<br>/204,962㎡ | 70필지<br>/195,453㎡ | 2필지 증/ 9,509㎡감<br>○ 감 1필지 : 서대문구 홍은동 산1-70번지(10,758㎡)<br>○ 증 3필지 : 종로구 구기동 257번지(284㎡),<br>264번지(744㎡), 구기동 265번지(221㎡) |

※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정예고 실시

- 사적 지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공고명 : 「탕춘대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 공고일 : '24.1.24.(문화재청 공고 제2024-39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탕춘대성(蕩春臺城,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23번지 외
- (3) 지정명칭 : 탕춘대성(蕩春臺城)/Tangchundaeseong Fortress
- (4) 지정범위
  - 성벽길이 : 성벽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
  -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6필지 11,055㎡, 문화재보호구역 70필지 195,453㎡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5)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 (6) 신청사유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탕춘대성(蕩春臺城)」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기존 도성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715~1754년에 걸쳐 축조한 성으로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3성이 하나의 방어 성곽으로서 기능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가지며,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산 능선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토석, 석성으로 합리적으로 축조한 점, 유적의 간존 상태가 양호하고 이와 관련한 창고시설과 다양한 유적들이 잘 남아 있는 점 등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판단됨
  -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라. 참고사항

###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1976.06.25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08.14.)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탕춘대성(蕩春臺城)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23.09.15.)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3.11.23.)
- 사적 지정 검토(2024.01.10, 제1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문화재청 지정 예고(2024.01.24.~02.24, 문화재청 공고 제2024-39호)

### (2) 주요 학술대회

| 연도   | 주최·주관 | 학술대회 주제                   |
|------|-------|---------------------------|
| 2022 | 서울특별시 | 탕춘대성, 사적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 (3) 현지조사의견('23.11.2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 축조이후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성곽으로 인왕산부터 북한산 향로봉을 산마루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특성을 보이는 성곽이다.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내에서도 사례가 없는 특징적인 성곽으로 유구 또한 잔존상태가 좋고 사진, 지도 등의 자료가 잘 남아있어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자   | 2023.11.23.(목)        | 대상 문화재                                       | 탕춘대성(蕩春臺城) |        |
| 조 사 자  | 성 명                   | 전공분야   | 소속         | 직위(직책) |
|  | ○○○                   | 건축사  | ○○대학교      | 교수     |
|  | ○○○                   | 성곽   | ○○대학교      | 교수     |
|  | ○○○                   | 건축사  | 문화재위원회     | 전문위원   |
| 주<br>요<br>지<br>정<br>사<br>항<br>검<br>토   | ①문화재 종별               | 사적   |            |        |
|  | ②문화재 명칭               | 탕춘대성(蕩春臺城)                                   |            |        |
|  | ③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④연혁·유래<br>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⑤지정 가치<br>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⑥지정 대상<br>및 범위        |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36필지, 11,055㎡/“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보호물 >  |                       |  |            |        |
| < 보호구역 > 70필지, 195,453㎡/“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 보<br>호<br>관<br>리<br>사<br>항<br>검<br>토   | ⑦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안)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⑧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1월 23일</p> <p>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                       |  |            |        |

## 탕춘대성(蕩春臺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11. 23.(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탕춘대성(蕩春臺城)

#### ■ 성(城)의 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

- 해방 이후 출간된 대부분 서적에는 탕춘대에 축성된 성의 명칭과 관련하여 성을 쌓을 동안에는 서성(西城)으로 불리어졌고 이후 ‘탕춘대성(蕩春臺城)’으로 정식 명명되었다거나(『서울의 전통문화』) 혹은 성의 명칭이 ‘탕춘대성’인 것은 ‘현재 세검정이 있는 동쪽으로 약 100m 되는 산봉우리에 연산군의 놀이터였던 탕춘대(蕩春臺)가 있었으므로 그 이름을 딴 것’이고 도성의 서쪽에 있어 ‘서성(西城)’이라고 한다거나(『서울의 성곽』) ‘탕춘대성’은 세검정 동편 봉우리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탕춘대에 연유하는데, 그러한 위치 관계로 ‘탕춘대성’ 또는 ‘서성(西城)’으로 불리어진 것(『서울건축사』)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료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사료됨
- 실제로 속중~일제강점기까지의 문헌자료 및 지도상에는 탕춘대에 축조된 성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은 없으며 문헌에는 대다수 탕춘대(蕩春臺)라는 명칭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북한지 등 문헌에 그 기록이 있으며 동국여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도에는 서성(西城)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음
- 19세기 지도 <<동국여도>> 내 <연용대도>에는 탕춘대성(蕩春臺成)의 모습이 상세히 잘 남아 있음. 수도방어를 강화하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곽으로 내부에 총융청, 조지서, 평창 등 주요 기관들도 표시되어 있고 영조 30년(1754)에 탕춘대를 연용대로 고쳤던 기록의 증거이다. 이것을 근거로 향후 성의 명칭도 지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향후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세계유산 통합등재 시 탕춘대성의 명칭 정리가 필요하여 사적 지정 시 명칭이 정리되는 것에 의거 활용



都城圖(1720년대)  
-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京兆五部·北漢山城附圖(1750년대)  
- 서울대 규장각 소장

- 실록 등 문헌자료와 경조오부도·동여도·수선전도 등 일부 지도에 ‘서성(西城)’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서성’은 탕춘대에 축조된 성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상 표현되는 대로라면 향림봉에서 한북문 서쪽까지 축조된 성곽, 즉 오늘날 홍지문에서 비봉 구간의 성곽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음

■ ‘서성(西城)’이 표시된 지도



왼쪽 경조오부도(1861년, 성신여대박물관 소장)와 오른쪽 수선전도(1861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비변사등록 - 영조 30년(1754년) 9월 1일

摠戎廳啓曰, 蕩春西城, 自香林峯, 至漢北門西邊, 相距二千四百步, 體城女牆及內外補築等役, 昨年爲始, 今已完畢

- 연산군 시기 명명한 ‘탕춘대’라는 명칭이 부정적이었던 영조는 ‘연용대’로 개칭하였고 이는 실록과 비변사등록에 나타나 있으며 19세기 지도인 동국여도에도 남겨져 있음

■ 사료상 나타난 연용대의 기록

- 영조실록(영조 30년, 9월 2일)

“공자(孔子)가, ‘반드시 이름을 바른다.’ 하였는데, 탕춘대(蕩春臺)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미 경영(京營)을 설치하고는 때때로 나아가기도 하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을 다시 연용대(鍊戎臺)라고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 비변사등록 (영조 32년 2월 1일)

또 아뢰기를, “연용대(鍊戎臺)의 한북문(漢北門) 성역(城役)을 마치지 못한 곳은 이런 따듯한 봄을 만나 일을 계속 거행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평년과 다르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선 금년 추수를 보아 거행하라.” 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탕춘대성의 기록

· 경성부사 1권 pp.329~330.

41년(1715년)에 이르러 비봉 아래로부터 산을 내려와 조지동(造紙洞)의 계곡을 횡단하여 다시 산을 올라 인왕산 성벽 뒤 절벽에 이르는 성벽을 축조하였다. 이것이 곧 송시열이 제창한 ‘조지서(造紙署) 동구(洞口)를 막자던 성벽’이다. (중략)이 성채는 속칭 ‘西城’ 또는 ‘蕩春臺城’이라고 불리고 있다.



동국여도(19C, 서울대 규장각 소장) 중 도성연용북한합도(좌)와 연용대도(우)

· 문화재 지정명칭이 된 ‘탕춘대성’이라는 명칭은 일제시대 <경성부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도 속칭 ‘탕춘대성’으로 불렸다고 서술됨

■ 서울시 사적 지정 명칭 검토의견

## 검 토 의 견 서

- 내 용 : 홍지문 및 탕춘대성(시 유형문화재 제33호) 사적 지정 관련, 명칭 검토
- 일 시 : 2023. 8. 29.(화) 15:00~
- 장 소 : 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
- 참석자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    |    |    |    |

○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 문헌 기록나 고지도에 등장하는 공식 명칭 (지명 등)을 감안할 때, 사적 지정 명칭은 "탕춘대성 (연흥서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정 명칭 외에 사적 지정 보고서에는 탕춘대성의 식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지류조사 및 반곡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3. 8. 29.(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탕춘대성(蕩春臺城)은 인왕산과 북한산 향로봉 사이 산등성이에 석성과 토성 그리고 자연암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성 안쪽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사이 험준한 골짜기로 홍제천이 흐른다. 성 남쪽 한양도성과 북쪽 북한산성이 남북 성벽을 이루고 동쪽과 서북쪽 일부는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자연성벽을 이루어 침입 우려가 큰 서쪽에 쌓은 성만으로 하나의 성을 이룸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을 쌓고 그에 필요한 막대한 군량을 저장하기 위하여 1713년 탕춘대 일대에 평창을 짓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1715년부터 동구에 오간 수문과 문루 등을 쌓으며 시작되었으며 1718년에는 탕춘대 서쪽 성벽을 일부 쌓다가 중단함
- 1751년 영조는 전대와는 달리 변란에도 도성을 지키겠다는 《수성절목》을 반포하여 구체적 도성방어계획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로 북한산성과 경기 서남부 방어를 담당하는 충융청을 이곳에 옮기어 축성을 전담하도록 하여 1754년 탕춘대 서쪽 성을 불림
- 1754년 탕춘대를 연용대로 그 이름을 고쳤으나 유구한 이름이었으므로 꾸준히 ‘탕춘대성’으로도 불림
- 변란에 도성을 고수할 때는 서북쪽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평창에 비축한 군량을 공급하고, 변란에 임금이 도성민과 함께 북한산성에서 농성할 때는 북한산성 남서쪽을 방어하며 군량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
- 탕춘대성 주변 지정문화재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사적인 ‘서울 한양도성’과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석과정 별당’이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는 보물인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와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이 있고, 사적인 ‘북한산성’과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 서울특별시 기념물인 ‘세검정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석과정’, ‘안평대군 이용 집터’, ‘반계 윤응렬 별장’, ‘평창동보현산신각’이 있음
- 비지정문화재로는 ‘조지서 터’, ‘충융청 터’, ‘평창 터’, ‘장의사 터’ 등이 있음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탕춘대성은 1711년 북한산성 후 평상시 군량을 보관할 평창을 방어하고 교통로 확보를 위해 1715년 탕춘대 동구에 수축한 성곽 유산을 지칭함
- 1718년에 성벽을 쌓다가 중단된 탕춘대성은 영조는 새로운 도성방어체계를 마련하여 충융청을 탕춘대성 내부로 옮겨 축성을 담당하도록 하여 1754년 탕춘대 서쪽 성곽을 완성하고 탕춘대를 연용대(鍊戎臺)라고 이름을 고침
- 탕춘대 서쪽 인왕산부터 북한산 향로봉에 이르는 구간 험준한 산마루를 따라 방어 설비가 필요한 곳에 자연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래의 산성 축조방식을 충실히 따라 석성과 토성을 쌓음

- 탕춘대성은 홍지문(한북문)과 오간수문, 익성을 설치하였고 암문도 1곳이 있으며 성벽에는 총안(銃眼)을 냈. 한양도성, 북한산성의 성벽과 잇닿아 있음. 성벽 한 면으로 성을 이루고, 3개의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체계를 갖춘 성은 국내에 유일
- 탕춘대성이 축조되면서 조정은 도성민과 함께 적으로부터 도성을 굳게 지키는 방어 체계로 확립되어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계가 완성됨

### ■ 탕춘대성 축성배경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위급 시 도성은 너무 넓어 방어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도성의 백성을 모두 옮겨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천험을 갖춘 북한(北漢)을 지목해 1711년(숙종 37) 4월~9월 산성을 수축하고,
- 다시 북한산성 방비를 위해 1712년(숙종 38)~1714년(숙종 40) 평창(平倉)을 창의문 밖에 설치하여 북한산성에 들이지 못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후 북한산성과 평창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탕춘대에 축성하였음
- 최초의 발의는 1702년(숙종 28년) 당시 우의정이던 신완(申玩)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년에 걸친 조정의 극심한 찬반 논쟁을 극복해가며 숙종과 이유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정조 때까지 지속됨

### ■ 축성 주체 및 진행경과 : 3단계로 구분 가능

- 1차 : 1713(숙종 39)~1715년(숙종 41)  
→ 총융청이 주관하여 수문(水門), 좌성(左城)·우성(右城) 일부, 한북문, 도로 수축
- 2차 : 1718년(숙종 44) 윤8월 26일~동년 윤10월 초6일  
→ 경리청이 주관하여 서성(西城) 2,400步 중 약 1/2 축조  
1753년(영조 29)~1754년(영조 30)  
→ 총융청이 주관하여 서성 축조 및 보수공사 완료
- 3차 : 1753년(영조 29)~1754년(영조 30)  
→ 총융청 주관하에 한북문 동쪽 성곽 1400보 중 體城 50보와 女牆 축조  
1797년(정조 21)  
→ 총융청 주관하에 동쪽 성곽 축조 완료

### ■ 축성된 城의 성격 :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의 외성(外城)

『비변사등록(1718년 12월 20일)』에 보면 탕춘대 축성을 주도한 숙종의 발언(“만약 북한산성을 지킬 수 있다면 어찌 북한산성을 쌓겠는가? 도성은 실로 백성들과 함께 지킬 형편이 되지 못하여 수축하는 역사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또 탕춘대에 외성(外城)을 쌓으니 형세가 더 장엄해진다.”)과 같이 한양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북한산성의 외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 탕춘대성 축성범위와 규모

『비변사등록(1754년 9월 1일)』에 따르면 탕춘 서성(西城)은 향림봉(香林峰:비봉 추정)에서 한북문(漢北門) 서쪽까지 2,400步이고, 동쪽은 한북문에서 인왕산 도성 아래까지 1,400步에 이른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비봉에서 인왕산 도성과 연결되는 곳까지를 탕춘대 축성범위라고 할 수 있고, 총 3,800步임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조선후기 도성방위체계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의 연계

- 탕춘대성은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의 방위성으로 1715년에 시작하여 1754년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을 지켜 조정의 권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한양도성을 수축하고, 북한산성을 새로 쌓은 후 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축조하여 세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 평창의 설치와 군량저장 시설

-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하는 배후 성이다.
- 1713년 창고를 짓기 시작하여 1714년에 50여 칸의 상창(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이 완성되었는데, 선혜청의 창고도 만들었다. 이후 상창과 중창은 경리청의 창고로 합쳐서 평창이라고 했으며, 하창이 선혜청 창고로 탕춘대성 안쪽인 오늘날 평창동에 있었다. 영조 때에는 오늘날 세검정초등학교에 있었던 총융청과 세검정 사이에 신영창 31문을 세워 상평창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창고였다. 이곳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이나 북한산성에 공급하였다.



《동국여도》 연용대도의 각 창고

### ○ 총융청의 이설과 군사적 중요성의 증가

- 영조는 탕춘대성을 완성하여 도성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포하였는데 그래야만 민심이 안정되어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위민의 큰 뜻이었다. 그리하여 1747년에 탕춘대성으로 총융청을 옮기고 북한산성과 경기서남부까지 지휘하도록 하였다.

○ 주변 유적과의 관계로 본 탕춘대성(蕩春臺城)의 가치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연결하여 도성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며 성 내부에는 세검정터, 충융청 터, 평창 터와 같은 조선 후기 국방 관련 유적이 있어 탕춘대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한다.



개화기의 충융청 모습(이폴리트 프랑탱 공사)

○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사적으로서 가치

- 탕춘대성은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의 방위성으로 1715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1754년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을 지켜 조정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한양도성을 수축하고, 북한산성을 새로 쌓은 후 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축조하여 세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서북쪽을 방어하는 성곽일 뿐만 아니라 성안에 충융청이 설치되어 북한산성을 지휘하고 경기 서남부를 관할하는 지휘소가 갖추어진 성이었다.
- 탕춘대성은 성안에 설치한 평창(平倉) 등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군량 기지 역할을 하였다. 숙종 때에는 험준한 북한산성에 도성민이 몇 달을 버틸 군량을 비축하기 어려워 평창을 만들어 비축했다가 전시에는 북한산성에 올리도록 설계되었지만, 영조 때는 경창(京倉), 호조·선혜청 창고의 곡식까지 이곳으로 옮기면서 도성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접한 성곽의 군량을 보급하고 지휘까지 하는 배후 성이다.
- 탕춘대성은 남쪽 한양도성과 북쪽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조정과 도성민이

한양도성을 고수하다가 지키기 어려워지면 탕춘대성을 지나 북한산성의 대남문과 대성문을 통해 들어가 조정과 도성민이 지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변란에 어가(御駕)가 숙정문을 지나 북한산성 대성문을 통해 행궁으로 들어가도록 탕춘대성 동쪽 대성문로(大成門路)가 있었다.

- 탕춘대성 완성을 영조 스스로 위민(爲民)의 뜻이었다고 밝혔고, 정조 역시 영조께서 ‘수성(守城)’ 두 글자를 방어와 공격의 제일 조건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그 의미가 너무도 명확하다.
- 탕춘대성의 원형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는 조선 후기 축성술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22년 ‘탕춘대성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역사적,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홍지문에서 향로봉과 비봉으로 이어지는 북한산 지맥에 조성된 체성부는 성 내외가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성벽은 고쳐 쌓은 한양도성의 숙종대 구간이나 신축한 북한산성과 동일한 축성법을 보인다. 적이 침입하기 쉬운 완만한 곳은 성벽을 높이 쌓고 총안(銃眼)을 설치하였으나 험준하여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것은 성벽이 비교적 낮고 총안이 설치되지 않았다. 성벽은 성돌의 크기와 다듬은 정도를 통해 숙종 때 쌓은 부분과 영조 때 고쳐 쌓은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영조 때는 주변의 비교적 작은 자연석을 주워서 쌓았다. 대단히 험준한 인왕산 구간 일부는 토성을 쌓았는데, 성벽 기초에 서너 줄 석렬(石列)을 두르며 쌓아 성벽의 무너짐을 막으려 하였다.
- 탕춘대성은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연결하여 도성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며 성 내부에는 세검정 터, 총융청 터, 평창 터와 같은 조선 후기 국방 관련 유적이 있어 탕춘대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한다.
- 따라서 탕춘대성은 18세기 이후 확립된 도성방어체계의 완성체이며 동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관문(關門)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동시가 국내외에서 볼 수 없는 사례이므로 국가 사적으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하나로 연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는데에도 본 사적 승격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36필지 / 11,055m<sup>2</sup>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m <sup>2</sup> ) | 지정면적(m <sup>2</sup> ) | 소유자 |
|----|----------------|--------|----|-----------------------|-----------------------|-----|
| 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산42-1  | 임야 | 1,888,095             | 14                    |     |
| 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 산3-1   | 임야 | 1,942,007             | 439                   |     |
| 3  |                | 산3-23  | 임야 | 219,174               | 1,286                 |     |
| 4  |                | 산3-24  | 임야 | 30,149                | 615                   |     |
| 5  |                | 산10    | 임야 | 20,826                | 234                   |     |
| 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산1-71  | 임야 | 85,497                | 58                    |     |
| 7  |                | 산1-134 | 임야 | 17,623                | 8                     |     |
| 8  |                | 산1-135 | 임야 | 21,058                | 49                    |     |
| 9  |                | 산1-191 | 임야 | 5,851                 | 194                   |     |
| 10 |                | 산1-193 | 임야 | 661                   | 34                    |     |
| 1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산 1-1  | 임야 | 615,785               | 427                   |     |
| 12 |                | 산1-100 | 임야 | 161,354               | 108                   |     |
| 13 |                | 2      | 도로 | 129                   | 129                   |     |
| 14 |                | 3-1    | 도로 | 2,087                 | 47                    |     |
| 15 |                | 3-2    | 하천 | 5,403                 | 6                     |     |
| 16 |                | 4-4    | 임야 | 2,980                 | 152                   |     |
| 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 산1     | 임야 | 893                   | 1                     |     |
| 18 |                | 산2-2   | 임야 | 4,701                 | 1,016                 |     |
| 19 |                | 산4     | 임야 | 23,688                | 434                   |     |
| 20 |                | 7-1    | 학교 | 85,256                | 88                    |     |
| 21 |                | 11-2   | 전  | 2,347                 | 17                    |     |
| 22 |                | 30-1   | 전  | 9,200                 | 25                    |     |
| 23 |                | 31-7   | 대지 | 3,062                 | 167                   |     |
| 24 |                | 33-9   | 대지 | 14,876                | 33                    |     |
| 25 |                | 33-11  | 잡종 | 2,426                 | 13                    |     |
| 26 |                | 36-9   | 대지 | 1,435                 | 14                    |     |
| 27 |                | 36-10  | 대지 | 1,464                 | 11                    |     |
| 28 |                | 99-7   | 도로 | 17,944                | 148                   |     |
| 29 |                | 134-7  | 도로 | 620                   | 10                    |     |
| 30 |                | 136-3  | 하천 | 1,220                 | 187                   |     |
| 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 산15-1  | 임야 | 11,405                | 327                   |     |
| 32 |                | 산15-3  | 임야 | 3,769                 | 256                   |     |
| 33 |                | 산16-1  | 임야 | 34,551                | 173                   |     |
| 34 |                | 산17-1  | 임야 | 31,329                | 1,058                 |     |
| 35 |                | 산17-3  | 임야 | 1,458                 | 1,265                 |     |
| 36 |                | 산22-1  | 임야 | 140,727               | 2,012                 |     |
| 계  | 36필지           |        |    | 5,411,050             | 11,055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 70필지 195,453㎡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 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산42-1          | 임야    | 1,888,095 | 3,112   |       |
| 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 산3-1           | 임야    | 1,942,007 | 14,309  |       |
| 3  |                | 산3-23          | 임야    | 219,174   | 44,495  |       |
| 4  |                | 산3-24          | 임야    | 30,149    | 13,631  |       |
| 5  |                | 산10            | 임야    | 20,826    | 5,134   |       |
| 6  |                | 257            | 전     | 284       | 284     |       |
| 7  |                | 262-2          | 대지    | 536       | 201     |       |
| 8  |                | 263-5          | 구거    | 101       | 15      |       |
| 9  |                | 264            | 전     | 744       | 744     |       |
| 10 |                | 265            | 전     | 221       | 221     |       |
| 11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산1-45 | 임야        | 77,966  | 2,620 |
| 12 | 산1-71          |                | 임야    | 85,497    | 6,280   |       |
| 13 | 산1-134         |                | 임야    | 17,623    | 899     |       |
| 14 | 산1-135         |                | 임야    | 21,058    | 1,886   |       |
| 15 | 산1-191         |                | 임야    | 5,851     | 3,571   |       |
| 16 | 산1-193         |                | 임야    | 661       | 621     |       |
| 17 | 산1-194         |                | 임야    | 959       | 47      |       |
| 18 | 1-1            |                | 대지    | 139       | 139     |       |
| 19 | 1-2            |                | 대지    | 225       | 225     |       |
| 20 | 1-3            |                | 하천    | 840       | 418     |       |
| 21 | 2-1            |                | 대지    | 99        | 99      |       |
| 22 | 2-2            |                | 대지    | 50        | 50      |       |
| 23 | 2-3            |                | 대지    | 20        | 20      |       |
| 24 | 2-8            |                | 대지    | 76        | 6       |       |
| 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산 1-1          | 임야    | 615,785   | 12,023  |       |
| 26 |                | 산1-100         | 임야    | 161,354   | 202     |       |
| 27 |                | 1-1            | 대지    | 129       | 129     |       |
| 28 |                | 1-2            | 대지    | 86        | 86      |       |
| 29 |                | 1-3            | 대지    | 56        | 56      |       |
| 30 |                | 3-1            | 도로    | 2,087     | 321     |       |
| 31 |                | 3-2            | 하천    | 5,403     | 701     |       |
| 32 |                | 4-4            | 임야    | 2,980     | 199     |       |
| 33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 산1             | 임야    | 893       | 427     |       |
| 34 |                | 산2-1           | 임야    | 1,944     | 642     |       |
| 35 |                | 산2-2           | 임야    | 4,701     | 3,685   |       |
| 36 |                | 산4             | 임야    | 23,688    | 8,931   |       |
| 37 |                | 7-1            | 학교    | 85,256    | 3,867   |       |
| 38 |                | 11-2           | 전     | 2,347     | 962     |       |
| 39 |                | 30-1           | 전     | 9,200     | 1,874   |       |
| 40 |                | 31-7           | 대지    | 3,062     | 2,083   |       |

|    |      |                  |        |           |         |        |  |
|----|------|------------------|--------|-----------|---------|--------|--|
| 41 |      | 31-11            | 전      | 1,296     | 490     |        |  |
| 42 |      | 31-20            | 대지     | 1,200     | 391     |        |  |
| 43 |      | 33-1             | 전      | 1,993     | 277     |        |  |
| 44 |      | 33-2             | 전      | 3         | 3       |        |  |
| 45 |      | 33-9             | 대지     | 14,876    | 4,274   |        |  |
| 46 |      | 33-11            | 잡종     | 2,426     | 1,904   |        |  |
| 47 |      | 36-9             | 대지     | 1,435     | 668     |        |  |
| 48 |      | 36-10            | 대지     | 1,464     | 811     |        |  |
| 49 |      | 36-11            | 대지     | 109       | 78      |        |  |
| 50 |      | 36-16            | 도로     | 703       | 193     |        |  |
| 51 |      | 36-21            | 대지     | 489       | 410     |        |  |
| 52 |      | 36-22            | 대지     | 473       | 226     |        |  |
| 53 |      | 36-32            | 대지     | 526       | 263     |        |  |
| 54 |      | 36-40            | 도로     | 69        | 44      |        |  |
| 55 |      | 36-41            | 대지     | 522       | 418     |        |  |
| 56 |      | 72-7             | 하천     | 9,023     | 49      |        |  |
| 57 |      | 99-7             | 도로     | 17,944    | 483     |        |  |
| 58 |      | 134-7            | 도로     | 620       | 252     |        |  |
| 59 |      | 136-3            | 하천     | 1,220     | 729     |        |  |
| 60 |      | 서울특별시 종로구<br>부암동 | 산15-1  | 임야        | 11,405  | 2,089  |  |
| 61 |      |                  | 산15-3  | 임야        | 3,769   | 2,300  |  |
| 62 |      |                  | 산16-1  | 임야        | 34,551  | 2,048  |  |
| 63 |      |                  | 산17-1  | 임야        | 31,329  | 12,464 |  |
| 64 |      |                  | 산17-3  | 임야        | 1,458   | 193    |  |
| 65 |      |                  | 산17-4  | 임야        | 5,570   | 349    |  |
| 66 |      |                  | 산20    | 임야        | 18,050  | 961    |  |
| 67 |      |                  | 산22-1  | 임야        | 140,727 | 27,166 |  |
| 68 |      |                  | 산22-3  | 임야        | 6,545   | 387    |  |
| 69 |      |                  | 369-40 | 임야        | 516     | 271    |  |
| 70 | 391  |                  | 잡종     | 13,845    | 47      |        |  |
| 계  | 70필지 |                  |        | 5,556,328 | 195,453 |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

○ 주요시설

- 성 광 : 인왕산 서울성곽 하부~향로봉 하부

- 성벽은 총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로 조사되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5,453㎡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문화재 면적인 198,657㎡를 2023년에 측량하여 불부합지 등 지적을 확실히 정리한 결과, 3,204㎡가 감소되었다.

- 성 문 : 성벽과 함께 1715년 축조를 시작 1754년에 건립이 완료되었다.

- 홍지문 : 탕춘대성의 정문으로 1921년 홍수로 무너진 후 1977년 복원되었다.
- 오간수문 : 홍제천에 있는 수문으로 홍지문과 함께 복원되었다.
- 암문 : 북한산에 있는 암문으로 축조 당시 모습이 남아 있다.

■ 탕춘대성 고지도



《도성대지도》의 한북문과 충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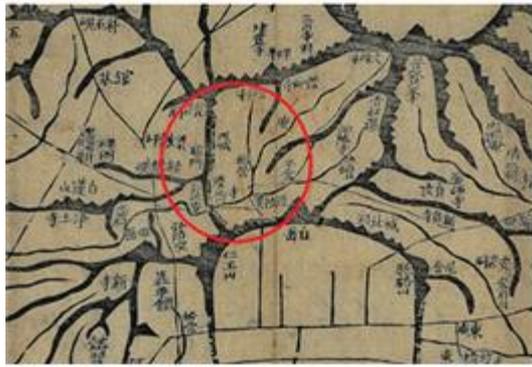
《수선전도》의 서성, 한북문, 충용청, 평창, 조지서



《동여도》도성도의 서성, 한북문, 암문, 충영(摠營)



《한양전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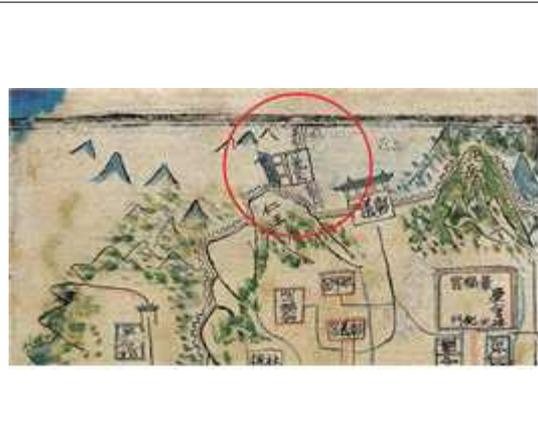
《대동여지도》 도성도의 서성, 한북문, 암문, 총영(摠營), 평창



《한양경성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조선성시도》의 탕춘대성과 한북문, 총융청



《천하산천도》 한양도의 성과 수문(水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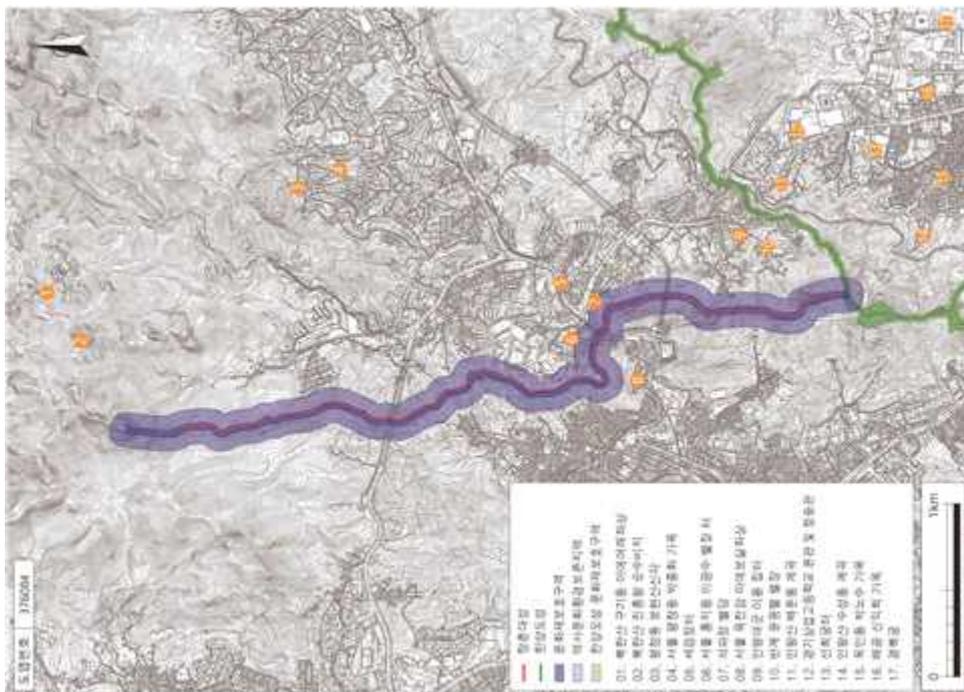


《해동지도》 경도의 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관계도



《해동지도》 경도의 탕춘대성(수문, 탕춘대, 선혜창, 조지서, 경리상창, 경리하창)

■ 각 구역별 탕춘대성 사진





탕춘대성 주변 현황(북한산성 연결 구간)



한양도성 연결부



인왕산 토성(1구역)



인왕산 기차바위 구간



인왕산 토성구간(2구역)



인왕산 토성구간(3구역)



인왕산 암반 성벽(3구역)



인왕산 토성구간(4구역)



인왕산 토성구간(4구역)



인왕산 암벽209구간(4구역)



홍지문~인왕산 성벽 (4구역)



인왕산에서 본 상명대 쪽 성벽 (5구역)



인왕산에서 본 상명대 쪽 성벽 (5구역)



인왕산 쪽 성벽과 총안(6구역)



인왕산 쪽 익성 복원구간



인왕산 안내도



홍지문



홍지문과 오간수문



오간수문 북쪽 익성



상명대 쪽 익성 복원 구간



탕춘대성 성돌



무너진 성벽(8구역)



성벽(8구역)



성벽(9구역)



성벽(9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성벽(10구역)



암문(내부)



암문(외부)



성벽(11구역)



성벽(11구역)



향로봉 하단까지 축조된 성벽



향로봉에서 본 남측 성벽 현황



홍지문(한북문) 전경



홍지문(한북문) 등성 계단



내부 홍예



외부 홍예종석



여장



여장 충안



누조



누조 측면



홍지문 육축 외부 문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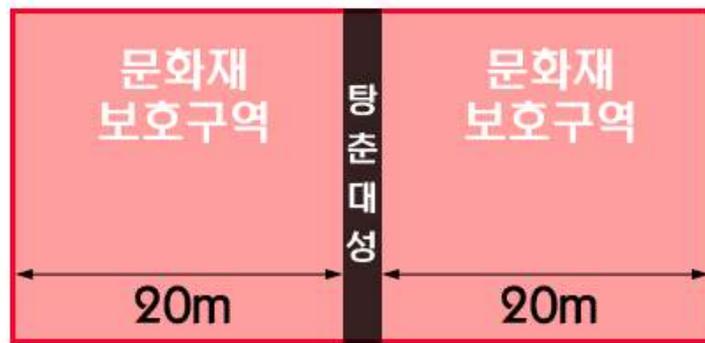
홍지문 내부 통로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정밀실측에 따른 구역의 확정과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허용기준 또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1) 문화재보호구역

- 2023년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정용역 결과 탕춘대성의 정확한 길이와 성벽 중심선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졌던 문화재 길이와 면적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 이번 신청대상인 탕춘대성(蕩春臺城)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성벽 중심선으로부터 내·외 20m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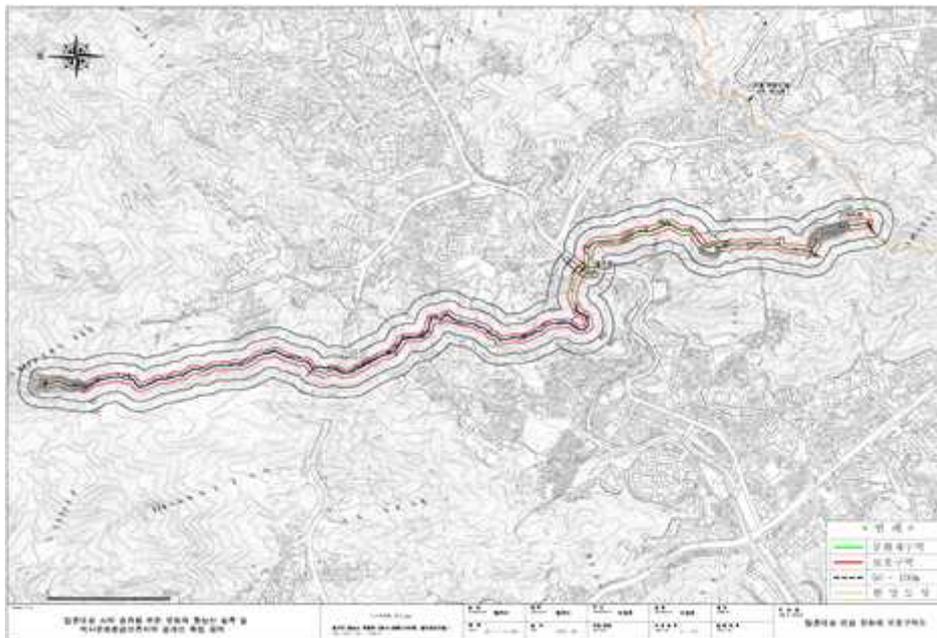
홍지문 및 탕춘대성 문화재보호구역 설정도

- 성벽은 총길이 5,051m(석성 3,549m, 토성 758m, 자연암반 744m)로 조사되었다.
- 2023년 탕춘대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정 용역'에서 산출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5,453㎡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보호구역 면적인 198,657㎡을 2023년에 측량하여 불부합지 등 지적을 확실히 정리한 결과, 3,204㎡가 감소되었다.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벽 길이   | 4,882m   | 5,051m   |
| 보호구역 면적 | 198,657㎡ | 195,453㎡ |



당춘대성 당초 문화재보호구역도



당춘대성 변경 문화재보호구역도



홍지문 남쪽 실측 성곽선과 불일치

- 정밀실측에 따라 북한산 성벽 종료 지점 북측은 향로봉 암반구간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지정구역에 편입하였다.
- 인왕산구간은 석성·토성·암반 구간으로 구분된다. 현재 석성구간은 시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토성과 암반구간의 일부가 문화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2023년 정밀실측에 근거하여 조정이 필요하였다.

##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 홍지문 및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서 당초 보호구역 주변 50m 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나 **서울시 문화재조례 제19조제1항2호**에 근거, 10,000㎡ 이상인 경우 설정하지 않는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적 대부분은 산지 지형으로 역사문화경관이 저해되는 경우는 없으나, 홍지문 인근 사유지 일부가 탕춘대성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함에 따라 유적 보존 및 경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 사적 지정 이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
  - 현재 홍지문 북측 북한산구간의 성 내·외측 사유지 일부는 성벽에 인접해 건축물이 위치한다. 이 때문에 성 내측의 지형변화 및 유적 훼손은 물론, 유적 조망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성벽에 인접한 사유지는 매입하고, 유적 정비 및 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홍지문 및 탕춘대성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이나 ‘탕춘대성(蕩春臺城)’이 국가 사적으로 승격 시 보호구역 주변 1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한다.

## (3) 불부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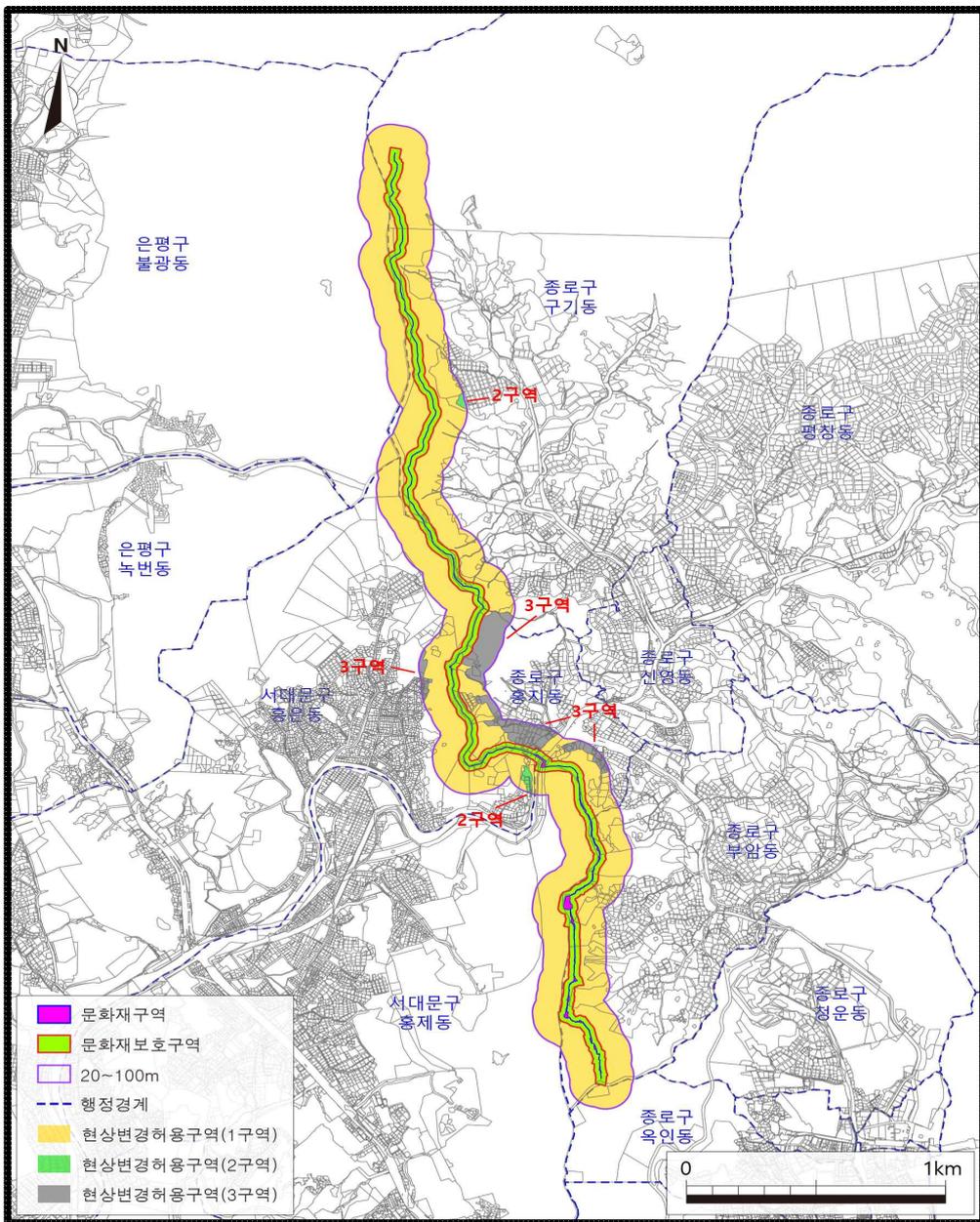
- 탕춘대성은 종로구와 서대문구, 은평구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 지적측량의 오류로 말미암은 불부합지가 발생했다. 이는 보존·관리 시 행정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2023년 실측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자치구 간 지적 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시

- 사적 지정 후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변 100m 범위 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에서 사적 승격 시 신설되는 역사문화환경지역은 홍지문이 위치하는 홍지동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시설물이 위치하는 곳은 거의 없으므로, 산지 및 임야는 보존지역으로 설정한다.
-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설정된 북한산 지역의 임야의 경우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 기 개발된 사유지는 3구역으로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에 따라 재개발 및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분   | 허용기준   |
|------|--|
| 1구역  | ○ 개별검토   |
| 2구역  | ○ 최고높이 12m 이하  |
| 3구역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br>○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br>○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br>○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 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탕춘대성 허용기준(안)



탕춘대성 허용기준(안)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8-1. 기초 정비계획

#### 1) 수목 정비

##### (1) 기본 방향

- **탕춘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수목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탕춘대성은 인왕산과 북한산에 걸쳐 있는 성곽으로 기존 식생의 생태적 가치와 서울 한양도성 및 내사산, 외사산의 역사성을 보전한다.
  - 훼손된 산림은 역사·문화적 고증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생태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계획을 도모한다.
  - 북한산구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상 보전을 위한 행위허가에 따라 수목 정비 시 허가가 필요하다.
  - 식생제거는 경관적으로 주요한 지점이나 생태성이 열악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성곽유구 조사연구 및 정비, 탐방로 개설 및 정비 등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 성곽의 시·발굴 또는 성곽 수리 및 정비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식생제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이때 식생에 대한 생태적 배려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한 식생제거는 문화재와 인접한 숲을 제거하게 되므로 유적 내외부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성곽유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식생제거가 일정범위 이루어지면 사업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침식에 대비해야 하며 교목 하부의 식생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관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식생의 천이를 차단하게 되므로 숲의 다음 세대를 구성하게 될 어린 개체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수목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및 입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정 수종을 선정한다.
  - 성벽에 영향을 끼치는 수목이나 성벽 면석 및 상부에서 자라나는 수목에 대해서는 성벽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고, 담쟁이덩굴과 같은 덩굴식물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수목 특성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조사연구를 위한 식생제거**
  - 제거가 불가피한 지역 외의 식생은 최대한 보호
  - 발굴지역에 잔존시킨 수목은 향후 유적 지역의 생태적 기반이 되는 점에 유의
- **유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식생정비**
  - 성곽유구 상부나 면석 사이에서 자라는 수목은 지속적 제거
  - 수목의 도괴로 성곽유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탐방로 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식생정비**
  - 현재 대상지 내 탐방로 주변에 생육하는 외래종 수목의 지속적인 제거

- 쓰러진 수목이나 떨어지는 가지에 의해 탐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안전한 보행, 여름철 그늘 제공 등 쾌적한 탐방 여건 조성을 위한 식생정비

● **조망을 위한 식생정비**

- 조망을 위한 식생정비는 조사연구, 성곽보수·복원 등의 사업과 연관을 검토하여 시행
- 여건에 따라 가지치기만으로 외부로의 가시성 증대가 가능함에 유의

●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숲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 정기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하는 지역에서는 자생종 수목의 치수를 보호·육성
- 외래수종의 침입을 배제해주면서 자연스러운 천이가 진행되도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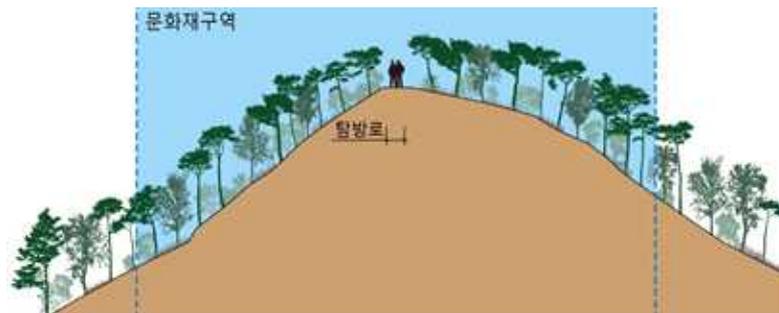
● **외래수종으로 구성된 숲 또는 산발적으로 출현하는 외래수종 수목의 정비**

- 외래수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단계적 간벌로 갱신 유도
- 외래수종 제거로 발생한 산물은 가급적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내에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부식시킴
- 맹아력이 왕성한 수종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화학적 고살처리 시행

(2) **성벽 형태별 수목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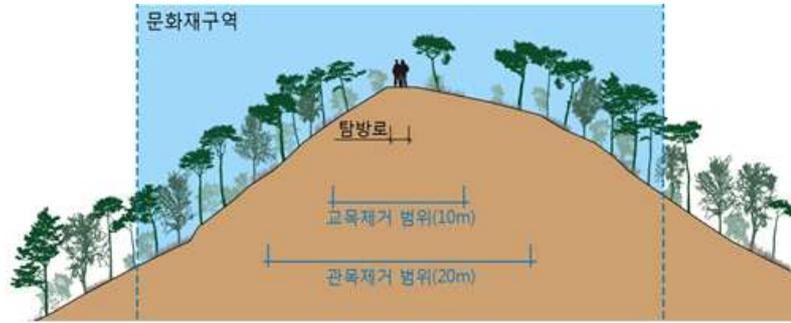
① 토성구간

- 석성 구간을 제외한 1,502m 중 암반구간(744m)을 뺀 구간으로 총 758m이다.
- 암반 구간을 제외한 능선 구간에 토성이 축조되었으며, 성 상부는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사유실 등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 암반 구간의 수목은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외부에서의 조망상 필요하다면 수목조사를 통해 검토 후 정비하도록 한다.



토성구간 탐방로와 수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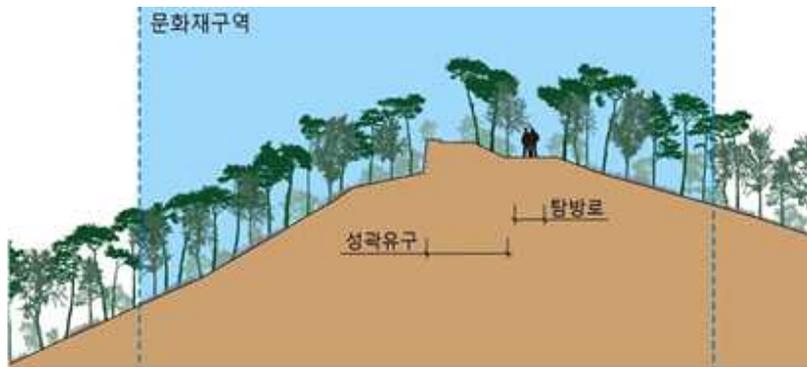
- 교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과 성 상부(탐방로)에서 생육하는 수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 상부를 중심으로 내·외측 10m에 해당한다.
- 관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과 참나무류의 치수(穉樹)로, 정비 범위는 성 상부를 중심으로 내·외측 20m 범위이다. 이 범위에 식생하는 관목성 자생수종인 진달래, 산철쭉, 누리장나무 등은 존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 토성구간의 수목제거는 과도할 경우 경관을 해칠 수 있고 지형침식을 가속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식생조사를 통해 적절한 구체적 제거범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토성구간 수목정비 범위와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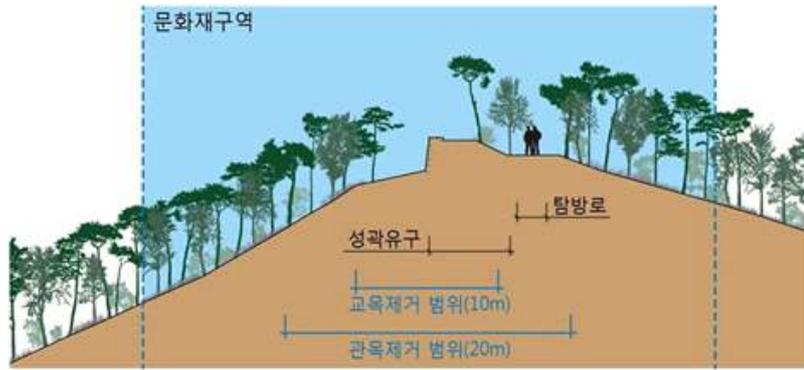
② 석성구간

- 석성 구간은 인왕산구간과 북한산구간까지 총 3,549m에 해당한다.
- 석성 구간 또한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 내측으로는 일부가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 탐방로는 대부분 1~2m 정도의 폭으로 형성되어 통행에 불편함은 없으나 침식이 심각한 구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 석성구간의 수목은 성벽에 근접하여 다수 생육하고 있으며, 일부 성 상부에 수목이 생육 중이다.



석성구간 유구와 수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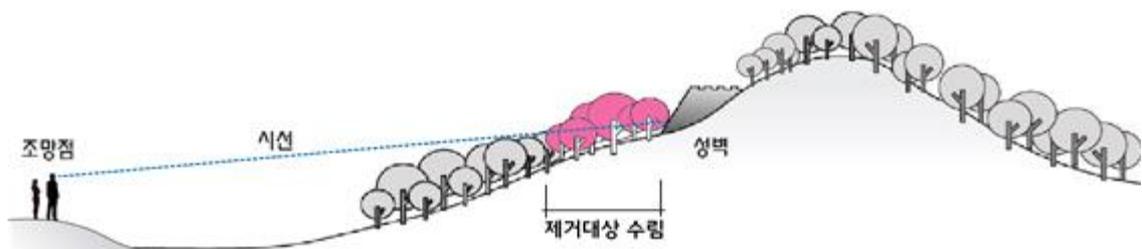
- 교목제거 대상 수목은 외래수종 및 성벽 인접하여 자라는 수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벽을 포함해 내·외측 10m 범위에 해당한다.
- 관목제거 대상 수종은 덩굴류 및 교목류, 맹아와 관목으로, 정비 범위는 성벽을 포함해 내·외측 20m 범위이다. 관목제거 시 관목성 자생수목인 진달래, 산철쭉 등은 존치하도록 하여 표토층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원된 석성구간의 현황 사진을 보면 덩굴식물로 인해 어디가 성벽인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제거범위를 고려하여 성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덩굴식물을 제거한다.
- 성 상부에 생육하는 수목과 성벽에 근접하여 생육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일정 범위 내에는 외래수종인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을 선별하여 제거한다.



석성구간 수목제거 범위

### (3) 성벽 조망을 위한 수목정비

- 탕춘대성 전 구간을 가시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면 토성구간의 경우 가시가 가능해져도 성곽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그 외의 석성구간들은 모두 시가지에서 외부 조망점들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도로변 건물과 가로수의 영향으로 보행자에게 의미 있는 성곽 조망가능 지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정비 시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수목 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 석성구간이 명백하게 가시(可視) 가능한 지점은 홍지문 근처에서만 나타나는데 홍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산구간과 인왕산구간 일부가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구간은 25~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모두 도로나 주택지역과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벽의 가시를 가능케 하는 수목제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왕산구간과 북한산구간의 성벽의 가시가 가능한 임의의 지점을 선정한 후 수치지형도에서 시선에 대한 횡단선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성곽 가시성 확보를 위한 식생제거 범위 설정의 개념



조망점 위치 및 수목제거 범위

- ① 조망1지점 : 북한산구간 조망
  - 홍지문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복원구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위치상 홍지문 앞이다.
  - 수목정비구간(20m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조망되는 경사각에 따라 성벽에서 36~50m의 제거 범위(제거면적 2,465m<sup>2</sup>) 검토
- ② 조망2지점 : 인왕산구간 조망
  - 홍지문에서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복원구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위치상 홍제천변 노상주차장이다.
  - 조망되는 경사각에 따라 성벽에서 34~97m의 제거 범위(제거면적 2,212m<sup>2</sup>)를 검토

| 조망점 위치                              | 시선 | 거리(조망점-성벽) | 수림제거폭   | 비고                              |
|-------------------------------------|----|------------|---------|---------------------------------|
| 조망1지점<br>: 홍지문 앞<br>(북한산구간)         | 1  | 148m       | 32m     | 제거면적 :<br>약 2,212m <sup>2</sup> |
|                                     | 2  | 159m       | 43m     |                                 |
|                                     | 3  | 184m       | 79m     |                                 |
|                                     | 4  | 201m       | 97m     |                                 |
|                                     | 5  | 214m       | 성벽조망 불가 |                                 |
|                                     | 6  | 225m       | 성벽조망 불가 |                                 |
| 조망2지점<br>: 홍제천변<br>노상주차장<br>(인왕산구간) | 1  | 100m       | 42m     | 제거면적 :<br>약 2,465m <sup>2</sup> |
|                                     | 2  | 132m       | 45m     |                                 |
|                                     | 3  | 164m       | 50m     |                                 |
|                                     | 4  | 173m       | 36m     |                                 |

조망 위치에 따른 수림제거폭

→ 조망을 위한 수목 제거 시 성벽의 가시성이 증가하는 효과에 비해 제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침식이나 경관변화를 감안한다면, 교목제거 10m, 관목제거 20m의 범위를 설정하여 제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배수시설 정비

### (1) 기본 방향

- 당춘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배수시설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수구 존재 시 성곽 보존에 문제가 없다면 본래 수구의 기능을 회복하여 배수로 정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의 안전점검을 통해 성벽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에 대해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한다.
  - 우수에 의해 형성된 자연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최대 예상 강우량을 토대로 배수로 규모를 결정한다.
  - 배수로는 탐방로 내측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불가할 경우 여장 쪽으로 설치하되 여장 및 성곽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 배수로의 구성 재료로 성돌과 유사한 석재를 이용하는 등 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위적이지 않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정비 후에도 정기적인 계측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 및 진단 과정표 및 서울 한양도성 안전진단 및 계측 사례

### (2) 성벽 인접 시설물의 유입수 차단

- 성벽 인접 시설물로 인한 인위적인 유입수 차단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현장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된 상명여고 인접 구간으로 이미 성벽 내부로 우천 시 우수가 침투하여 배부름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 단면도를 확인하면 상명여고 경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 외부인 성 상부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조성한 상태로 성 상부의 우수가 모두 한 지점으로 몰려 쏟아지게 되어 성벽은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하부에는 급격한 우수 낙하로 토사가 유실되어 있었다.

- 현재 토사 유실로 인해 탐방로 토사까지 유실되어 임시방편으로 나뭇가지와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탐방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중이다. 탐방객들이 실족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배부른 성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탐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성 내측 우수 유입으로 인해 탐방로 토사유실

◀ 현재 토사유실의 대처로 나뭇가지와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탐방로로 사용



상명여고 유입수에 의한 토사유실 현황과 성벽배부름 입면도

- 성 내측 우수 유입을 차단하고자 안전 펜스 아래 측구(側溝)를 설치하여 학교 부지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성벽에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 상명여고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 성 내측(상명여고)에서 성벽을 타고 흐르는 우수를 성 내부에 측구를 설치하여 성 내측으로 배수하는 것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 성 내측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벽 뒤채움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기타 시설물 정비

#### (1) 군사시설

- 군사적 요충지였던 인왕산과 북한산에 걸친 탕춘대성은 현재에도 군사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군사시설은 성 내측에 성벽에 인접하여 있다.
- 군사시설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과 참호 등으로 지형을 훼손하며 입지했다.



인왕산 구간 군사시설



인왕산 구간 군사시설 출입문

- 성 상부에 철조망 설치로 인해 유적이 훼손되고 경관을 저해하며 특히 탐방객들의 안전상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생태계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는 철조망은 철거를 진행하도록 한다.
- 철책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성 상부에 시멘트와 앵커볼트(기초볼트)를 설치한 흔적이 있어 성벽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도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와 앵커볼트를 제거하여 원형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인왕산구간의 토성 상부에도 군사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성벽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토성구간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북한산구간에는 대규모 군사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간단한 시설 철거 및 훼손된 지형의 복원계획을 진행하고, 인왕산구간에는 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군부대 협의 후 정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8-2. 유적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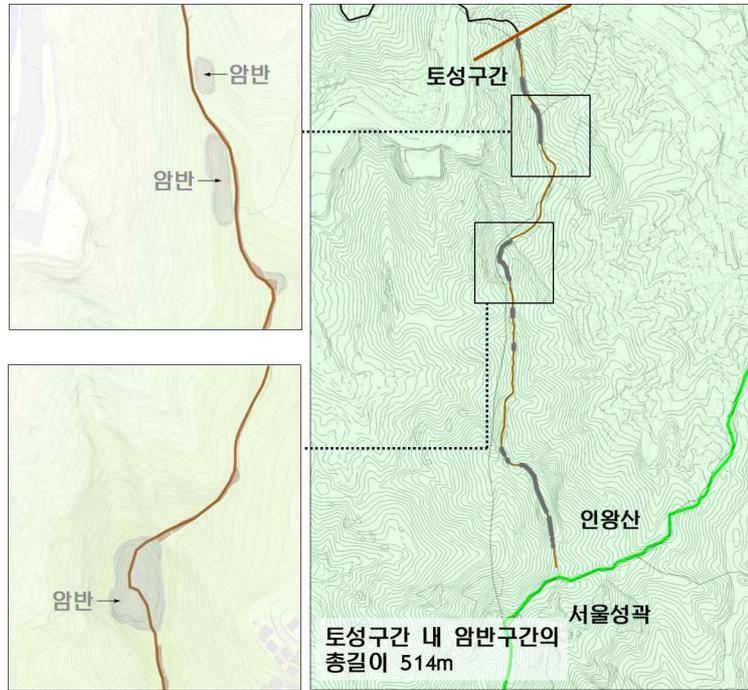
### 1) 기본 방향

- 당춘대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유적 정비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당춘대성은 크게 잔존 유형별로 원형구간, 복원구간, 멸실구간, 암반구간으로 구분한다.
  - 원형구간에 대해서는 토성과 석성 구간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존 정비를 실시한다.
  - 복원구간은 홍지문 및 오간수문의 좌측으로 150m, 우측으로 50m 총 200m의 구간으로 1976년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보수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여장 원형의 모습을 무시한 채 복원되어 원형 회복이 필요하다.
  - 멸실구간은 도로에 의해 단절된 구간과 일부 탐방로 등에 의해 멸실된 구간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유구를 확인하고 성벽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 2) 보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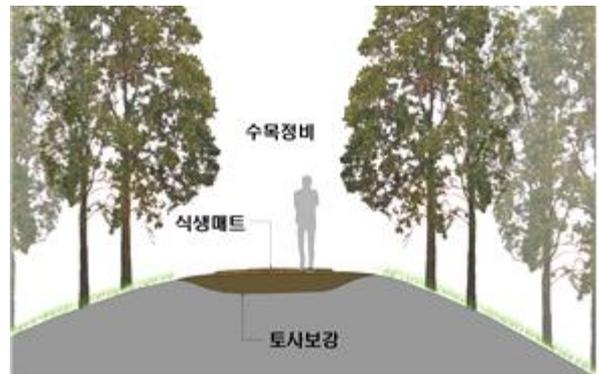
#### (1) 토성구간 상부 토사유실 정비

- 인왕산 토성구간 중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성벽의 규모 및 성격을 확인한 구간과 탐방로 및 우수로 토성 상부 토사가 유실된 구간은 정비를 실시한다.
- 현재 토성구간의 대부분은 성 상부에 토사가 유실되어 수목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토양에 중요한 표토층 및 유기물층 등이 모두 깎여나가 토양이 황폐해져 주변 식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 수목조사를 통해 성벽 상부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간벌을 통해 수목을 정비하도록 한다.
- 매장문화재 조사 이후 원지형대로 복원하고 상부에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성구간 내 암반구간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성벽 형태로 토성 정비계획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옆의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암반구간의 총길이는 514m로 토성구간 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토성의 최상부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움푹하게 패여 있고 수목의 드러난 뿌리를 밟으며 탐방하는 상태로 수목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해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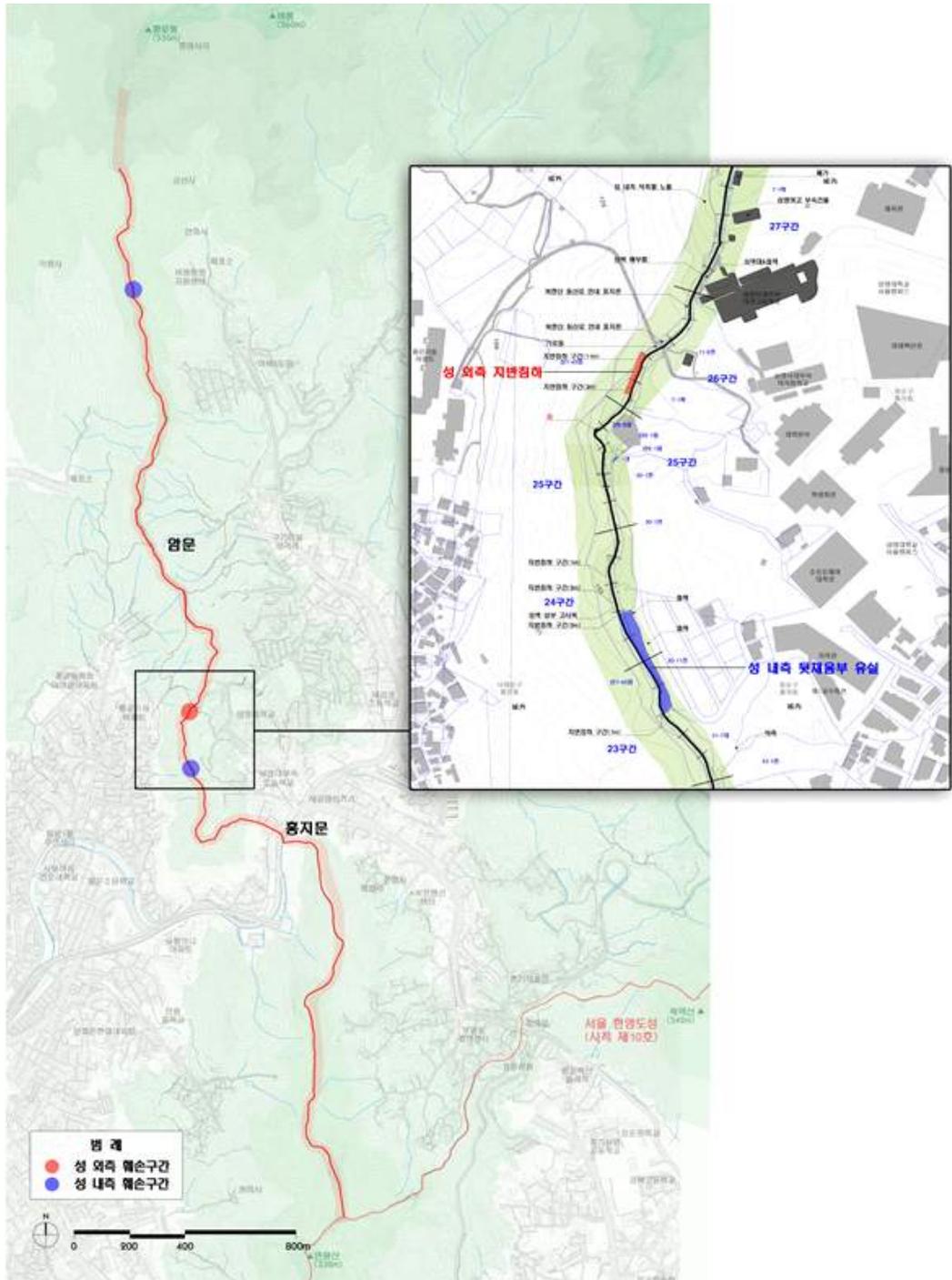


토성구간 내 암반 구간

- 탐방로와 우수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어 움푹 파인 성 상부에 토사를 보강하여 메우면서 지반다짐을 한 후 연속적인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성 상부에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식생매트(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안전한 탐방로 조성과 함께 우수로 인한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 토사를 보강함으로써 토성의 원지형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상부에 식생매트를 깔아 설치하면 우천 시 흘러 내리는 우수가 움푹 파인 탐방로가 아닌 주변으로 고루 흘러내려 급격한 토사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탐방객들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로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연 친화적인 식생매트(야자매트)는 천연재료이므로 약 7년 정도 사용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부식되어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므로 7년 후에 한 번 더 성 상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시공하거나 당시에 새로운 자연 친화적 재료를 고려하도록 한다.



토성구간 단면 계획도



성벽 훼손 구간 현황도

## (2) 석성 구간 뒤풀음부 유실

- 상명대 인근 석성 구간으로 탐방객들이 다니면서 조성된 탐방로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砂防事業)<sup>1)</sup>으로 인해 성곽 뒤풀음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구간의 사방사업은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산지 사면에 자연친화적인 석재를 사용하여 단을 조성하고 상부 황폐지에 사계절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철나무, 기타 관목 등을 식재하여 토사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공사한 상태인데 이번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에 대지 조성 시 훼손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구간 내에 성벽의 뒤풀음부가 유실된 상태로 뒤풀음 석렬까지 노출된 곳이 있다.
- 상명대 구간에서 향로봉으로 오르는 구간에서는 탐방객들의 통행으로 뒤풀음부가 훼손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흙이 유실되고 약 2m 폭으로 생긴 탐방로 가운데 성벽 뒤풀음 석렬로 보이는 석렬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로 지속적인 탐방과 우수로 인한 토사유실이 계속된다면 뒤풀음부의 석렬 또한 탈락되어 유실될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성곽의 뒤풀음부가 유실됨에 따라 성벽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구조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탐방객들을 위한 안전한 탐방로도 확보되어야 한다.
- 유실된 뒤풀음부에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성벽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안에 토사를 보충하여 지반을 다져 성벽의 구조적 안정을 되찾는다. 상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추가적인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 사방사업 구간 내 성벽은 안전점검을 통해 뒤풀음부의 표토층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이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성곽 내측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식생매트를 탐방로로 활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우수와 탐방객으로 인한 토사유실을 예방하고 더불어 탐방객들에게 통행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 3) 복원 정비

- 1977년에 이루어진 탕춘대성 성벽 복원공사 당시 홍지문 및 오간수문, 성벽에 대한 원형고증은 이루어졌으나, 여장은 원형을 무시한 채 복원하여 당시의 복원구간 내 여장에 대한 원형고증과 복원정비가 필요하다.
- 홍지문 및 오간수문 양측으로 복원된 성벽은 탕춘대성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주요한 경관 조망부로 탕춘대성의 유적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현재 성돌 쪼개짐과 같이 훼손되고 원형과 다른 모습을 유지하기 보다는 면밀한 원형고증을 통해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 탐방객 및 주변 지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왕산과 북한산구간의 복원된 여장을 보면 복원공사 이후 진행된 보수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된다. 성돌 사이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매워 보수한 형

1) '사방사업(砂防事業)'이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황폐지에 식물을 심어 산림환경으로 복원시켜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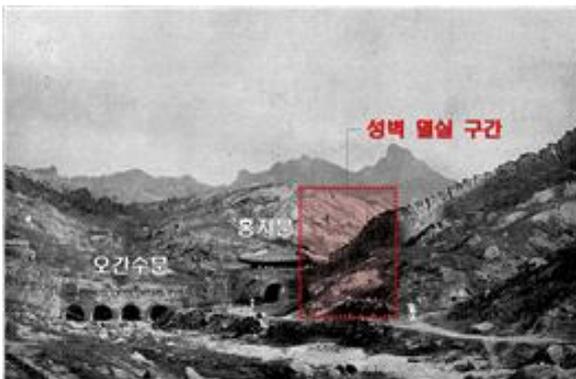
대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성벽의 구조상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버티는 격으로 이를 제거하고 원래 형태의 여장으로 수리 및 복원 검토가 필요하다.

- 보수·복원 정비를 통해 훼손된 체성부 및 여장구간의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원형고증을 통한 복원 정비까지 진행한다.
- 복원구간의 체성부 성돌은 육안조사 결과 성벽의 본래 성돌인 구재와 외부에서 반입한 신재 2종으로 대비된다. 성돌의 균열은 북한산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신재보다 구재로 보이는 성돌에서 균열을 볼 수 있었다.
- 일단 단기적으로 안전점검 시 균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차적으로는 균열의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인지 재료적인 원인인지에 대해 규명하고 신재와 구재가 섞여 복원된 성벽으로 각 부재의 하중 및 압축강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 인왕산구간의 복원성벽 주변에서는 복원 당시 사용되었던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석재에 대해서는 원형의 성돌 여부에 대해서 분석 후, 원부재의 경우 추후 성곽 보수 및 복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복원구간의 형태를 단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이후 성벽 구조를 파악하여 원형고증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장의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 4) 형상화 정비

##### (1) 성벽 위치 형상화

- 탕춘대성은 대부분이 능선 위에 위치하여 멸실된 구간이 적은 편이나 홍지문 남측 성벽이 현재 왕복 4차선 도로인 세검정로에 의해 멸실된 상태이다. 이 지점은 성곽이 외측으로 회절하는 구간으로 홍지문과 복원성벽의 방향이 다른 채로 끊겨있어 탐방객이나 지역민들이 쉽게 성곽의 연속성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탕춘대성 멸실구간 옛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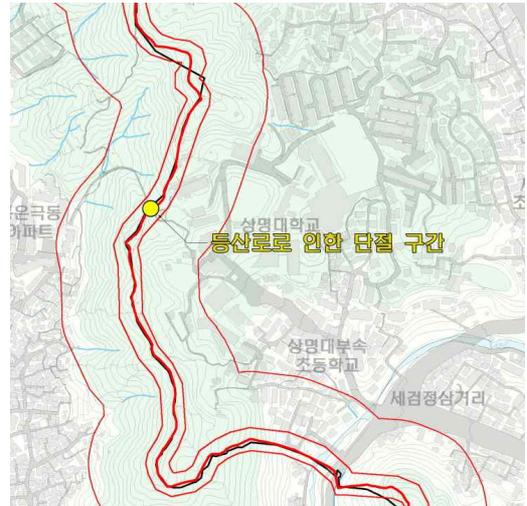
도로로 인한 멸실구간

- 옛 성곽의 흔적을 알리고 성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 이전에 현재의 홍지문 남측 성벽 멸실구간인 도로상에 성벽이 지나갔던 자리를 추정하여 표시(하부 형상화)한다. 이전된 홍지문의 원위치까지 표시할 것인지 성벽의 흔적만을 표시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2) 성벽 단면 형상화



성벽단절구간 복원형상화 사례(승례문)



등산로로 인한 성벽 단절구간 위치

- 북한산구간 상명대 부근에서 성벽의 단절구간 중 단면이 확연히 드러난 구간이 확인되었다. 단절구간에는 상명대학교 측에서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단절된 형태를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행의 편리성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 멸실된 구간은 현재 등산로의 양측에 성벽의 면석과 뒤채움부가 노출된 단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2022년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구조를 확인한 후 보수를 진행하였다.
- 성벽 단면 형상화 사례로 주변 연관 성곽인 서울 한양도성의 승례문 양측 성벽의 단면부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의 새로운 복원은 지양하고 최소한으로 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미 멸실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로를 확보하여 등산객으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 5) 시설 정비 계획

### (1) 기존 탐방로 정비

- 북한산과 인왕산은 예전부터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서울 인근에 있는 산으로 이미 등산로가 대부분 조성되어 있다.
- 인왕산의 주 등산로는 한양도성 탐방로, 탕춘대성 길과 인왕산 기슭에 조성된 무(無)장애숲길인 인왕산자락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탕춘대성길은 능선상에 축조된 토성 상부를 따라가는 오솔길로 대부분 완만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산로이며, 따로 조성된 등산로가 아닌 자연 오솔길로 폭은 약 1~1.5m 정도이다.
- 인왕산 능선상에 위치하는 군부대로 인해 우회할 수 있는 데크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가파른 암반구간에는 암반에 쇠파이프를 박아 지지하고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인왕산구간 중 비교적 가파른 구간인 복원구간에는 목재로 여장 내측에 계단을 조성하고 홍지문 쪽으로 내려가는 우회탐방로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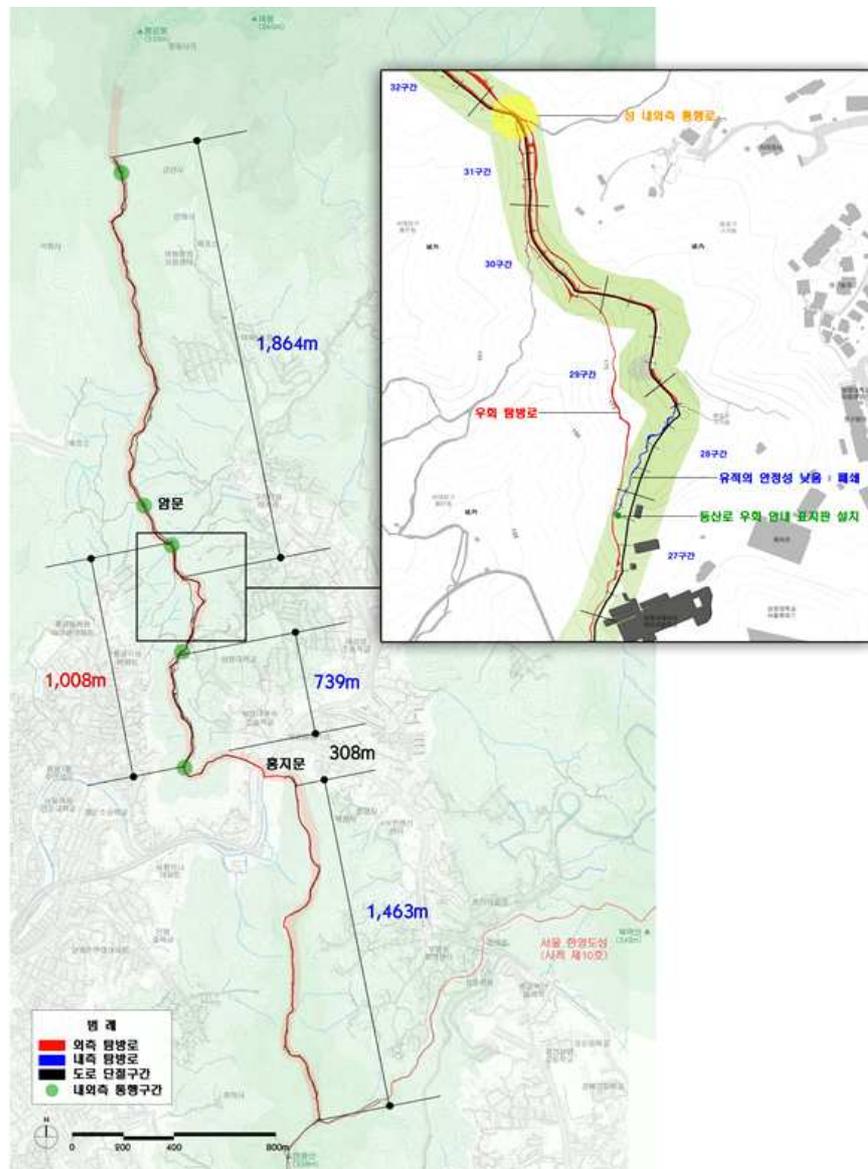
- 도로(세검정로)로 인해 단절된 있는 구간은 인왕산 측으로는 데크를 이용하여 통행로를 조성함으로써 홍지문 측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고, 길 건너 홍제천 옆으로 별도의 보행로를 조성하고 홍지문을 통과하여 서로 연결된다.
- 북한산 구간은 암문(暗門)이 있는 지점부터 향로봉까지 북한산 등산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탐방로등급제<sup>1)</sup>에 따라 보통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탕춘대성 암문에서부터 향로봉까지 약 1.9km의 거리만큼 성벽을 따라 성 내측에 있다. 암문에서 남측으로 상명대 구간까지는 상명대 구간에서 폭 50cm 정도의 오솔길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등산로가 나 있는 상태이다.
- 탕춘대성의 탐방로는 이미 탕춘대성을 따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탐방로는 탐방객에 의한 세굴(洗掘)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목 뿌리가 드러난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의 정비 방법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탐방로 주변부 훼손 등 본래의 지형이 변형된 지역은 원지형 복구 및 지반안정이 필요한 부분에 원래 지반선 30cm 이하까지 잡석 채우기를 하고, 그 위로 왕모래+잔자갈 채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탐방로 또는 그 주변부 토사유실로 수목 뿌리가 노출된 경우 상부에 식생을 복원하여 수목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경화된 지반은 연화처리하고, 노출된 뿌리는 지형복구를 고려한 보호공을 설치한다. 보호시설은 탐방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말뚝시공 시 뿌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 여름철 수목이 울창하여 탐방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탐방로 주변의 수풀을 장마철 전후에 수목정비 시 좀 더 집중하여 제거한다.
- 홍지문 북측 사유지가 인접하여 건축물이 들어선 구간에 대해서는 단기로는 외측으로 탐방로를 계획하여 연속해서 탐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오간수문을 넘어가 성 내측으로 탐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성벽과 등산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통과하는 지점이 탕춘대성임을 알리고 이로써 좀 더 주의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객에 의한 훼손을 방지한다.
- 탐방이 시작되는 기점에 탕춘대성 탐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좀 더 쉽게 탐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잔존하는 성벽을 통과하는 탐방로는 현재 차단 목책, 취병 등 차단시설을 세워 진입을 막는 형태로 계획하도록 하며 성곽이 있다는 간단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성곽을 인지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또는 새롭게 설

1) 탐방로등급제란 탐방로를 경사도, 거리, 노면상태, 소요시간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탐방객 자신의 신체조건과 체력에 적합한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탐방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치된 시설은 성벽을 볼 수 있는 투명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차단하고 유리 위에 무채색의 튀지 않는 색상을 이용하여 안내문을 기재한다.

## (2) 우회 탐방로 정비

- 현재 탕춘대성의 성벽은 기단석 하부 지반침하, 뒤채움부 유실, 등산객에 의한 훼손 등으로 인해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낮아져 있으나, 탐방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에 인접한 탐방로로 통행하고 있다.
- 성벽 구조가 불안정한 구간을 지나는 탐방로의 경우 유적 보존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성벽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우회탐방로를 정비한다. 우회 탐방로 조성 시 경사가 가파른 구간은 일부 절토하여 탐방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절토로 인해 생기는 사면은 식생토낭을 이용하여 보강하도록 하여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벽에 인접한 탐방로와 우회 탐방로가 갈리지는 분기점에 우회탐방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을 안전하게 우회하여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6) 안내시설 정비

### (1) 기존 안내시설 현황

- 기존 탕춘대성에 대한 안내판은 총 2개가 설치되어 있다. 홍지문 내측에 유적 전체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고 철제 프레임 내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 다른 한 곳은 북한산구간 내 암문 외측으로 '탕춘대성의 유래'라는 제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홍지문 내측에 있는 안내판과는 달리 목재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안내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하였다.
- 그 외 종로구에서 설치한 탕춘대성 상층부의 등산로 이용 자제 알림판, 인왕산 등산로 안내판이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암문 내측에 암문 사진 촬영 지점을 표시한 포토 포인트 안내판,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 및 방향 안내판, 금지 안내판, 위험 구간 출입제한 안내판이 있다.
- 탕춘대성을 설명하는 안내표지판 홍지문과 암문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4.8km에 달하는 유적의 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설치된 2개의 유적안내판은 서로 설치한 주체, 디자인, 소재, 내용도 달라 탐방객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므로 통일된 유적안내판이 필요하다.

### (2) 안내판 관리 및 개선 정비

- 탕춘대성을 설명하는 안내표지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입지상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안내 및 방향 표지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 탕춘대성의 종합안내판 및 유적 설명판이 필요하고, 성벽 훼손구간 및 우회 탐방로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 주변 연계 유적인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의 상위 계획과 동일한 재질(강화유리, 철제 등)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탕춘대성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픽토그램 등 유적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디자인 기획 개발하여 탐방객에게 탕춘대성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에 삽입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한다.

## 9. 종합의견

- 본 건은 탕춘대성(蕩春臺城)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탕춘대성(1715년~1754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기존 도성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한양도성과 피난성으로 구축한 북한산성 그리고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연결성, 총3개의 성곽이 연결됨으로서 전쟁 시 기능을 원활히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선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 축성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산성 축조 이후 바로 이어서 같은 축조 담당 기관인 총융청이 쌓아 북산산성과 탕춘대성은 유사한 축조방식을 보인다.
- 축성 방법은 전통의 산성축조방식에 따라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는데, 능선의 외벽 면을 이용하여 축조함으로써 산탁(山托)형식을 택하여 편축성(片築城)으로 축조하였다.

또한 숙종 대에 수축한 도성의 축성형식과 북한산성의 성곽축조에 사용된 성돌 형태인 정방형에 가까운 성돌을 사용하여 규격화하고,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려고 한 탕춘대성의 축성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의 축성형식은 북한산성의 축성에 적용하였던 방식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구간의 성벽은 지반이 낮거나 계곡지역은 높게 축조하고, 지반이 높고 암반이나 성 바깥이 급경사진 곳은 낮게 축조하였다.

일부 암반이나 급경사 지역은 성을 쌓은 것과 진배없는 경우에는 여장만 축조하였다.

- 체성(體城)은 인왕산 지역의 일부 토성과 나머지 구간의 석성, 융기된 암반 지대의 자연 암반을 이용한 자연지세(自然地勢) 활용구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토성은 인왕산 지역에만 보이는데 능선을 따라 능선 정상을 따라 토루(土壘)를 조성하였다. 토성은 상단폭을 2~3m 내외로 일정하게 조성하고 자연 지세를 잘 이용하여 주변의 토사를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 그리고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의 역할도 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하는 배후 성이다.
  - 탕춘대성 내에는 50여 칸의 창고가 있었는데, 상창(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 선혜청의 창고도 만들었다. 이후 상창과 중창은 경리청의 창고로 합쳐서 평창이라고 했으며, 하창이 선혜청 창고로 이곳에 막대한 군량을 보관하였다가 전시에 한양도성이나 북한산성에 공급하였다.
- 또한 탕춘대성은 대부분 구간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유적의 잔존상태가 좋아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
- 따라서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3성이 하나의 방어 성곽으로서 기능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가지며,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산 능선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토석, 석성으로 합리적으로 축조한 점, 이와 관련 시설인 창고시설과 다양한 유적들이 잘 남아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지번을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하고 합리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12차 위원회('23.12.13.) 보류 : 현지조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24년 1차 위원회('24.01.10.) 원안가결
- 예고결과
  - 예 고 일 : 2024. 02. 01.(문화재청 공고 제2024-49호)
  -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접수의견 : 10건(중복 1건)
    - ▶ (추가 지정)
      - 탑동 610-5, 612-2, 산3번지(임)는 가족선산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정 이후 이장절차나 묘지활용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추가 지정 반대
    - ▶ (일부 해제)
      - 배반동 산54-2, 산54-3번지도 해제지역인 내남면 노곡리 산146, 내남면 용장리 산106-16과 유사한 조건으로 해제 요구
      - 내남면 용장리 357, 358, 359번지에는 주택용 건축물과 누에잠실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유산 가치가 크게 상실되었으므로 해제 요구
      - 배동 158번지, 배동 160-2번지 바로 옆 150-3번지는 이미 해제되어 대지로 활용되고 있음으로 형평성을 고려 해당 지역 해제 요구
      - 배동 147-1, 148-1번지 해제 요구, 불가할 시 조속한 시일 내 매수 요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일원
- (3) 신청내용
  - 지번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 : 85필지(31,045㎡)

| 구분     |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
|--------|------|---------|---------|-------------|
| 누락필지추가 | 6    | 12,169  | 11,975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등록추가   | 15   | (216)   | (2,427)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분할추가   | 47   | 309     | 309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신규등록   | 3    | 3,850   | 3,850   |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
| 제외     | (4)  | (1,734) | (1,734) |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
| 합병말소   | (10) | 0       | 0       |             |
| 면적상이   |      | 10,829  | 9,481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면적정정   |      | (6,071) | (1,269)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 지번 현행화 포함

| 구분    | 기존 지정면적 |            | 금회 신청 면적 |         |      |         | 조정 후 면적* |            |
|-------|---------|------------|----------|---------|------|---------|----------|------------|
|       |         |            | 추가 지정 면적 |         | 해제면적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계     | 2,314   | 25,439,329 | 68       | 542,866 | 516  | 956,499 | 1,936    | 25,084,568 |
| 문화재구역 | 2,314   | 25,439,329 | 68       | 542,866 | 516  | 956,499 | 1,936    | 25,084,568 |

(4) 조정 사유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05./문화재위원 ○○○, ○○○, ○○○)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해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12.5.(화)     | 대상문화재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           |
| 조사자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                 | 직위(직책)    |
|  | ○○○               | 건축학                          | ○○대학교              | 교수        |
|  | ○○○               | 한국사                          | ○○대학교              | 교수        |
|  | ○○○               | 고고학                          | 前 ○○○○문화재연구소       | 소장        |
| 주요 지정(해제)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사적                           |                    |           |
|  | 문화재 명칭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보호물>  |                   |                              |                    |           |
| <보호구역>   |                   |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12월 5일</p> |                   |                              |                    |           |
| 제출자  |                   |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재위원                        | ○○○                | (서명 또는 인)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12. 05.(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남산 일원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장소다. 경주 남산은 경주시의 남쪽에 솟아오른 산으로, 금오산(金鰲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쪽에 위치한 금오산과 북쪽에 위치한 고위산(高位山) 사이를 연결하는 산과 계곡 일대를 남산이라고 통칭한다. 금오산의 높이는 466m이고, 고위산의 높이는 495m이다. 남북의 길이는 약 8km, 동서의 너비는 약 4km이다. 지형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 남산은 산등성이 대부분은 화강암의 암반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화강암 풍화토(일명 마사토)로 되어 있다.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구분되는데, 동남산 방향은 경사가 급하고 사면의 길이가 짧은 반면, 서남산 방향은 동남산 방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사면의 길이가 길다. 동남산과 서남산에는 제각기 16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도 2개의 계곡이 있어 남산에는 모두 34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 경주 남산 일원은 마치 불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가 신라에서 크게 융성하면서 남산일대는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조각이 곳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 유물과 유적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산을 경배하는 숭산신앙(崇山信仰)과 암석을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는 암석신앙(巖石信仰)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 『삼국유사』에는 남산에서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성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까닭에 남산에 얽힌 전설이 많은 편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남산 기슭의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남산의 산신이 나타나 헌강왕에게 신라의 멸망을 경고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보물), 경주 포석정지(사적), 경주 남산신성(사적) 등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유산 465개(국가지정 25개, 시·도지정 15개, 비지정 425개)가 남산에 위치한다.

- 경주 남산 일원은 1985년 02년 23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 되어왔던 곳이다.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불교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들이 남아있어 신라문화의 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주 남산 일원 도시계획



경주 남산 일원 위성사진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의 오악 중 북악이자, 사령지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왔던 장소이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1280년경) 편찬된 『삼국유사』 권제1 경주시 남쪽에 위치한 남산(南山)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의 산이다.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봉(金鰲峰), 466m과 남쪽의 고위봉(高位峰), 494m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과 계곡 전체를 남산이라 한다. 금오산(金鰲山)은 산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금 거북이(또는 자라)가 엎드린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라의 사령지(四靈地)로 4곳의 영험한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강 왕대에는 남산의 산신(山神)이 나타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다는 전설도 있다. 이는 남산이 그만큼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진평왕대에 남산신성(南山新城)이나 고허성(高墟城)과 같은 산성을 쌓은 것을 보면 방어 요충지 역할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가의 큰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자 왕족 또는 귀족들이 다녀가는 일상적인 공간 그리고 종교 활동을 벌이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남산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을 비롯하여 나정(蘿井), 남산신성(南山新城), 포석정(鮑石亭)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흩어져 있다. 남산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남산에 소재한 여러 유적에 대

해서는 개인 연구자와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 또는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은 산성터(山城址) 4개소, 절터(寺址) 150곳, 석불(石佛) 129구, 석탑(石塔) 99기, 석등(石燈) 22기 등으로 다양하다.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 5.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근거기준

### □ 조정 필요성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 기존 문화재구역 내 자연마을 및 주거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현실 반영 필요

### □ 조정 기준

\* 조정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구분

#### ○ 추가 지정 기준

- 발굴조사 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1구역, 도당토성)
- 정비목적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10구역, 열암곡 마애불 동쪽)
- 기존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4구역, 9구역)
  - 매장문화재 폐사지로 설정(4구역)   · 매장문화재 청동기유적(9구역)

#### ○ 해제 기준

- 기존 마을 및 마을 인근 전, 답, 대지의 지목(2구역, 3구역, 5구역~8구역, 12구역)
  -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지역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구역, 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 주거지와 농경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인근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개별심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례(3구역)
  - 경관저해여부를 고려하여 제외
  -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는 곳을 참고하여 제외
- 남산 내 문화재(도지정,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가 없는 지역(11구역)
-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통일전(13구역) 및 화랑교육원(14구역))

## 6. 조정 대상 및 범위

###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 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지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해 해제 검토가 필요함

□ 기 고시 분할 및 합병 조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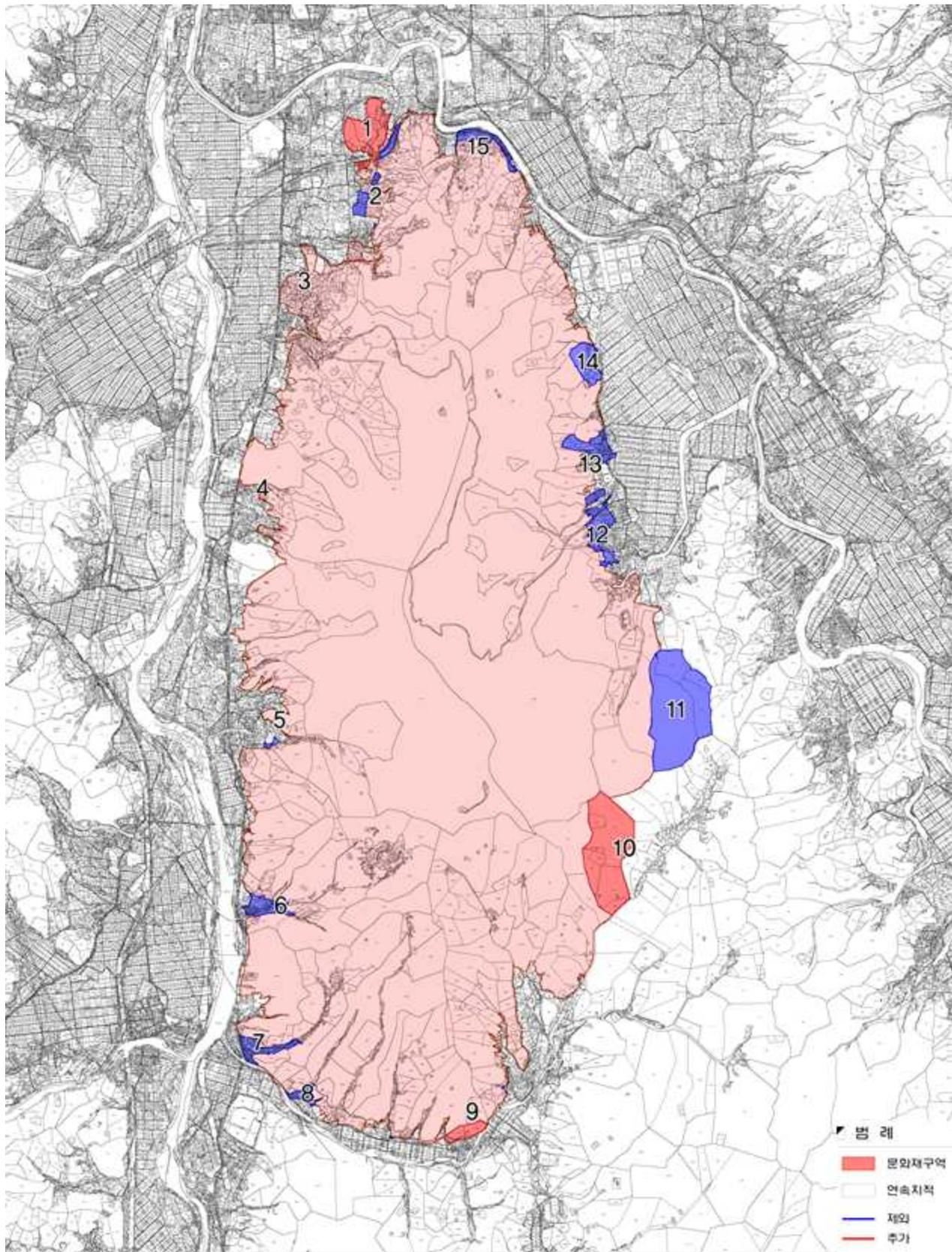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5-6번지 일원
- 신청 면적 : 85필지(31,045㎡)
- 신청 사유 : 既 고시에서의 누락필지, 등록·분할 추가, 신규 등록 등으로 정정 필요
- 신청내용

| 구분     |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
|--------|------|---------|---------|-------------|
| 누락필지추가 | 6    | 12,169  | 11,975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등록추가   | 15   | (216)   | (2,427)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분할추가   | 47   | 309     | 309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신규등록   | 3    | 3,850   | 3,850   |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
| 제외     | (4)  | (1,734) | (1,734) |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
| 합병말소   | (10) | 0       | 0       |             |
| 면적상이   |      | 10,829  | 9,481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면적정정   |      | (6,071) | (1,269) | 기고시 면적과 상이  |

□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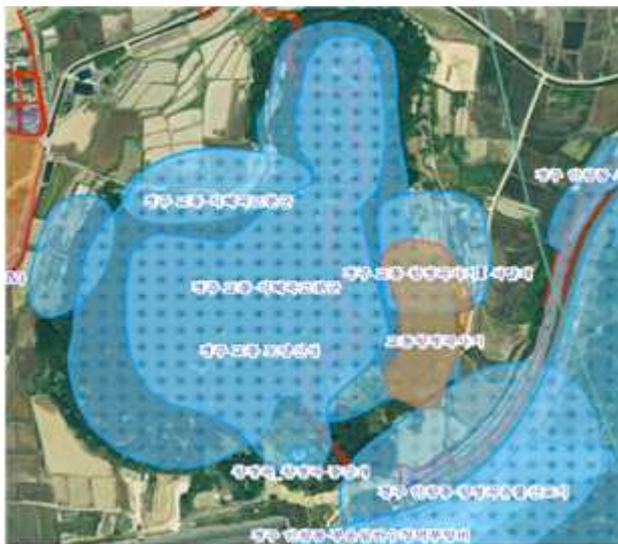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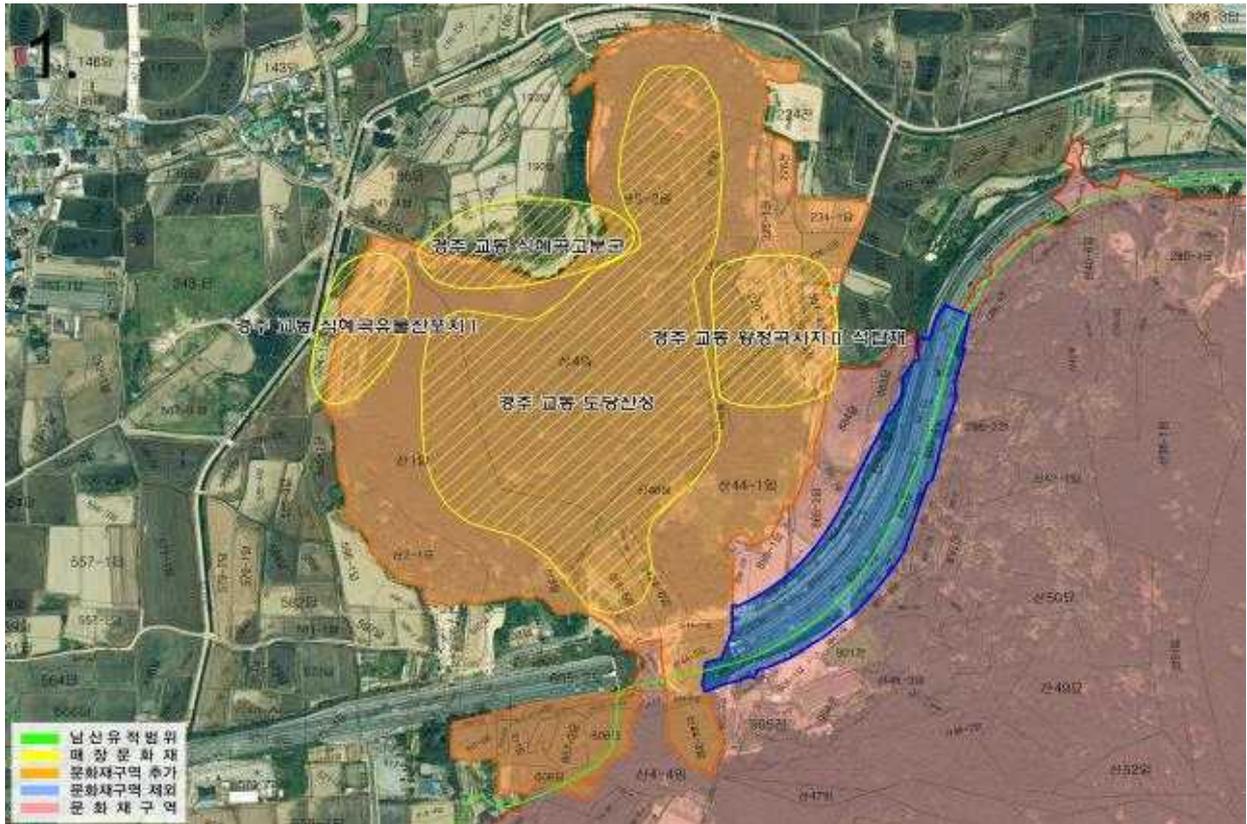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66 일원
- 신청 면적 : 68필지(542,866㎡)
- 신청 사유 : 발굴 및 정비 등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신청 내용

| 소재지     | 추가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
|---------|--------|---------|---------|----|
| 교동      | 10     | 77,694  | 77,694  |    |
| 내남면 노곡리 | 15     | 381,816 | 381,816 |    |
| 배동      | 3      | 8,221   | 8,221   |    |
| 인왕동     | 11     | 28,139  | 28,139  |    |
| 탑동      | 29     | 46,996  | 46,996  |    |
| 합계      | 68     | 542,866 | 542,866 |    |



## ■ 1구역\_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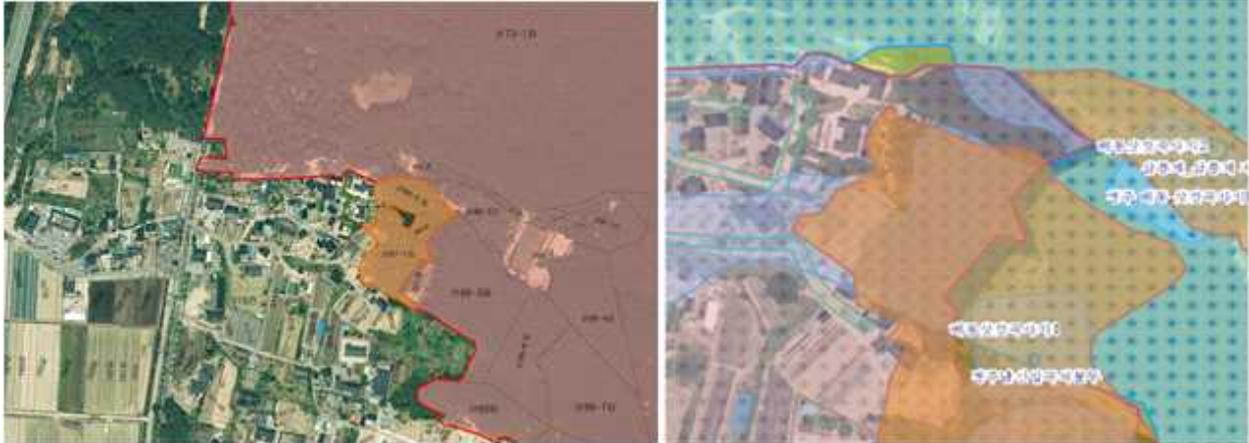
도당산 토성으로 일컫는 곳으로 2000년, 2013년, 2015년에 성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3세기 중엽~6세기 말 축조된 토성임이 밝혀진 성이다. 남산과 함께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은 곳으로 신라 왕성에서 조망할 때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도당산 토성 모습

■ 4구역\_추가 지정

삼릉과 경주 경애왕릉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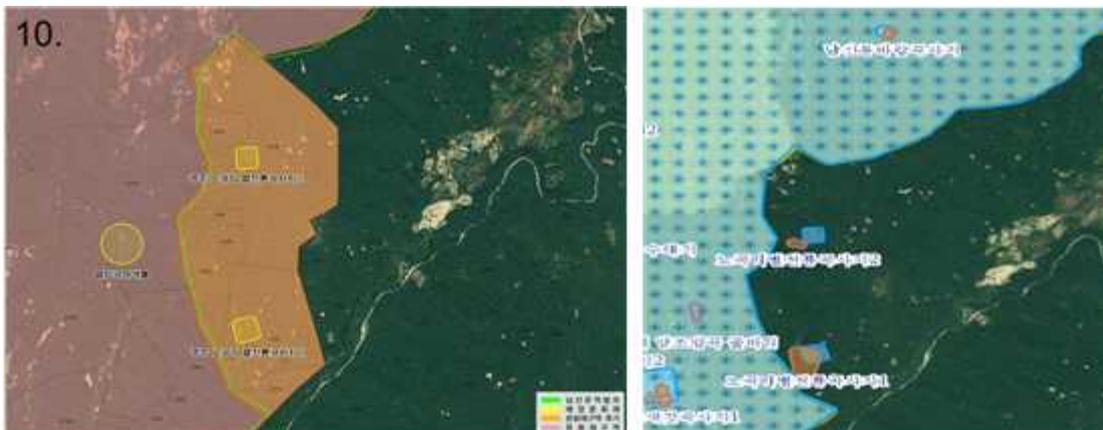
■ 9구역\_추가 지정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기존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0구역\_추가 지정

천룡사지 아래에 위치한 노곡리 별천룡곡사지1,2 유물산포지로 기존 남산 일원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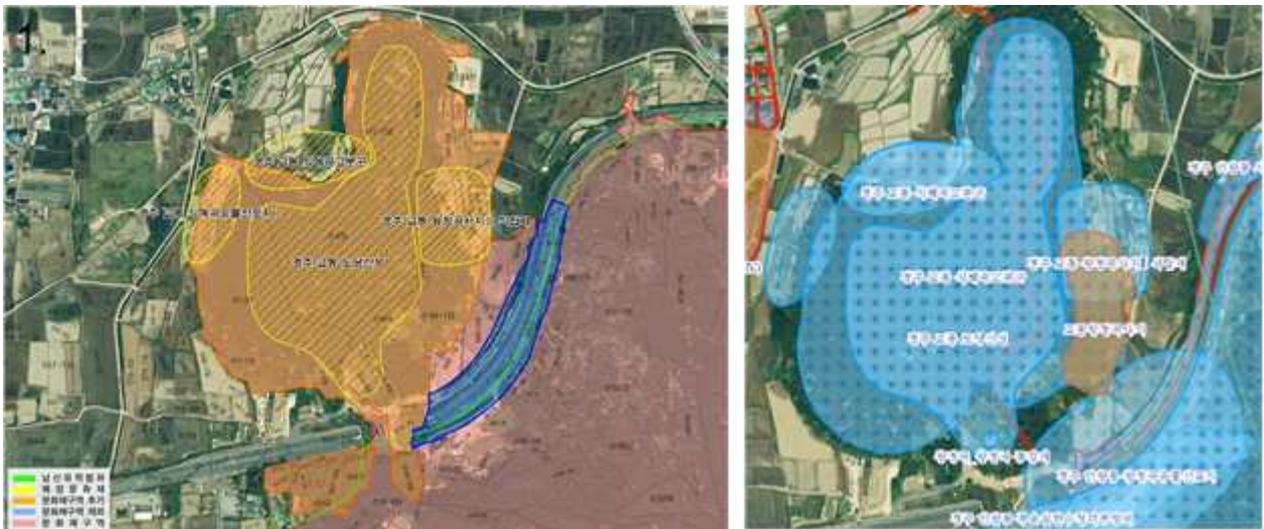
□ 해제 대상 및 범위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35 일원
- 신청 면적 : 516필지(956,499m<sup>2</sup>)
- 신청 사유 :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 신청내용

| 구분    |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
|-------|-----|---------|---------|----|
| 전체 해제 | 503 | 867,548 | 857,945 |    |
| 일부 해제 | 13  | 165,522 | 98,554  |    |
| 합계    | 516 | 959,577 | 956,4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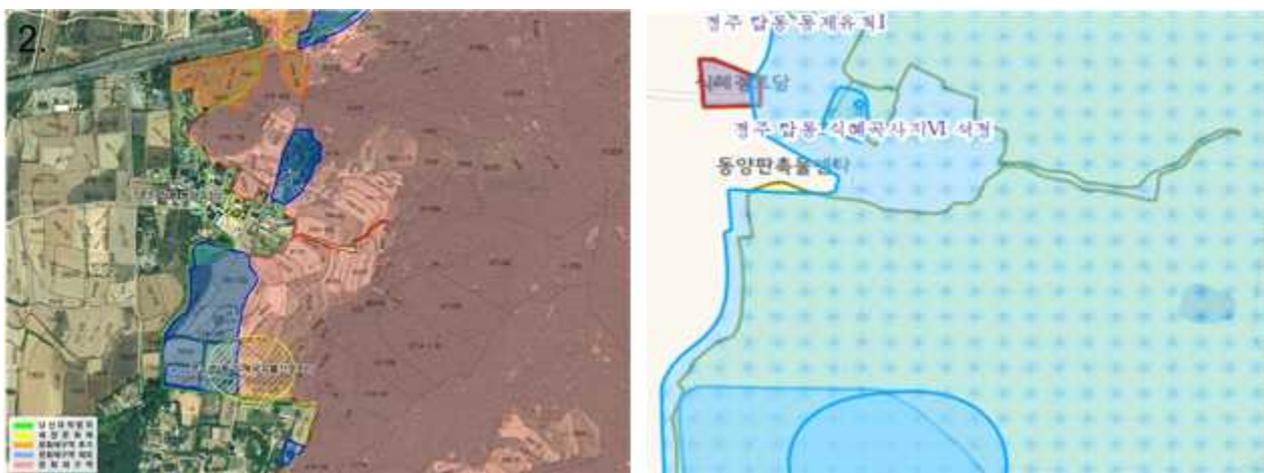
■ 1구역\_해제

도당산 토성과 남산 사이의 도로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2구역\_해제

식혜골 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월암종택’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기존 마을과 농경지, 산지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지를 제외한 유적분포가 없는 기존마을, 답, 대의 지목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3구역\_해제 → 현행 유지

■ 5구역\_해제

용장골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임야를 제외한 시설물이 설치된 전, 답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6구역\_해제

뜸수골에 위치하는 마을로써 기존 임야와 마을이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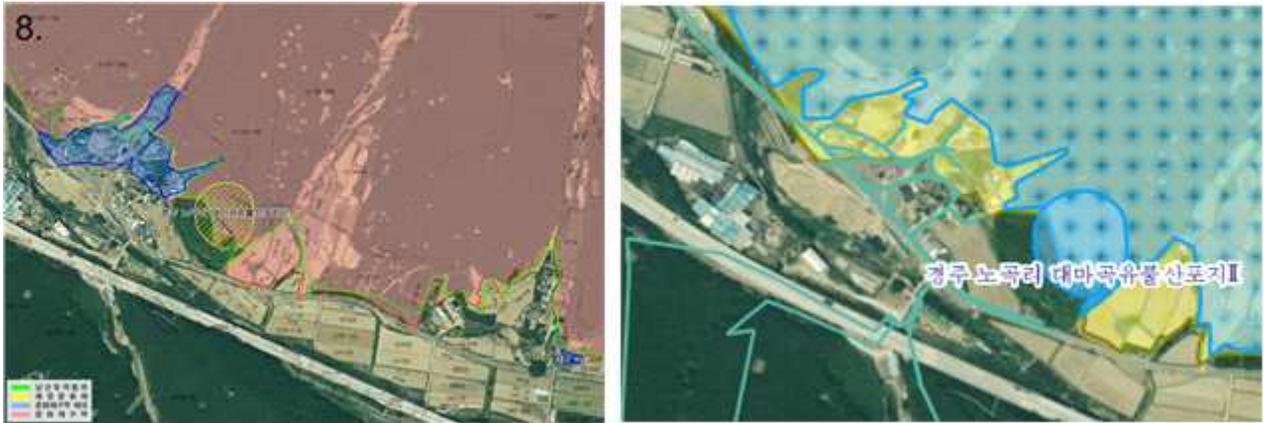
■ 7구역\_해제

기존 마을과 임야를 함께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8구역\_해제

남산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과 농경지로 임야를 제외한 대, 전, 답 등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1구역\_해제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얇은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2구역\_해제

염불사지 주변 지역으로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기존 마을과 농경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3구역\_해제

통일전이 위치한 곳으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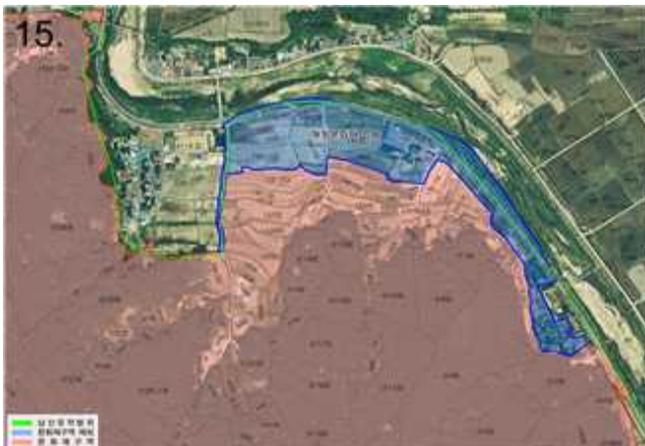
### ■ 14구역\_해제

화랑교육원이 위치한 곳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5구역

남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일부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구분    | 범례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1구역   |    | ○ 개별심의  |                                 |
| 2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2-1구역 |    |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br>(전통한옥에 한함) |
| 3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4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
| 5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
| 7구역   |    | ○ 별도 심의   |                                 |
| 공통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 지역은 남산으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남산의 경관을 최대한 살려 원형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길'의 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존 정비 및 활용 기본방향
  -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사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고증을 통한 문화유산의 원형 유지할 수 있는 복원·정비 방향 수립
  - 도심 인접 문화유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존, 정비, 활용 계획 수립
  - 홍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스마트 활용기반 구축

- 관리운영 방향
  -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안내 등을 통한 서비스 관리 강화
  - 분산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화재,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 9. 종합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지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된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신청 지역 세부적인 검토 내용
  - 1구역[도당토성] : 남산 일원에 포함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제의 경우 기 지정 문화재구역은 현상을 유지하고 도로부분만 해제하는 것을 검토 필요
  - 2구역[기존 마을과 전답(경주 월암종택)] :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고 전, 답 등은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기를 검토함. 임야에서 떨어진 전, 답은 해제는 별도로 검토 필요
  - 3구역[기존 마을과 전답(창림사지 삼층석탑)] : 창림사지는 계단상으로 조성된 사찰로서 열린 조망권이 중요하므로 문화재구역 유지 필요
  - 4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삼릉, 경애왕릉)] : 유적 보존 가능성이 높은 임야이므로 추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필요
  - 5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전, 답] : 문화재구역에 면한 전, 답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건조물 구역만 해제 검토 필요
  - 6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마을 구역은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는 문화재구역 유지 검토 필요
  - 7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구역은 문화재구역 해제 검토 필요
  - 8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전, 답] : 마을에서 떨어진 남동측 지역(780전)과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지역은 문화재구역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에 접하는 전, 답은 문화재구역(797답 이상) 유지 검토 필요

- 9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필요
- 10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별천통곡사지의 유물 산포지와 그 주변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은 필요하나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11구역[문화재 분포가 없음] :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검토 필요
- 12구역[문화재와 기존마을] : 주택 등 건조물이 조성된 구역은 문화재구역의 해제를 고려하나, 원지형이 살아있는 전, 답 대부분은 문화재구역으로 유지 검토 필요
- 13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통일전)] : 통일전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4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화랑교육원)] : 화랑교육원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5구역[기존 마을과 전답] : 남산에 접해 있는 구역은 열린 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을 유지하며, 남산 아래 자락의 도로와 인접한 부분은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3. 청주 상당산성 내 유희부지 활용 및 기반시설 정비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상당산성」 내 유희부지 활용 및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 배수로 정비 및 사적에 맞는 전통 수종으로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 1970.10.01. 지정)
  - 소재지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로 124번길 14일원
- (3) 신청내용<유희부지 활용 및 기반시설 정비>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7번지 일원 및 9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27,000㎡
    - 사업내용

|        | (1) 107번지 일원                                     |   | (2) 92번지 일원                            |   |
|--------|--|---|--|---|
| 배수공    | 토사배수로<br>집수정<br>PE이중벽관 부설<br>THP유공관 설치<br>자연석배수로 | L=74m(400×400)<br>13개소(600×600)<br>L=105m(D300mm)<br>L=383m(D300mm)<br>L=63m(600×400) | 자연석배수로<br>토사배수로<br>PE이중벽관 부설<br>집수정 설치 | L=110m(600×400)<br>L=290m(400×400)<br>L=114m(D300mm)<br>11개소(600×600)             |
| 탐방로 조성 | 잡목제거<br>원두막 설치                                   | A=791㎡<br>4개소   | 야자매트길<br>맨발걷기 황토길<br>족욕장<br>벤치<br>신발장  | A=675㎡(B=1.5m)<br>A=525㎡(B=1.5m)<br>A=40㎡(800×400)<br>10개소(D300mm)<br>1개소(D300mm) |

|          |     | (1) 107번지 일원                              |  | (2) 92번지 일원   |  |
|----------|-----|---|--|---|--|
| 식재<br>조성 | 다년초 | 꽃창포<br>노랑꽃창포<br>벌개미취<br>부처꽃<br>붓꽃<br>수국   | 3,200본 36본/m <sup>2</sup><br>4,200본 36본/m <sup>2</sup><br>13,500본 36본/m <sup>2</sup><br>10,500본 49본/m <sup>2</sup><br>13,000본 49본/m <sup>2</sup><br>39,700본 49본/m <sup>2</sup> | 벌개미취<br>붓꽃<br>국화<br>옥잠화<br>원추리<br>꽃무릇<br>금낭화<br>수선화<br>각시붓꽃<br>수련 | 27,000본 36본/m <sup>2</sup><br>5,782본 49본/m <sup>2</sup><br>23,680본 16본/m <sup>2</sup><br>4,880본 16본/m <sup>2</sup><br>7,889본 49본/m <sup>2</sup><br>8,134본 49본/m <sup>2</sup><br>4,508본 49본/m <sup>2</sup><br>5,390본 49본/m <sup>2</sup><br>8,820본 49본/m <sup>2</sup><br>1,274본 49본/m <sup>2</sup> |
|          | 일년초 | 속근꽃향유<br>백리향<br>목화<br>애기말발도리<br>배조향<br>작약 | 9,400본 36본/m <sup>2</sup><br>19,000본 49본/m <sup>2</sup><br>37,600본 49본/m <sup>2</sup><br>2,600본 16본/m <sup>2</sup><br>5,040본 36본/m <sup>2</sup><br>12,400본 36본/m <sup>2</sup>  | -   | -  |
|          | 파종  | 코스모스<br>금계국<br>테이지                        | 1,750m <sup>2</sup><br>347m <sup>2</sup><br>404m <sup>2</sup>  | -   | -  |

※ 일년초는 식재 시기에 생육이 가장 좋은 수종으로 선정

※ 족욕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원두막 등으로 조정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 4. 관문성 내외 국도(울산~경주) 개설 및 확장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관문성」 내외 국도(울산~경주) 개설 및 확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관문성 내외 국도(울산~경주) 개설 및 확장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차 위원회('23.09.13.)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일원
- (3) 신청내용<국도(울산~경주) 개설 및 확장>
  - ①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구간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374-1번지 일원(95필지)(문화재구역, 1~2구역)
    - 사업내용(※ 기존도로 : 7.5~10m)
      - 사업면적 : A=11,020m<sup>2</sup>
      - 사업규모 : L=541.8m, B=19.5~25m(기존도로폭 : 7.5~10m)
      - 토목공사
        - 토 공 : 흙깎기 998m<sup>3</sup>(H=0.05~2.8m), 흙쌓기 74,270m<sup>3</sup>(H=0.3~8.6m)
        - 우 수 공 : L형측구=1,310m, V형측구=1,410m, 횡배수관(D1000, L=75m), 통로암거 1개소/25.0m
        - 구조물공 : 교량신설 B=19.5m, L=50m
        - 포 장 공 : ASP절삭 A=956m<sup>2</sup>, ASP포장 A=14,739m<sup>2</sup>

② 경주 외동 녹동~문산 구간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910번지 일원(82필지)(문화재구역, 1~3구역)

○ 사업내용(※ 기존도로 : 7.5~10m)

- 사업면적 : A=10,725m<sup>2</sup>

- 사업규모 : L=550m, B=19.5~25m(기존 도로폭 :7.5~10m)

- 토목공사

· 토 공 : 흙깎기 17,013m<sup>3</sup>(H=0.3~0.9m), 흙쌓기 8,790m<sup>3</sup>(H=0.8~2.8m)

· 우 수 공 : 우수관로(D600) L=300m, L형측구=1,100m, 횡배수관(D1000, L=25m) 2개소, 수로암거 2개소

· 포 장 공 : ASP포장 A=9,625m<sup>2</sup>

| 구분     | 기존노선('23.9.부결)                        | 검토1안  | 검토2안   |
|--------|---------------------------------------|---|--|
| 노선개요   | • 문화재 통과구간4차로 신설노선(절토)                | • 문화재 통과구간4차로 확장노선(성토)                                    | • 문화재 통과구간2차로 분리노선   |
| 교차로 형식 | • 관문성 교차로 신설<br>• 기존국도(위험도로 개량) 접속 원활 | • 관문성 교차로 신설<br>• 기존국도(위험도로 개량) 개량 필요                     | • 관문성 교차로 신설 곤란<br>→ 입체교차로 설치 필요   |
| 특징     | 기술적 측면                                | • 문화재구역 전구간 성토 통과<br>→ 문화재 지정구역(관문성) 0.4m이상 성토 : 포장층 고려   | • 기존국도(하행선) 평면 및 종단 개량<br>→ 평면곡선반경 : R=90 ⇒ 140m<br>→ 종단곡선길이 : L=40 ⇒ 100m |
|        | 사회적 측면                                | • 문화재지정구역 지형 및 지질의 변경 발생<br>→ 편입면적 : 58,882m <sup>2</sup> | • 문화재지정구역 지형 및 지질의 변경 발생<br>→ 편입면적 : 58,983m <sup>2</sup>                  |
|        | 경제적 측면                                | • 4차로 신설로 인한 공사비 증가<br>→ 기존국도 접속도로 활용                     | • 4차로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보통<br>→ 기존 국도 일부준용 및 확장                                  |
|        | 환경적 측면                                | • 신설노선의 깎기 통과로 문화재구역의 지형 형질 보전 불리                         | • 신설노선의 쌓기 통과로 문화재구역의 지형 형질 보전 유리  |
|        |                                       | • 2차로 신설로 인한 공사비 최소<br>→ 기존 국도를 상행선으로 활용                  | • 신설노선의 쌓기 통과로 문화재구역의 지형 형질 보전 유리  |

(4) 신청인 의견

○ 본 과업 국도14호선 울산~경주간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함에 따라 대형차량 비율이 높아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기존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2.29./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산 관문성 지정구역을 통과하는 산업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문화재구역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 도로 폭, 높이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결과를 반영한 노선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 5. 나주목 관아와 향교 보호구역 내 총복사 추정터 정비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 보호구역 내 총복사 추정터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보호구역 내 총복사 추정터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총복사 추정터 정비>
  - 위치 : 전남 나주시 교동 56번지 등 3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면적 730m<sup>2</sup>, 추모마당 및 담소마당 조성
    - (추모마당) 돌계단 설치, 마사토 포장
    - (담소마당) 수목 제거 및 식재(일부 이식), 화단·벤치·배수시설 설치, 황토경화포장 및 잔디식재 등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 6. 서울 한양도성 주변 양동구역 제4-2·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주변 양동구역 제4-2·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양동구역 제4-2·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 (3) 신청내용<양동구역 제4-2·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사업내용

| 구분   | 업무시설                              | 판매시설<br>(아트리움)         | 숙박시설                   |                          | 공공시설<br>(공공청사)         | 개방형<br>녹지 | 공개<br>공지 |
|------|-----------------------------------|------------------------|------------------------|--------------------------|------------------------|-----------|----------|
|      |                                   |                        | 호텔포디움                  | 호텔                       |                        |           |          |
| 대지면적 | 20,350.7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7,782.20㎡) |                        |                        |                          |                        |           |          |
| 건축면적 | 9,473.85㎡                         |                        |                        |                          | 834.87㎡                |           |          |
| 연면적  | 264,348.33㎡                       | 18,570.77㎡             | 58,972.66㎡             |                          | 10,002.50㎡             | 7,385㎡    | 5,689㎡   |
| 규모   | 평지붕,<br>지하10층,<br>지상33층           | 평지붕,<br>지하10층,<br>지상3층 | 평지붕,<br>지하10층,<br>지상8층 | 평지붕,<br>지하10층,<br>지상39층  | 평지붕,<br>지하4층,<br>지상8층  |           |          |
| 최고높이 | 165.20m<br>(EL +223.20m)          | 15.80m<br>(EL +73.8m)  | 40.60m<br>(EL +98.60m) | 166.93m<br>(EL +224.93m) | 40.71m<br>(EL +90.60m) |           |          |
| 지하층  | 지표면 가중평균 높이에서 지하 43.1m            |                        |                        |                          | 25.8m                  |           |          |

- 외부공간 조경
  - 팽나무, 청단풍, 왕벚나무, 계수나무 등 교목 587주 식재
  -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 상록교목 191주 식재
  - 산철쭉, 산수국, 마가목, 조팝나무 등 관목 6,750주 식재 등
- 시설물 및 포장 : 한양도성과 연결되는 도입로 포장(인조화강석블록) 등

## 라. 참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구 영향검토 의견('24.02.01./○○○, ○○○, ○○○)

- 지상 39층(건물높이 166.93m) 건물로 한양도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해당사업은 39층에 최고 높이 166.93m 초대형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 한양도성의 경관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본 건물은 지상 39층의 대형 구조물로서 남산의 경관 및 한양도성의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24.03.07./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한양도성'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6.7m 이격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외에 최고높이 166.93m, 지상 39층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층의 건물은 100m 밖에 지어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는 조경과 양각 27°를 준수하여 건물이 지어지므로 특별하게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와 연계되는 동선계획, 조경계획, 옥상전경 등의 완충계획 등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조경, 외부공간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 7.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
- (3) 신청내용<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풍납토성 관리구역(IV권역))  
(문화재구역과 연접/허용기준 미수립)
  - 사업내용 : 공동주택 8동, 상가건물 등 부대시설 3동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지면적  | 17,379.00㎡  | 사업구역 19,505.00㎡                       |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건축면적  | 3,472㎡  | 지하는 주차시설로 연결                          |
| 건폐율   | 19.98%  | 법정 건폐율 60%                            |
| 연면적   | 66,822.93㎡(지상 42,322.38㎡)                             |                                       |
| 용적률   | 243.53%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0%<br>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법정 250% |
| 규모    | ○ 공동주택 : (지상) 6층~29층,<br>(지하) 3층~2층<br>○ 부대시설 : 지상 1층 | 최고높이 92m 이하, 지하 13m 이내                |
| 총 세대수 | 400세대   | 275세대→400세대                           |

○ 참고자료

- 풍납미성아파트 현황 대비 계획

| 구분   | 현황            | 재건축계획            | 비고                          |
|------|---------------|------------------|-----------------------------|
| 준공년도 | 1985.06.17.   | -                |                             |
| 대지면적 | 19,505.0㎡     | 17,379.00㎡       | 사업구역 19,505.00㎡             |
| 세대수  | 275세대(4개동)    | 400세대(8개동)       |                             |
| 용적률  | 167%          | 243.53%          |                             |
| 층수   | 지하 1층/지상 11층  | 지하 2~3층/지상 6~29층 |                             |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기타사항 |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공동주택 7층이상 서울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대상 |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추진경과

- 1985. 06. : 풍납미성아파트 준공
- 2019. 06.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족
- 2021. 03.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2. :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6.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송파구 접수
- 2024. 02. : 풍납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송파구 영향검토(결과 : 영향있음)
- ※ 양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유존조사 필요 등
- 2024. 0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

라.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향검토 의견('24.02.08./○○○, ○○○, ○○○)

- 풍납토성 사적 지정구역에 근접한 곳으로 최고높이 9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매장문화재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사업지역에 인접한 문화재구역(I 권역 백제문화공원, II 권역 서성벽 추정 구간) 양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함
- 지하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매장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높음.  
서성벽 추정구간(풍납나들목 구역에서 서성벽 확인) 및 백제문화공원(1권역) 양각 적용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보류 14명

## 8. 청주 상당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상당산성」 주변에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 1970.10.01. 지정)
  - 소재지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로 124번길 14 일원
- (3) 신청내용<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80-1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002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96m<sup>2</sup>(주1동, 주2동 각 48m<sup>2</sup>)
    -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 최고높이 3.9m
    - 건축구조(지붕형태) : 경량 철골구조(평지붕)
    - 정화조 : 우수처리시설(3t)
    - 토목공사 : 흙쌓기(0.1~0.5m)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의견

- 사업 대상지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7m 이격되어 있으나 상당산성 남문이 바로 보이는 위치이며, 문화재 관리를 위한 관리소와 매점보다 지대가 높고 건축구조 또한 전통 양식이 아닌 철골구조이므로 문화재 경관에 저해할 우려가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 9.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사적 / 1988.09.03.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7-2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9-2, 180-1, 180-2(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916㎡
    - 건축면적/ 연면적 : 153.01㎡/ 328.75㎡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높이 9.8m, 전면도로 기준 11.8m)
    - 부지조성 : 보강토옹벽(높이 0.5~3.9m, 길이 22m), 역L형옹벽(높이 1~4m, 길이 79m), 배수로 및 포장 등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 10.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1차 위원회('24.01.10.)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방동 와요지(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5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24 1차 위원회   | 금회         | 비고 |
|------------|--------------|------------|----|
| 건축면적/설치면적  | 792㎡/ 502.8㎡ | 792㎡/ 431㎡ |    |
| 설치용량       | 109.2kW      | 93.6kW     |    |
| 건축물 높이     | 7.2m         | 좌 동        |    |
| 태양광 구조물 높이 | 1.83m        | 1.385m     |    |
| 설치 후 최고높이  | 7.78m        | 7.184m     |    |

#### (4) 신청인 의견

- 기존 건축물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2.06./문화재위원 ○○○)

- 문화재구역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설치하는 곳이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생각됨

(2) 서면검토의견('24.02.27./문화재위원 ○○○)

- 본 건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제시된 계획안에서 문화재 측 건물 지붕면의 태양광 시설이 문화재에서의 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된 건임
- 금번에 제시된 계획안에서는 문화재에서 인지되는 건물의 지붕면에 태양광 시설을 기존 안에 비하여 축소하여 설치한 계획안임.
- 제출된 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문화재 측에서 보이는 건물 지붕면의 태양광 시설은 경사면에 의한 시설물 지지대가 문화재 측에서 인지되어 문화재에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문화재 측의 지붕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 11.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사적 / 2001.04.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손곡동 27 외
- (3) 신청내용<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물천리 536-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전주 1기 설치(Ø400mm, H=16.5m)
- (4) 신청인 의견
  -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내방객과 인근 관광객의 5G 이동전화 통화품질불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양질의 5G통화품질을 제공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서면조사의견('24.02.15./문화재위원 ○○○)
  - 이동통신 중계기가 주민 및 문화재 관람객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시된 위치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인근에 야구장 시설 등이 있어 이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 12.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수목 벌채 후 조림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수목 벌채 후 조림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수목 벌채 후 조림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2년 8차 위원회('22.08.10.) 작물 재배를 위한 임야 개간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반남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등
- (3) 신청내용<수목 벌채 후 조림>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35번지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22년 8차-부결     | 금회 신청안   | 비고 |
|------|----------------|--|----|
| 사업내용 | 수목 벌채 후 밭으로 개간 | 수목 벌채 후 조림   |    |
|      | 옥수수·수단·호밀 등 재배 | 밤나무(H=1.0m), 대봉(H=1.0m),<br>대추나무(H=0.6~0.7m)<br>총 1,586주 식재,<br>작업로 개설(폭3m, 길이 250m) |    |
| 면적   | 18,645㎡        | 좌동   |    |

\* 벌채 : 리기다소나무 및 활엽수 1,634주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벌채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 13.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11차 위원회('22.11.09.)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 1990.10.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물 신축>
  - 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856-15{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m 이격 /6구역(타 문화재 허용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타 문화재 :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동 신축

| 구분       | '22년 11차-부결  | 금회 신청안                | 비고 |
|----------|--------------|-----------------------|----|
| 사업내용     | 주택 2동 신축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동 신축 |    |
| 건축면적/연면적 | 42㎡(1동당 21㎡) | 좌동                    |    |
| 최고높이     | 6.5m         | 좌동                    |    |
| 구조       | 판넬조립식        | 좌동                    |    |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의견
  - 신청대지는 동점문 밖 석당간(1구역) 및 나주읍성(6구역)에 해당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임
  - 신청 필지 인근 성북동 13-1, 13-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22.5.영해

문화유산연구원) 읍성의 외벽부와 내벽부 채움석이 확인되어, 성벽구간 일원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 예정이나 정확한 시기 미정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보류 14명

## 14.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50-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1m 이격/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74.0m<sup>2</sup>(사업부지 369.0m<sup>2</sup>, 도로 5.0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73.60m<sup>2</sup> / 147.20m<sup>2</sup>(주1동)

- 건축규모 : 지상2층 / 최고높이(8.8m)

- 건축구조(지붕형태) :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 - 박공지붕)

- 토목공사

· 토 공 : 흙쌓기(H=+0.7m) V=80.8m<sup>3</sup>, 흙깎기(H=-1.2m) V=55.3m<sup>3</sup>

· 구조물공 : L형옹벽(H=0~1.2m) L=40.42m

· 상수공 : 관정 2개소, 상수관(D20) L=12.0m

· 우수공 : 우수관(D100) L=56.8m, U형 트렌치(200×200×1,000), L=6.90m, 집수정(300×400) 4개소

· 오수공 : 오수합병정화조 3톤(15인용)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V=55.30m<sup>3</sup>

· 부대공 : 보차도경계석(H=0.2m) L=28.8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3-015

### 1.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봉업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성 봉업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2010년 4차 회의(2010.4.14.) 지정검토 결과 : 보류(발굴조사 확대 등 유구 성격 확인 후 재검토)
  - 2021년 4차 회의(2021.4.14.) 지정검토 결과 : 보류(중심사역 추가 발굴조사 등을 통해 고려시대 사지 및 진전사원으로서의 특성 및 근거 보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경기도기념물(2003.4.21.))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3번지 일원
- (3) 지정명칭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Bongeopsa Temple Site, Anseong)
- (4) 지정범위 : 106필지 66,274m<sup>2</sup>(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문화재구역 : 87필지, 47,504m<sup>2</sup>
  - 문화재보호구역 : 19필지, 18,770m<sup>2</sup>
- (5) 관리단체(안) : 경기도 안성시
- (6) 신청사유
  -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유일하게 고고학적으로 규명된 유적으로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구분된 다원체계로 구성됨. 그동안 사적지정을 위한 보완 사유인 고려시대 사지 및 진전사원으로서의 특성 및 근거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됨. 따라서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안성 봉업사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라. 참고사항

###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경기도 기념물 지정(2003.4.21.)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09.9.23.)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경기도→문화재청, 2009.9.3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2.4.)
- 201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2010.4.14.) : 보류(발굴조사 확대 등 유구 성격 확인 후 재검토)
- 2019년 제27차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11.14.)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2차)(경기도→문화재청, 2019.12.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2.18.)
- 202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2021.4.14.) : 보류(중심사역 추가 발굴조사 등을 통해 고려시대 사지 및 진전사원으로서의 특성 및 근거 보완 필요)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3차)(경기도→문화재청, 2023.12.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4.2.5.)

### ※ 발굴조사 현황

| 차수                         | 조사기간  | 면적                    | 주요유구                             | 주요유물  |
|----------------------------|---|-----------------------|----------------------------------|---|
| 1차<br>발굴조사                 | 1997.09.24. ~<br>1998.03.31                                   | 약 6,612㎡              | 건물지 21개소<br>및 부속시설               | 명문기와 ‘皆次’, ‘竹州’<br>중국산 자기, 나발편<br>청동제완, 철부, 철제환   |
| 2차<br>발굴조사                 | 2000.10.01. ~<br>2001.03.31                                   | 약 12,561㎡             | 적심<br>기단석렬                       | 명문기와 ‘華次寺’. 峻四年’(963)<br>‘乾德五年’(967),<br>인동당초문 암막새, 인화문병편<br>청자접시, 청자잔<br>은제도금 단추형장식<br>‘主女光’명 벼루 |
| 3차<br>발굴조사<br>(3층석탑<br>일대) | 2004.03.10. ~<br>2004.09.30                                   | 약 4,529㎡              | 죽산리 3층석탑<br>건물지<br>부석유구,<br>범종유구 | 명문기와<br>‘乾德’, ‘興國’, ‘丁丑’<br>납구슬   |
| 4차<br>발굴조사<br>(주변부지)       | 2018.11.15. ~<br>2018.11.29.,<br>2018.12.14. ~<br>2018.12.26. | 시굴 13,593㎡<br>발굴 160㎡ | 적심<br>석재다짐<br>중복유구               | 청자배개편, 기와편  |

| 차수                 | 조사기간  | 면적   | 주요유구                                 | 주요유물               |
|--------------------|---|--|--------------------------------------|--------------------|
| 5차<br>시굴 및<br>발굴조사 | 2022.09.07. ~<br>2022.09.21.,<br>2022.10.31. ~<br>2023.07.07. | 시굴 27,335m <sup>2</sup><br>발굴 11,553m <sup>2</sup> | 중심사역<br>중문지, 담장지<br>진전영역<br>건물지, 외담지 | 명문기와<br>차맷돌<br>청자편 |

**(2) 주요 학술대회**

- 봉업사 1000년 그리고 새로운 출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6)
- 고려 태조 진전사원 봉업사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경기도박물관, 2017)
- 안성 봉업사지의 활용과 보존(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한백문화재연구원, 2023)
- 개성 만월大學의 지평(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3)

**(3) 안성 봉업사지 및 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 (유적지 내)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1966.2.28.)
- (유적지 내)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죽산리 당간지주’(1979.9.3.)
- 보물 ‘봉업사명 청동북’(1973.12.31.)
- 보물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1989.4.10.)
- 보물 ‘봉업사명 청동향로’(2004.8.31.)
-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1978.11.10.)
-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1980.6.2.)

**(4) 현지조사의견('24.02.05./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안성 봉업사지의 사적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추정되는 구역, 사역의 전반적인 범위가 확인되며, 유물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아직 발굴 미완료 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발굴 성과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정리가 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자 | 2024.2.05 (월) | 대상 문화재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        |
| 조사자  | 성명            | 전공분야   | 소속               | 직위(직책) |
|      | ○○○           | 건축     | ○○대학교            | 교수     |
|      | ○○○           | 고고학    | ○○대학교            | 교수     |
|      | ○○○           | 고고학    | ○○대학교            | 교수     |
|      | ○○○           | 건축사    | ○○대학교            | 교수     |
|      | ○○○           | 건축사    | 문화재위원회           | 전문위원   |

|             |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①문화재 종별            | 사적                             |
|             | ②문화재 명칭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
|             |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④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보호물 >     |                    |                                |
| < 보호구역 >    |                    |                                |
| 보호관리 사항 검토  |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05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장 귀하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02.05.(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 ○○○, 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경기도기념물 제189호(2003년 4월 21일)인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사찰명은 유물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봉업사지이며, 지역명+유적명을 고려할 때,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봉업사지는 동경 127°25' 56" ~ 127°26' 02", 북위 37°04' 32" ~ 37°04' 35"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2번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한다. 안성시는 조선시대 안성과 죽산이 합쳐진 곳으로 원래 죽산은 삼국시대부터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다. 안성과 죽산이 구분되었던 것은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안성과 죽산 사이에는 칠현산(516m)에서 시작된 한남정맥이 북서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그 서쪽은 안성천 유역의 안성, 그 동쪽은 죽산천 유역의 죽산으로 구분되었다.
- 죽산 주변 산지는 전체적으로 해발 500m 미만의 남북방향 또는 북북서-북북동 방향의 저산성 산지가 우세하게 발달하였다. 남쪽부터 무이산-덕성산-칠현산-칠장산-국사봉-구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비교적 뚜렷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산줄기가 한남정맥으로도 불리는데 용인 광교산을 거쳐서 김포반도로 이어지면서 경기도를 해안지대와 내륙지대로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 봉업사지는 죽산천 북쪽의 비봉산 남동 사면 말단부에 입지한다. 죽산지역은 비봉산 주변으로 고리 형태의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 죽산현의 범위가 대체로 이것과 유사하며, 현재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일죽면 등을 포함한다.



죽산 일대 지형 및 수계

- 죽산지역은 죽산천 수계의 영향권 내에 생활권이 위치한다. 죽산천은 삼죽면 배태리 덕산저수지 상류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굽이치면서 죽산의 중앙부를 관통한 후 일죽면 월정리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향에서 흘러온 청미천과 합류한다. 남쪽에서는 정개천과 용설천이 죽산천으로 흘러들어온다. 정개천은 칠장산 서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곡류하여 죽산시가지 서쪽 두현리에서 죽산천에 합류한다. 용설천은 죽산 남쪽의 남산 남동쪽 산록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곡류하다가 봉업사지 동쪽에서 죽산천과 합류한다.
- 죽산지역은 이상의 하천들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소규모의 하곡평야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농사짓고 생활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죽산천 주변 하곡평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진다. 죽산천이 청미천과 합류하는 지역이 가장 넓으며, 여기부터 청미천을 따라 동쪽 장호원 방향으로 넓은 들이 이어진다.
- 죽산지역에서 가장 중심지는 정개천이 합류하는 곳부터 용설천이 합류하는 곳까지이다. 이 지역이 조선시대 죽산현의 중심지가 위치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봉업사지는 그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의 죽산 중심지는 봉업사, 죽주산성, 매산리고분군 등의 위치로 보아 이보다 훨씬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봉업사지와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산록부가 당시의 생활 중심지로 보인다.



안성 봉업사지 및 죽산리 일대 원경



안성 봉업사지 및 죽주산성 일대 원경

### ■ 역사문화 환경

- 봉업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죽산지역은 다수의 불교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시대 불교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이 일대의 불교사적 · 미술사적 역사문화 환경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봉업사지 인근 주변지역에는 죽산 관음당의 장명사지, 미륵당의 매산리사지, 장광마을의 장광사지, 그리고 칠장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사찰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봉업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매우 융성하였음을 보여준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번지 일대 비봉산 인근에 자리 잡은 봉업사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어진을 모셨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이다. 원래 죽산리사지로 알려져 왔으나, 1966년 오층석탑 주변 농경지에서 출토된 향로와 향완, 청동북 등에 나타난 글귀를 통해 ‘奉業寺’라는 사찰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봉업사는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남천하였다가 1363년 2월 청주로부터 환도할 때에 들러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한 곳으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眞殿) 사원이었다. 봉업사가 자리한 죽산지역은 주변 하천로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리의 요충지였다.
- 봉업사가 폐사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석탑만 잔존하고 있어 조선 초기에 폐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역참제도의 정비에 따라 太平院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 인근지역에는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봉업사지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 죽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죽산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봉업사지 석불입상(보물) 등 많은 석조 문화재와 주춧돌, 다듬어진 석재 등이 남아있어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특히 인근지역에는 죽산 관음당의 장명사지, 미륵당의 매산리사지, 장광마을의 장광사지, 그리고 칠장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봉업사지가 위치한 죽산이 당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봉업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다음과 같다.

□ 『高麗史』 第40卷, 世家卷第40, 恭愍王3, 12年癸卯

“丙子次竹州謁太祖眞于奉業寺”

→ 병자년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였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竹山, 古跡, 奉業寺

“奉業寺在飛鳳山下高麗時安太祖眞恭愍王十二年二月駕發清州次是寺謁眞殿今只有石塔”

→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 태조의 진영을 안치하였다. 공민왕 12년 2월 청주에서 출발한 어가가 이 절에 들려 진전을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석탑이 남아있다.

○ 봉업사지에서 출토되어 외부로 유출된 문화재를 살펴보면, 봉업사명 청동북(보물 : 연세대학교 소장),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보물 : 칠장사 소장), 봉업사명 청동향로(보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으며, 그 외 보물에 준하는 문화재로는 청동봉업사대강7년명향완(개인 소장), 청동쌍사자광명대(경희대 박물관소장), 금동제사리병과 납석제사리호(국립박물관 소장)가 있다.

○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의 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봉업사명 청동향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奉業寺三重大師元迥(?)”(봉업사 삼중대사 원준(?): 덮개부 명문)

“□□重廿六斤□”(무게는 26근이다 : 받침부 명문)

□ 청동봉업사대강칠년명향완(『韓國金石全文』「奉業寺香垵」, p.509, 개인소장)

“大康七年辛酉正月日奉業寺□□安小待父母長命”

→ 대강7년(문종 35년, 1081) 신유 정월에 봉업사 안소지가 부모의 장수를 위해 만들다.

□ 봉업사명 청동북(『韓國金石全文』「奉業寺盤子」, p.966,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貞祐五年歲在丁丑名字沙門榮謙住于此竹州奉業寺發願鑄成印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色大師洪植”

→ 정우5년(고종4년, 1217) 죽주 봉업사 주지 찬겸이 발원하여 만들고 새기다. 상대장은 부금, 대장은 아각, 삼대장은 경문, 도색대사는 홍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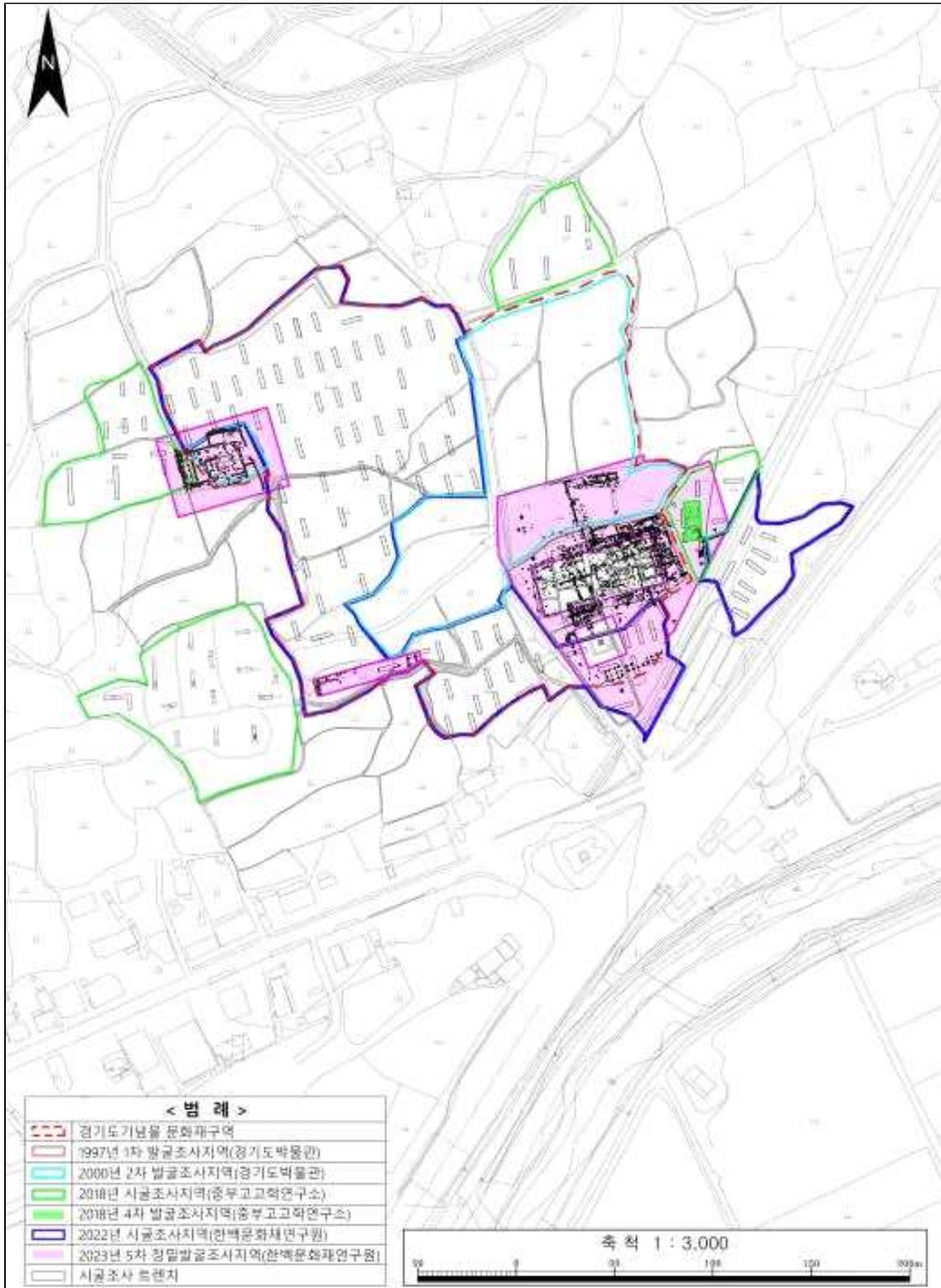
○ 현재 봉업사지에 남아있는 유물로는 안성죽산리오층석탑(보물), 죽산리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등이 있으며, 안성 봉업사지는 2003년 4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 발굴조사

- 안성 봉업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1966년 경지정리 중 청동제 향완과 청동 북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확인된 명문으로부터 ‘봉업사’의 존재가 알려졌다. 안성시는 봉업사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기획하였다.
- 봉업사지는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에 의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8년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백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봉업사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차수별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차수                           | 조사기간   | 면적                             | 주요유구                                 | 주요유물   | 조사기관         |
|------------------------------|--|--------------------------------|--------------------------------------|--|--------------|
| 1차<br>발굴조사                   | 1997.09.24.<br>~ 1998.03.31                                  | 약 6,612㎡                       | 건물지 21개소<br>및 부속시설                   | 명문기와<br>‘皆次’, ‘竹州’<br>중국산 자기, 나발편<br>청동제완, 철부<br>철제환   | 경기도<br>박물관   |
| 2차<br>발굴조사                   | 2000.10.01.<br>~ 2001.03.31                                  | 약 12,561㎡                      | 적심<br>기단석렬                           | 명문기와<br>‘華次寺’, ‘峻豊四年’(963)<br>‘乾德五年’(967)<br>인동당초문 암막새<br>인화문병편<br>청자접시, 청자잔<br>은제도금 단추형장식<br>‘主女光’명 벼루, | 경기도<br>박물관   |
| 3차<br>발굴조사<br>(3층석탑<br>일대)   | 2004.03.10.<br>~ 2004.09.30                                  | 약 4,529㎡                       | 죽산리 3층석탑<br>건물지<br>부석유구<br>범종유구      | 명문기와<br>‘乾德’, ‘興國’, ‘丁丑’<br>납구슬  | 경기도<br>박물관   |
| 4차<br>(주변부지<br>시굴 및<br>발굴조사) | 2018.11.15.<br>~ 2018.11.29.<br>2018.12.14.<br>~ 2018.12.26. | 시굴<br>13,593㎡<br>발굴 160㎡       | 적심<br>석재다짐<br>중복유구                   | 청자배개편, 기와편   | 중부고고학<br>연구소 |
| 5차<br>시굴 및<br>발굴조사           | 2022.09.07.<br>~2022.09.21.<br>2022.10.31.<br>~2023.07.07.   | 시굴<br>27,335㎡<br>발굴<br>11,553㎡ | 중심사역<br>중문지, 담장지<br>진전영역<br>건물지, 외담지 | 명문기와<br>차맷돌<br>청자편   | 한백문화재<br>연구원 |

1차~5차 발굴조사 주요 유구 및 유물 현황



안성 봉업사지 조사 경과도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역사적 가치

- 봉업사지는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사원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당시 봉업사를 방문하여 태조의 진영을 알현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업사지가 언제부터 진전사원이 되었으며 그 진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점도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전부터 있었던 사찰을 고려 초에 진전사원으로 창건하였을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봉업사지는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 이번 5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봉업사지 진전영역의 모습이 대부분 출토됨으로써 그동안 의문점은 모두 해소되었다. 봉업사가 진전사원으로 개편되는 시기는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봉업사지 진전영역에서는 ‘준풍’명 기와(峻豐四年 : 광종 14년, 963년)를 비롯하여 960년대에서 980년대 성종 집권 후기까지의 시기에 해당되는 명문기와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 봉업사지가 진전사원으로서 크게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광종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것도 분명해졌다.
- 한편, 봉업사지 진전영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관아에서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자명 기와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기와도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옹희2년’명 기와이다. 여기에는 ‘백사 능달’, ‘만선리’ 등 당시 지방인의 관직과 인명, 행정 지명 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제작 주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죽주 지역 지방 세력이 제작하여 봉업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가 진전사원 건립에 죽주 지방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 봉업사지 인근의 다른 유적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봉업사에서 출토된 기와들과 동일한 명문기와나 평기와가 인근의 죽주산성, 망이산성, 장명사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이것은 봉업사지가 진전사원으로 창건되고, 동시에 그 인근에서 축성과 불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종대 죽주 지역이 왕권 강화와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재탄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봉업사지가 그러한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 광종이 집권하면서 태조대부터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광주의 왕규 세력은 제거되었고, 그 대신에 충주 유씨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죽산은 광주를 경계하며 충주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왕규 세력은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세력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웃한 죽산 박씨 세력은 충주 유씨와 함께 통일신라말부터 남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지방세력 중 하나였다. 광종이 죽산 지역과 죽산 박씨 세력을 장악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은 물론 충청 일대 지방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긴요한 것이었다.
- 충주에서 죽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에는 송선사지가 있다. 이는 광종의 어머니

신명황후를 위한 원찰이었고 여기에 태조와 신명황후를 모신 영당도 세웠다. 여기에 더하여 죽주에 봉업사지를 세운 것이다. 충주에서 죽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의 핵심지대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죽산 박씨세력을 비롯한 죽산의 지방세력이 광종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업사지는 불교를 활용한 지방 세력의 포섭 및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광종의 정책을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 경관적 가치

- 죽산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로 역사 및 고고 환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또한 죽산의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리적 요인과 함께 봉업사지의 건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봉업사는 죽산천에 접한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를 메워서 조성하면서 지역의 토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광종대 봉업사를 창건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사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등 도시 경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봉업사 남쪽으로 접한 죽산천변에 나루터가 있었던 조선시대 고지도를 통해 이 일대가 핵심적인 교통의 요지였던 것을 증명해주었다.
- 한편, 현재의 죽산 시내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사찰유적인 장명사지 · 장광사지 · 매곡사지 등을 통해 당시 도시 경관이 이 일대까지 확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명사지는 고려 광종대 창건한 사찰로 봉업사지를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사찰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봉업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사찰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은 봉업사지와 고려왕실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죽산의 중세 도시 경관의 변화에 봉업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렇게 온전하게 경관이 남아 있는 죽산이 유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역사경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봉업사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 ■ 학술적 가치

- 학술적 가치는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봉업사지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사역의 범위와 구조적 특징 등이 불명확하다는 보완의견으로 인해 보류되었다. 이에 2023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해소하였다. 특히,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의 외곽으로 담장이 확인되어 정확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현재 확인된 이 범위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인 봉업사지의 사역 범위임이 명확하다.
- 봉업사지는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이루어진 다원 체계로 구성되었다.
- 중심사역은 주불전구역과 승방으로 구분된다. 주불전구역에서는 중문지-오층

석탑-금당지-강당지 등으로 이루어진 1탑 1금당 양식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승방구역은 위계에 따라 수행공간과 생활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사역은 사역의 범위와 구조, 건물지의 성격 및 특징 등이 모두 규명되었다.

- 진전영역은 중심사역의 서북쪽으로 이격하여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別院형식으로 외곽에 담장을 둘러 그 영역을 신성화하였는데, 개성 만월대, 파주 혜음원지 등 대표적인 고려시대 궁궐유적과의 고고학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다례의식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출토되어 진전으로서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뒷받침하였다.
- 또한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 전하는 많은 사찰유적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구조적 특징이 명확히 규명된 유적은 안성 봉업사지가 유일하다. 따라서 봉업사지가 가진 학술적 가치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남한에서 유일한 진전사원으로서의 상징성과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 ■ 예술적 가치

- 예술적 가치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의 석조문 화재 외에도 봉업사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의례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의식구와 공양구를 제작하였는데, 청동북, 향로, 향완, 촛대 등 다양한 고려시대 불구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 봉업사명 청동북은 고려 장인 사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청동북은 13세기 고려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양식으로 주목된다. 더불어 봉업사명 청동향로는 그 크기가 80cm의 대형이며, 일반적인 향완의 양식과는 다른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이 청동향로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향로에서 고려시대의 향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 이 외에도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60여 종이 넘는 명문기와에는 고려시대 특징적인 문양과 함께 연호 및 간지 등 절대연대가 남아 있어 평기와 편년 설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명, 지명, 인명 등도 확인되어 봉업사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금석문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또한 명문기와와 함께 공반 출토된 청자는 봉업사의 개창과 중창을 밝히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또한 출토유물 중 용두, 치미, 치문, 귀면와 등이 다수의 마루장식기와가 확인되었다. 용마루 끝에 올리는 치문은 대략 11~12세기 고려사에 등장하여, 문헌기록의 실증적 고증에 있어 그 연구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전기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치문은 화려한 마루장식기와와 함께 진전사원인 봉업사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따라서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청동북, 청동향로 등은 그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문화유산(보물)로 등재되었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봉업사가 지닌 가치와 위상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성 봉업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고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남한에서 유일한 고려시대 진전사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위상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대표성 · 상징성 · 희소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유적들과 비교했을 때 보편적인 탁월성이 있다. 이에 안성 봉업사지는 동일한 성격의 유적 중에서도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으며,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이다.

## 6. 지정 대상 및 범위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 87필지, 47,504m<sup>2</sup>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m <sup>2</sup> ) | 지정면적<br>(m <sup>2</sup> )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죽산리 | 67-5  | 답  | 1,507                   | 55                        |     |    |
| 2  | 죽산리 | 67-10 | 철  | 30                      | 14                        |     |    |
| 3  | 죽산리 | 67-11 | 철  | 673                     | 40                        |     |    |
| 4  | 죽산리 | 68-1  | 답  | 1,703                   | 1,216                     |     |    |
| 5  | 죽산리 | 68-2  | 철  | 285                     | 285                       |     |    |
| 6  | 죽산리 | 68-3  | 답  | 13                      | 13                        |     |    |
| 7  | 죽산리 | 68-5  | 철  | 59                      | 59                        |     |    |
| 8  | 죽산리 | 69-1  | 답  | 231                     | 231                       |     |    |
| 9  | 죽산리 | 69-2  | 철  | 375                     | 375                       |     |    |
| 10 | 죽산리 | 69-3  | 답  | 112                     | 112                       |     |    |
| 11 | 죽산리 | 69-5  | 철  | 208                     | 208                       |     |    |
| 12 | 죽산리 | 69-6  | 철  | 397                     | 397                       |     |    |
| 13 | 죽산리 | 70-1  | 답  | 1,646                   | 1,457                     |     |    |
| 14 | 죽산리 | 70-3  | 답  | 192                     | 192                       |     |    |
| 15 | 죽산리 | 70-6  | 도  | 16                      | 16                        |     |    |
| 16 | 죽산리 | 70-7  | 도  | 13                      | 13                        |     |    |
| 17 | 죽산리 | 70-8  | 철  | 31                      | 31                        |     |    |
| 18 | 죽산리 | 70-12 | 도  | 61                      | 61                        |     |    |
| 19 | 죽산리 | 83-1  | 도  | 22                      | 22                        |     |    |
| 20 | 죽산리 | 83-2  | 철  | 214                     | 214                       |     |    |
| 21 | 죽산리 | 83-3  | 답  | 217                     | 217                       |     |    |
| 22 | 죽산리 | 83-4  | 도  | 21                      | 21                        |     |    |
| 23 | 죽산리 | 83-5  | 도  | 44                      | 40                        |     |    |
| 24 | 죽산리 | 83-6  | 답  | 12                      | 12                        |     |    |
| 25 | 죽산리 | 83-7  | 도  | 182                     | 181                       |     |    |
| 26 | 죽산리 | 83-8  | 도  | 16                      | 1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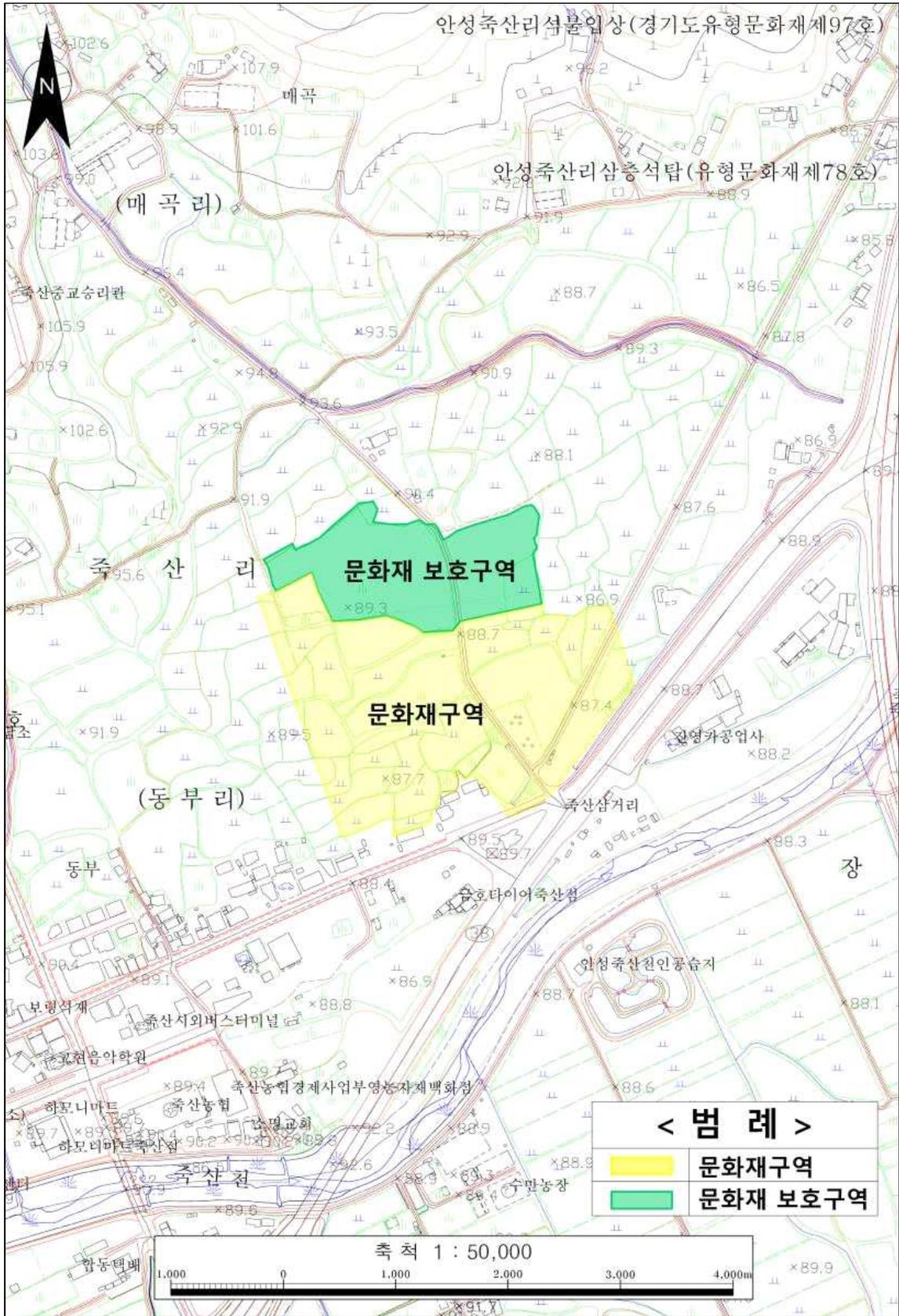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 | 지정면적<br>(㎡)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27 | 죽산리 | 84-1   | 도  | 136       | 136         |     |    |
| 28 | 죽산리 | 84-2   | 철  | 50        | 50          |     |    |
| 29 | 죽산리 | 84-3   | 답  | 109       | 109         |     |    |
| 30 | 죽산리 | 84-4   | 철  | 19        | 19          |     |    |
| 31 | 죽산리 | 140    | 답  | 2,774     | 1986        |     |    |
| 32 | 죽산리 | 141-1  | 답  | 1,990     | 1,175       |     |    |
| 33 | 죽산리 | 142    | 답  | 1,610     | 1,610       |     |    |
| 34 | 죽산리 | 143    | 답  | 1,064     | 1,064       |     |    |
| 35 | 죽산리 | 144    | 전  | 1,696     | 1,696       |     |    |
| 36 | 죽산리 | 145-1  | 도  | 13        | 13          |     |    |
| 37 | 죽산리 | 145-2  | 답  | 1,650     | 1,650       |     |    |
| 38 | 죽산리 | 145-3  | 답  | 1,174     | 1,174       |     |    |
| 39 | 죽산리 | 145-4  | 답  | 3,023     | 3,023       |     |    |
| 40 | 죽산리 | 145-5  | 답  | 1,524     | 1,524       |     |    |
| 41 | 죽산리 | 145-6  | 답  | 418       | 418         |     |    |
| 42 | 죽산리 | 145-7  | 답  | 311       | 311         |     |    |
| 43 | 죽산리 | 145-9  | 답  | 869       | 869         |     |    |
| 44 | 죽산리 | 145-10 | 도  | 10        | 10          |     |    |
| 45 | 죽산리 | 145-11 | 답  | 630       | 630         |     |    |
| 46 | 죽산리 | 145-18 | 답  | 920       | 920         |     |    |
| 47 | 죽산리 | 146-1  | 도  | 116       | 116         |     |    |
| 48 | 죽산리 | 146-2  | 답  | 410       | 410         |     |    |
| 49 | 죽산리 | 147    | 답  | 33        | 33          |     |    |
| 50 | 죽산리 | 148-1  | 철  | 33        | 33          |     |    |
| 51 | 죽산리 | 148-2  | 전  | 16        | 16          |     |    |
| 52 | 죽산리 | 148-3  | 전  | 658       | 658         |     |    |
| 53 | 죽산리 | 148-5  | 전  | 585       | 585         |     |    |
| 54 | 죽산리 | 148-6  | 도  | 79        | 79          |     |    |
| 55 | 죽산리 | 148-7  | 전  | 72        | 72          |     |    |
| 56 | 죽산리 | 149-1  | 답  | 572       | 572         |     |    |
| 57 | 죽산리 | 149-2  | 도  | 43        | 43          |     |    |
| 58 | 죽산리 | 150-1  | 전  | 3,021     | 3,021       |     |    |
| 59 | 죽산리 | 150-2  | 도  | 3         | 3           |     |    |
| 60 | 죽산리 | 150-3  | 전  | 384       | 384         |     |    |
| 61 | 죽산리 | 151-1  | 철  | 215       | 215         |     |    |
| 62 | 죽산리 | 151-2  | 답  | 1,755     | 1,755       |     |    |
| 63 | 죽산리 | 151-3  | 철  | 23        | 23          |     |    |
| 64 | 죽산리 | 151-6  | 답  | 793       | 793         |     |    |
| 65 | 죽산리 | 152    | 전  | 175       | 175         |     |    |
| 66 | 죽산리 | 153-2  | 답  | 1,078     | 163         |     |    |
| 67 | 죽산리 | 153-3  | 답  | 1,580     | 350         |     |    |
| 68 | 죽산리 | 153-4  | 답  | 1,458     | 77          |     |    |
| 69 | 죽산리 | 154    | 답  | 1,848     | 55          |     |    |
| 70 | 죽산리 | 155-2  | 답  | 1,445     | 345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 | 지정면적<br>(㎡)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71 | 죽산리 | 155-3 | 답  | 1,643     | 1,643       |     |    |
| 72 | 죽산리 | 155-5 | 도  | 73        | 73          |     |    |
| 73 | 죽산리 | 172-1 | 답  | 789       | 214         |     |    |
| 74 | 죽산리 | 173   | 전  | 863       | 863         |     |    |
| 75 | 죽산리 | 177   | 답  | 1,610     | 1,610       |     |    |
| 76 | 죽산리 | 177-1 | 답  | 1,025     | 1,025       |     |    |
| 77 | 죽산리 | 178-1 | 답  | 3,084     | 1,033       |     |    |
| 78 | 죽산리 | 178-2 | 답  | 3,216     | 2,134       |     |    |
| 79 | 죽산리 | 178-5 | 답  | 2,393     | 366         |     |    |
| 80 | 죽산리 | 178-6 | 답  | 1,739     | 1,670       |     |    |
| 81 | 죽산리 | 178-7 | 답  | 1,286     | 591         |     |    |
| 82 | 죽산리 | 196   | 답  | 2,159     | 419         |     |    |
| 83 | 죽산리 | 197   | 답  | 1,174     | 92          |     |    |
| 84 | 죽산리 | 728-8 | 도  | 281       | 251         |     |    |
| 85 | 죽산리 | 729   | 구  | 25,537    | 305         |     |    |
| 86 | 죽산리 | 736-2 | 구  | 1,560     | 964         |     |    |
| 87 | 죽산리 | 743   | 도  | 390       | 390         |     |    |
| 계  |     |       |    | 93,487    | 47,50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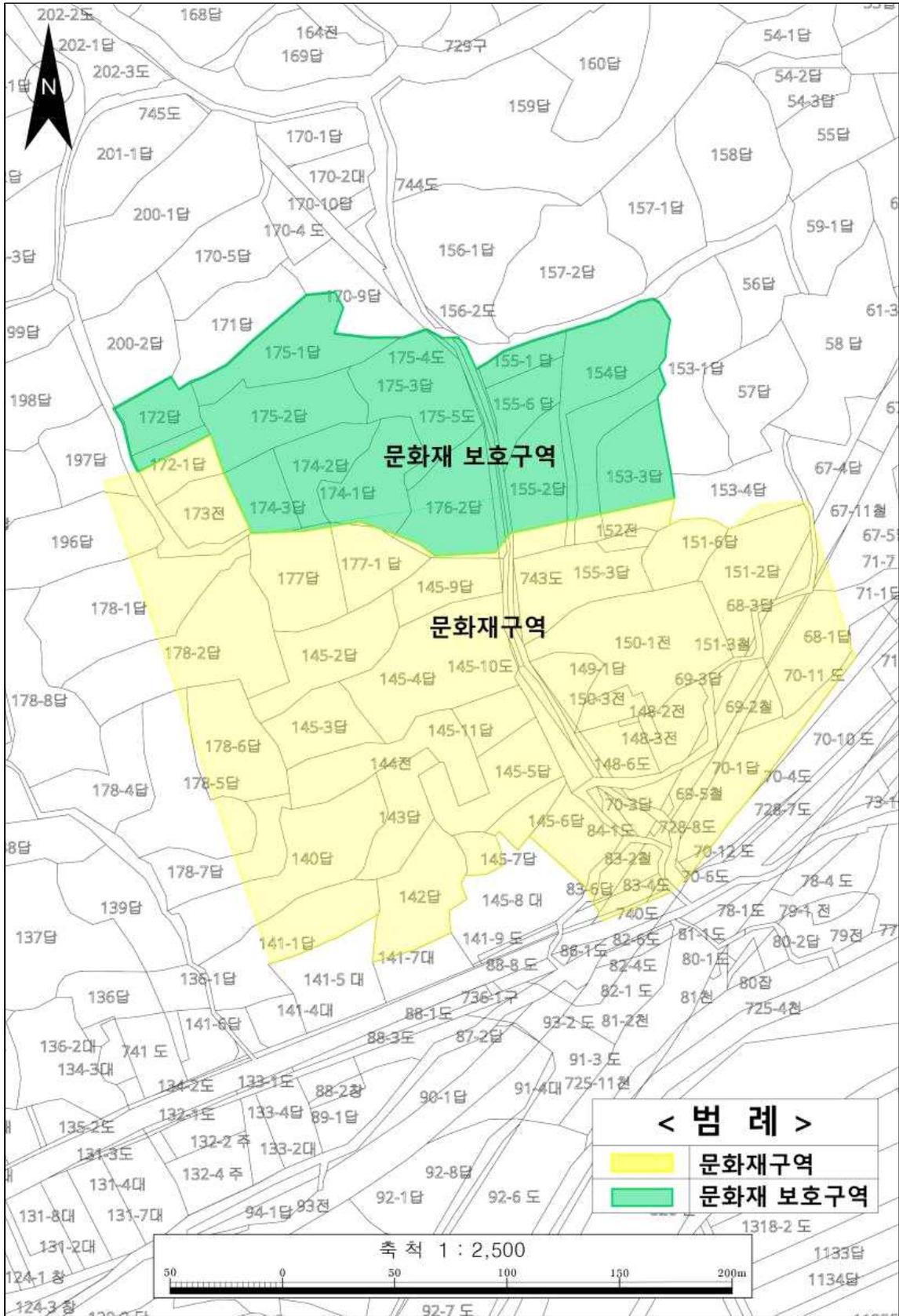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 19필지, 18,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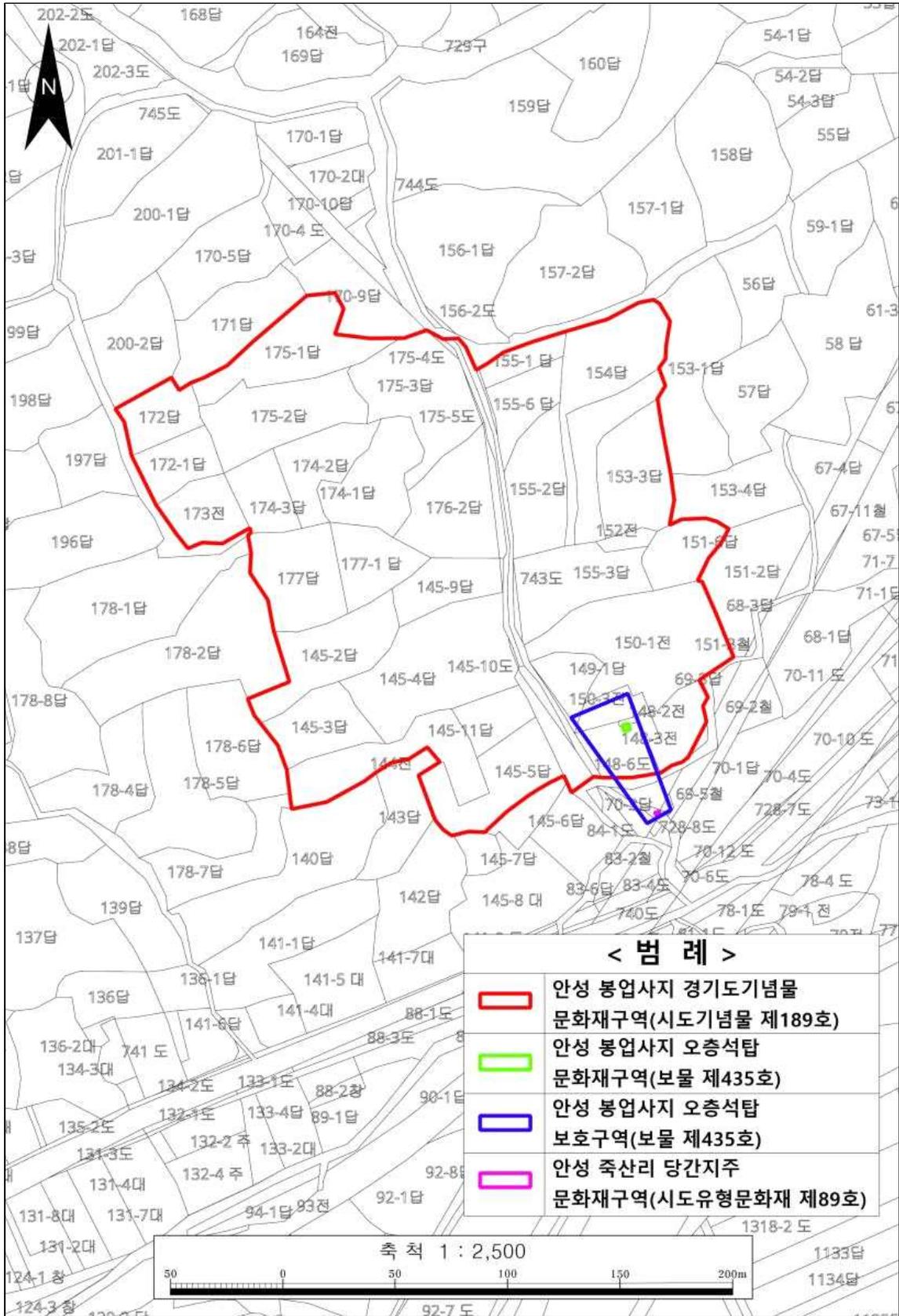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 | 지정면적<br>(㎡)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죽산리 | 153-2 | 답  | 1,078     | 923         |     |    |
| 2  | 죽산리 | 153-3 | 답  | 1,580     | 1,230       |     |    |
| 3  | 죽산리 | 154   | 답  | 1,848     | 1,793       |     |    |
| 4  | 죽산리 | 155-1 | 답  | 444       | 444         |     |    |
| 5  | 죽산리 | 155-2 | 답  | 1,445     | 1,100       |     |    |
| 6  | 죽산리 | 155-4 | 도  | 13        | 13          |     |    |
| 7  | 죽산리 | 155-6 | 답  | 839       | 839         |     |    |
| 8  | 죽산리 | 172   | 답  | 778       | 778         |     |    |
| 9  | 죽산리 | 172-1 | 답  | 789       | 575         |     |    |
| 10 | 죽산리 | 174-1 | 답  | 1,438     | 1,438       |     |    |
| 11 | 죽산리 | 174-2 | 답  | 1,088     | 1,088       |     |    |
| 12 | 죽산리 | 174-3 | 답  | 783       | 783         |     |    |
| 13 | 죽산리 | 175-1 | 답  | 1,785     | 1,785       |     |    |
| 14 | 죽산리 | 175-2 | 답  | 1,921     | 1,921       |     |    |
| 15 | 죽산리 | 175-3 | 답  | 2,076     | 2,076       |     |    |
| 16 | 죽산리 | 175-4 | 도  | 30        | 30          |     |    |
| 17 | 죽산리 | 175-5 | 도  | 10        | 10          |     |    |
| 18 | 죽산리 | 176-1 | 도  | 185       | 185         |     |    |
| 19 | 죽산리 | 176-2 | 답  | 1,759     | 1,759       |     |    |
| 계  |     |       |    | 19,889    | 18,77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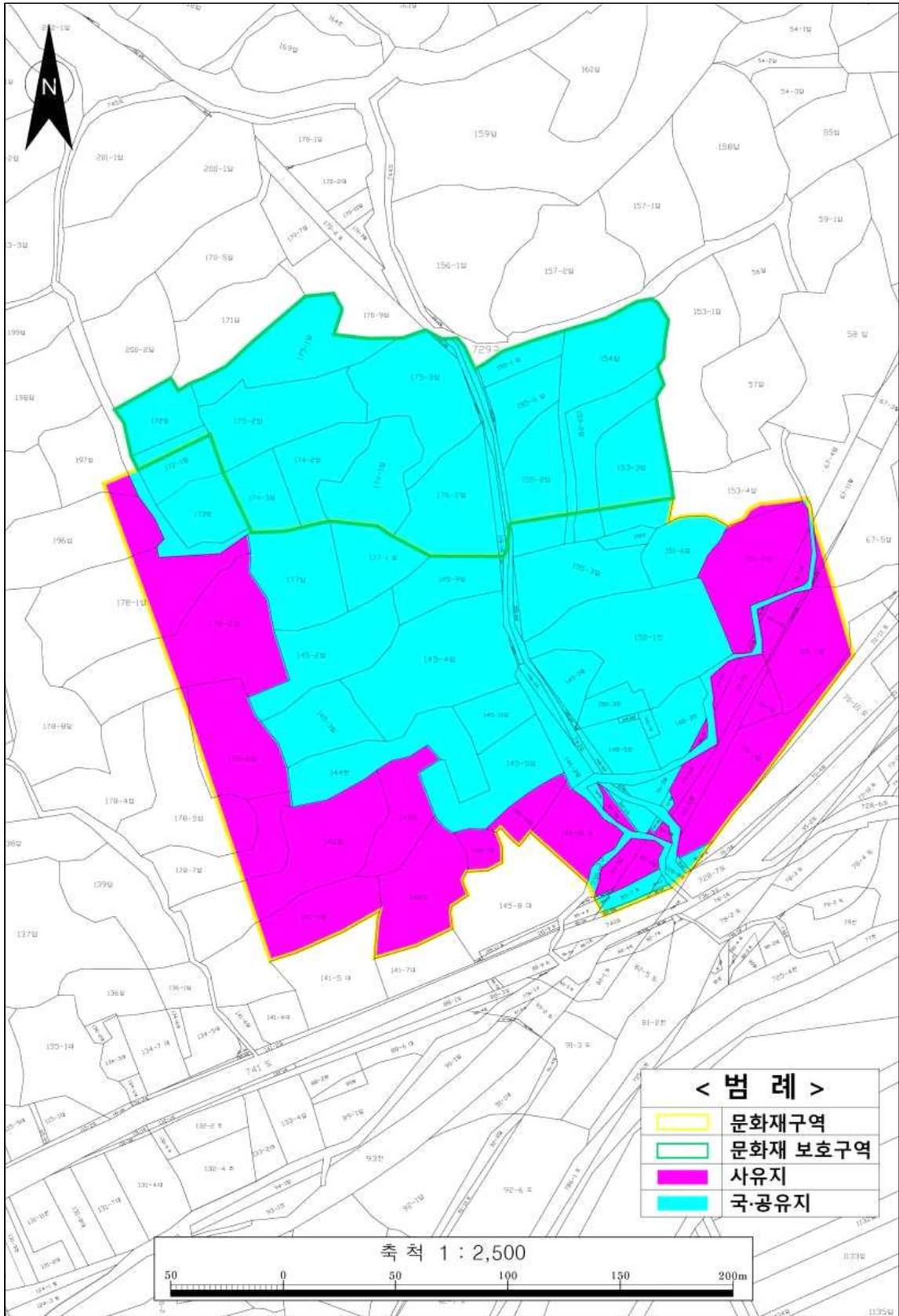
안성 봉업사지 수치지형도(1:5,000)



안성 봉업사지 지적도(1:2,500)



안성 봉업사지 현 문화재구역도(지적)



안성 봉업사지 지정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안성 봉업사지 중심사역 전체 평면도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전경



중심사역 주불전구역 전경(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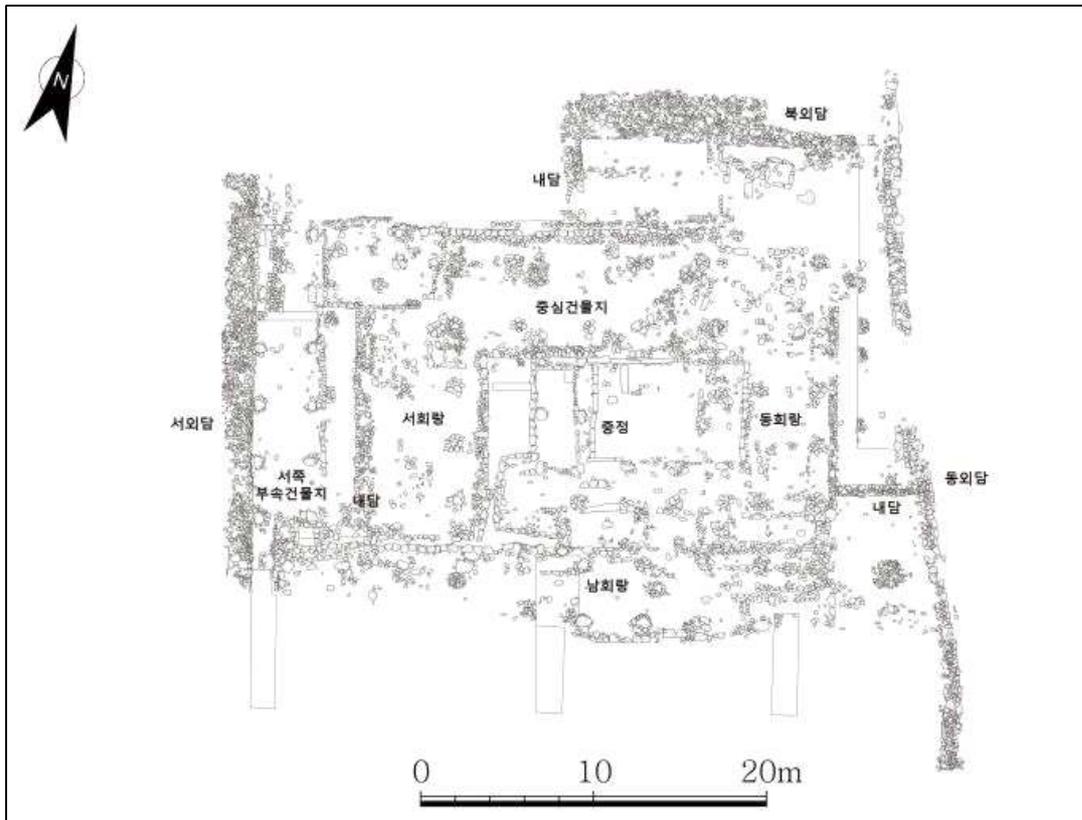
안성 봉업사지 중심영역 주불전구역 금당지와 답도 일대 전경(1997~1998)



승방구역 일대 전경(동쪽에서)



진전영역 전체 현황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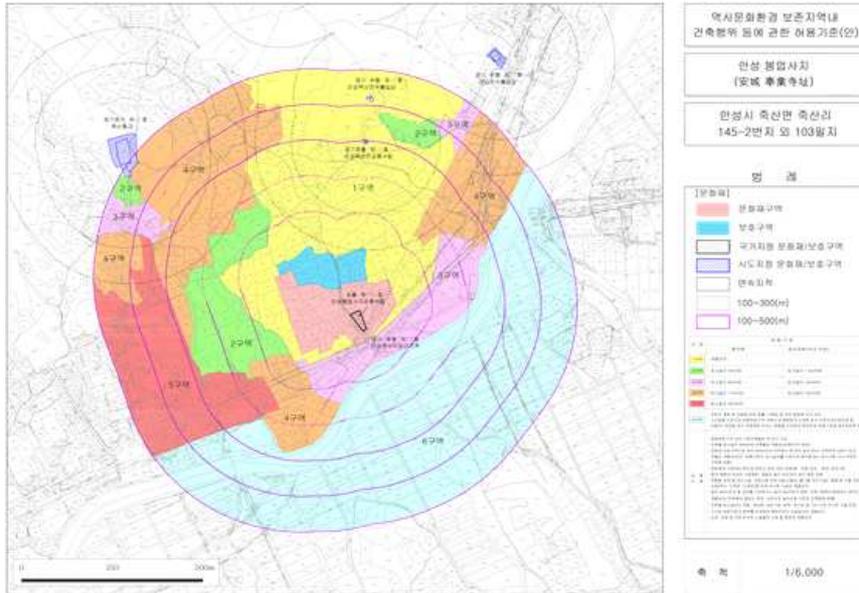
진전영역 전체 현황도



봉업사지 전체 현황도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사지 전면 하천 건너 농경지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 정도를 고려한 높이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성 봉업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구분   | 허용기준  |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 이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4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 이하  |    |
| 제5구역 | ○ 최고높이 32m 미만   |                |    |
| 제6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br>-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제5구역 제외)</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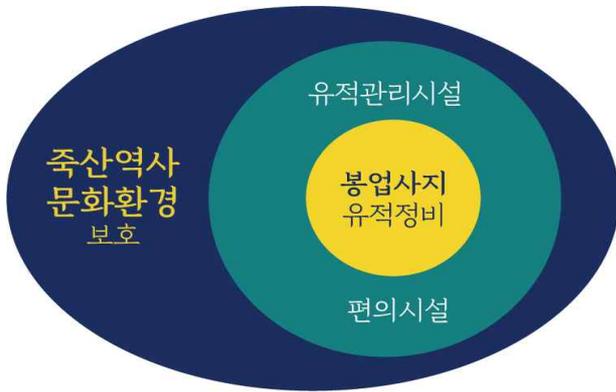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8-1. 기본방향

#### 1) 보존정비 및 활용 계획 대상

- 보존정비 및 활용 계획대상지는 봉업사지 일원과 인접한 산지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지형 그리고 봉업사지를 포함하는 죽산지역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계획 목적에 따라 봉업사지, 인근지역 그리고 죽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봉업사지 지정구역<br>(보존지구 내) | 봉업사지 주변지역<br>(보존지구 외곽 500m) | 죽산 지역                  |
|-----------------------|-----------------------------|------------------------|
|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지역      | 자연녹지지역 문화유산 협의구역            | 죽산지역의 문화권 죽산역사문화 도시    |
| 유적정비                  | 유적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 장기적인 역사문화관광문화권 발전방향 제시 |



####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
- ② 문화유산구역과 보호구역은 현상변경이 어려운 지역
- ③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최대한 녹지 보존 및 자연환경 복원대상 지역

####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유적지와 생태환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등 시설지원이 가능한 지역
- ② 현상변경기준에 따른 문화재 협의가 필요한 지역
- ③ 정비·보존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시설 배치 및 합리적 방안이 필요한 지역

#### 다. 죽산지역

- ① 봉업사지가 위치한 죽산면 일대 문화유적 및 생태환경의 유기적 보호
- ② 봉업사지 정비·보존 및 활용방안과 연계한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
- ③ 안성시의 장기적 역사문화관광 발전방향이 모색되는 지역

#### 2) 구역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의 전제

- 봉업사지와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산가치의 보존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비사업계획의 구상안을 마련한다.

###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봉업사지의 유적 훼손 최소화
- ② 유적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완결하여 장애요인 해결
- ③ 철저한 사실 고증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 ④ 안성시 및 죽산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표출
- ⑤ 현 상태 유지의 수동적 보존개념에서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보호·활용하는 능동적 보존개념으로 전환

###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유적 이미지와 어울리는 주변지역의 미관 개선 노력
- ② 방문자 편의시설 및 유적 관리를 위한 공간 조성
- ③ 환경친화적 개념을 통한 유적 주변 개발계획 협의
- ④ 현실적인 문제 등 주민과의 관계설정을 정립하여 정비
- ⑤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마련

### 다. 죽산지역

- ① 죽산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② 죽산의 대표유적으로 봉업사지와 부합되는 이미지 개선
- ③ 봉업사지를 활용한 장·단기적 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홍보
- ④ 죽산면 일대에 역사전통문화요소를 개발·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가능
- ⑤ 관리운영을 위한 투자예산은 지원예산 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발전에 부합 가능

## 3) 기능 설정 및 분배

###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유적 보존을 전제로 유적 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연결
- ② 유적 내 탐방로를 통한 각 시설물의 유기적 형성
- ③ 유적의 고유성격을 최대한 활용 : 봉업사지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유적을 일부 보존, 복원하여 역사적 체험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 조성

###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봉업사지의 이미지 및 접근성을 부각시키는 기능
- ② 전시·교육 등을 통해 유적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원하는 기능
- ③ 유기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유적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능
- ④ 유적의 관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능 : 방문자센터 등 체험시설 마련

### 다. 죽산지역

- ① 봉업사지와 연계된 관광문화자원으로써 동적활동을 조성
- ② 교육·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 :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도시조성

## 8-2. 기 추진 보존 정비 및 활용 실태

### 1) 발굴조사 및 GPR 지질탐사

- 봉업사지는 1997년 이후 5차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려 광종대에 봉업사로 개창된 중심사역과 진전유구가 조사되어 왕실 진전사원으로서 고려시대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봉업사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GPR 지질탐사를 통해 봉업사지의 자연지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획득한 바 있다.

### 2) 지속적인 토지 매입

- 안성시는 2003년에 봉업사지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구역의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하였다. 문화재구역의 토지 매입을 통해 향후 봉업사지 문화재구역 내부를 보존·정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 소유주와의 불협화음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보존정비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 현재 봉업사지의 문화재구역은 죽산리 145-2번지 외 48필지이며 면적은 43,314㎡에 달한다. 소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다. 안성시는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재구역 상당 부분을 확보하였다.
- 2017년도에는 죽산리 145-9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였다. 매입면적은 13,056㎡, 취득가격은 1,543,752,000원(보상가액 산정기준)으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조달하였다. 2019년에는 1필지를 매입하였다. 최근 들어서 도비와 시비 구성비율은 하위 지자체 부담이 더 확대된 추세를 보인다.
- 2023년 현재까지 매입된 사유지는 38,981㎡, 국유지 2,688㎡이며,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남아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4,973㎡이다. 향후 추가로 매입이 진행되어야 보존정비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할 것이다.

### 3)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07년에는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sup>1)</sup>을 수립하였다. 계획년도는 2007년도부터 총 11개년으로 설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였다. 2007년도 초에 제출된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 계획대로 정비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면 발굴 20주년에 맞춰서 전시관 개관식이 열렸을 것이나, 당시 제시된 과업내용 가운데 토지 매입 외에는 대부분 계획으로 그쳤다.
- 단기는 3년(2007~2009), 중기는 5년(2010~2014), 장기는 3년(2015~2017)으로 기간을 설정하였는데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중·장기 방안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계획으로 보인다.
- 제시된 사업은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복원(공원조성 포함), 유적지 정비, 전시관 건립,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6개 분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토지매입, 유적복원(공원조성 포함), 전시관 건립, 전통문화 체험시설 사업은 정부 예산이 집

1) 안성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 보고서』, 2007.

중 투입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일이 지난 만큼 현 시점에 맞는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4) 탐방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개발 시도

##### (1) 영남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현재 봉업사지를 대상으로 한 가장 활발한 활용은 영남길 탐방 프로그램이다.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에 명시된 총 6개의 옛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루·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삼남길(100km), 의주길(56.5km), 영남길(116km)이 구성되어 역사·경관·민속체험이 가능하다.<sup>1)</sup>



영남길 제 8구간 ‘죽주산성길’과 함께하는 문화자원 탐방(경기옛길 청년기자단)

- 봉업사지 지점은 영남길 8구간으로 이어져 영남길 9구간이 이어진다. 죽주산성길로 명명된 제8길은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마을에서 비봉산, 죽주산성, 매산리 석불입상, 봉업사 당간지주, 죽산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13km로 전체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탐방은 죽주산성→매산리 석불입상→봉업사지→죽산성지까지 이어지는 순으로 경기옛길 역사탐방이 진행되었다.

##### (2) 죽주산성 일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 이 연구는 관광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 역사자원들의 숨은 이야기 거리들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논리를 적용시켜서 안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명품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지는 역사, 환경자원이 풍부한 죽주산성으로 역사, 문화,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내 대표 스토리텔링의 명소로 브랜드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sup>2)</sup>

- 죽주산성과 인근지역 콘텐츠 개발에 국한된 연구였으나 연구 종료 시점에 추가된 제언은 이번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제기된 제언을 요약하면, 첫째 죽주산성 단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안성시의 특화된 문화유산인 미륵불, 봉업사, 칠장사를 연계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기하였다. 둘째 지역의 역사, 문화유적, 유물, 설화 등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려시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안성 죽산지역에 고려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고려문화단지’와 같은 헤리티지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sup>3)</sup>

1)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용.

2) 안성시·InterCulture, 『죽주산성 일원 히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2014, 9쪽.

### 8-3. 봉업사지 현황

#### 1) 봉업사지 주변 현황

- 도로에 비해 약간 지대가 낮은 봉업사지는 겨울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나 다른 계절에는 수목으로 인해 사지의 위치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봉업사지 주변 경작지에 식재된 유실수는 외부에서 당간지주와 오층석탑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안성시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토지매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주변은 유실수 외에도 경작용 비닐하우스, 불법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은 물론 유구 보존과 관람환경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지 주변 노후 불법건축물



당간지주 주변 불법건축물

#### 2) 봉업사지 관람 환경<sup>1)</sup>

##### (1) 관람객의 유형과 연령

- 봉업사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수를 파악할 기초자료는 현재 전혀 없다. 안성시에서 발간한 『안성통계연보』에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를 수치로 밝히고 있으나 집계된 관광지는 유료관광지이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봉업사지를 방문했을 수 있으나 별도 집계가 어려워 봉업사지 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 어떤 유형의 관람객이 봉업사지를 방문하는지, 연령층의 분포나 방문 목적 등을 살필만한 자료 역시 파악이 어렵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인물사진은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대체로 유적지 답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주류를 이룬다.

##### (2) 관람코스

- 봉업사지를 방문한 관람객으로서는 당간지주와 오층석탑 2개소 외에 관람할 대상이 지상에 없으므로 관람순서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봉업사지 내에서의 관람코스는 단조롭다. 당간지주와 오층석탑을 관람한 뒤 대체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순을 밟는 편이다.

3) 『죽주산성 일원 히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196쪽에서 고려문화단지에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고려성, 고려 죽주산성, 고려 관청, 고려 고분군, 고려 생활마을, 고려역사문화단지(고려시대 문화예술 상설공연, 고려시대 3D 체험존, 고려시대 불교미술 전시,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고려생활마을(고려시대 거리 재현, 미륵길), 고려시대 축제 등의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1) 봉업사지 관람 환경은 공식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 일부 봉업사지 방문을 전후하여 죽주산성을 관람코스로 잡는 관람객도 있으나 두 유적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순차로 방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봉업사지→죽주산성으로 이동은 차량 외에 도보(옛길)도 가능하나 걸어서 죽주산성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기획된 프로그램인 경기옛길 답사 외에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 (3) 체류시간

- 봉업사지를 찾은 관람객이 얼마나 현장에 머무르는가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대체로 15분에서 30분 범위로 추정된다. 답사코스를 계획하여 이동하는 답사팀은 답사자료에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15분가량 할당한 경우도 보인다. 이들 역시 관람코스는 사역 내에서는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 이어서 오층석탑을 살피는 과정으로 답사를 마치고 있다.

### (4) 관람객 편의시설

- 현재 봉업사지 내에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하다.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유형이 다양하다. 매점, 기념품 판매점, 화장실, 벤치, 그늘막, 주차장 등이 그 대상인데 문화유산별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차이를 보인다. 관람객이 얼마나 방문하는가는 이러한 시설 설치와 규모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하지만 봉업사지를 방문하는 인원을 집계한 통계는 조사된 적이 없고, 관람객의 체류시간 역시 대체로 짧은 편이어서 편의시설 부족의 불편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체류시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편의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5) 정보의 제공

- 봉업사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매체는 문화유산안내판이 유일하다. 봉업사지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에는 전면부에 소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영남길 안내판도 입구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봉업사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만한 정보제공용 안내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 안내판은 유적을 관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제공 시설로서 기능을 구분하여 주변 관광안내판, 종합 유적안내판, 세부 유적 안내판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편이나 봉업사지는 이에 비하면 안내판 설치는 빈약한 편이다. 특히 그간의 발굴조사나 유구, 유물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어 사지의 전모나 역사적 가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내판



영남길 안내판

### 3) 죽산리의 관광 여건

- 죽산리는 안성시 내에서도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죽산리에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 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차 공간 부족, 휴식시설 부족 등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sup>1)</sup>
- 죽산지역은 2012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2014년 10월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015년부터 죽산면내 지중화, 가로경관개선, 다목적 광장 조성, 죽산 역사문화공원 재정비, 송문주 장군 동상 건립 등 4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 죽산리가 지닌 또 다른 관광요소는 죽산시장을 들 수 있다. 많이 쇠퇴했지만 현재 죽산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으로 약 40여명의 상인들이 장날 좌판을 열고 있으며, 5일장 내 죽산상가 2동 11개의 점포를 포함 모두 50여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날은 매월 5, 10, 15, 20, 25, 30일이다.
-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서울, 천안, 충주, 부천, 고양, 이천, 광혜원 등 비교적 근거리지만 도내, 충청도, 서울로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운행횟수는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봉업사지 관람객 또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자면 죽산리의 관광여건은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가온다. 죽산리의 음식점, 숙박, 휴게시설 등은 부족한 편이며 관광객이 흥미를 끌 만한 특화된 장점은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8-4. 단계별 보존정비·활용방안

### 1) 매장문화재 조사계획 수립

- 봉업사지는 2023년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을 중심으로 사역의 범위가 규명되었으며, 그 밖에 주변부지 및 3층석탑 주변 등에 대해서도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사역은 중문지부터 강당지까지 남-북 일직선상에 고려시대 일탑식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전영역은 봉업사가 고려시대 진전사원임을 증명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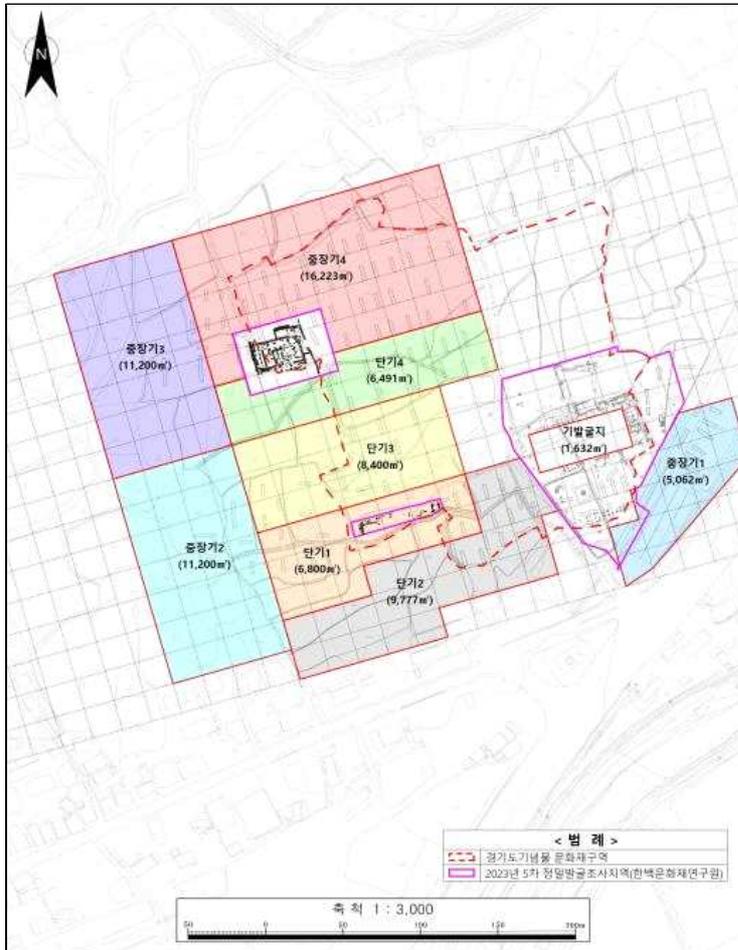
1) 안성시, 『고도(古都) 죽산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개선 사업』, 56쪽.

써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역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 구조 및 특징 등은 충분히 밝혀졌다. 다만 향후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 이에 그동안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 분포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발굴지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활용을 위한 3D데이터 등의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단기계획은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역의 전면부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 단기 1단계는 중심사역의 서쪽 일대에 해당한다. 5차 발굴조사에서 건물지의 흔적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주변으로 확장하여 전체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단기 2단계는 중심사역의 서남쪽 일대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950~60년대까지도 이 일대에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봉업사 사역 내에 경관시설인 연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단기 3 · 4단계는 중심사역의 서쪽이며, 진전영역의 남쪽에 해당한다. 봉업사지 전체 사역 내에서 두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향후 보존정비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중장기계획은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역의 외곽 일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역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1단계는 중심사역의 남동쪽 일대이다. 오층석탑 전면부 중문지의 동쪽으로 연결되는 회랑이 이어지는 곳으로 사역의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교통로에서 경내로 출입하는 동선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2~4단계는 사역의 외곽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 경관이나 부속시설, 그리고 현재 사역 내 동선과 마을길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장기 5단계는 중심사역의 기발굴지에 해당한다. 향후 유적의 정비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2D자료 뿐만 아니라 3D 자료 등 최신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폭넓은 범위 내에서 정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단기      |           |         |         | 중장기     |           |           |           |         | 합계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기발굴지    |           |
| 위치      | 중심사역    |           | 진전영역    |         | 중심사역    | 진전영역      |           |           | 중심사역    | -         |
|         | 서쪽      | 서남쪽       | 남쪽      | 남동쪽     | 남동쪽     | 남서쪽       | 서쪽        | 북쪽        | 중앙      | -         |
| 면적 (㎡)  | 6,800   | 9,777     | 8,400   | 6,491   | 5,062   | 11,200    | 11,200    | 16,223    | 1,632   | 76,785    |
| 비용 (천원) | 814,880 | 1,025,860 | 929,709 | 787,545 | 670,461 | 1,121,813 | 1,121,813 | 1,471,481 | 341,297 | 8,284,859 |

(문화재청 고시 제2023-1호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안성 봉업사지 단계별 조사계획도

## 2) 보존 정비·활용방안 수립

- 봉업사지의 유적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보존적 측면으로, 유적의 보호 및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발굴성가로 복원이 되지 않는 유적은 무리하게 복원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활용적 측면이다. 발굴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비 및 활용구역을 설정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작지는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요소를 배가시킨다.
- 봉업사지의 정비계획의 기본은 발굴자료를 기초로 구역을 설정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진전지, 중심사역의 성격이 명확히 확인된 건물지 등은 탐방로를 구성하고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유구가 없거나 심하게 훼손된 지역, 불명확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 지점 등은 자연 녹지 중심의 경관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유적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배치와 함께 보행로 및 기타 편의시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단기적,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단기 정비 활용방안 : 최소한의 시설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

**□ 주변 경관 정비**

- 우선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및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유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람로 주변을 정리하고 안내판 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식재된 나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땅속에 보존된 유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지속적인 경작활동 및 비가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

**□ 그늘막과 벤치 설치**

- 현재 봉업사지에는 관람객과 안내자가 혹서기를 피할 시설이 전무하다. 관람객의 체류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안내자가 대기하거나 설명을 들을 경우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가 된다.
- 그늘막의 기능은 단순히 햇볕을 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봉업사지 안에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간헐, 소규모라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늘막과 벤치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람자의 방문욕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안성시 관내 행사 확대 운영: 관람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응모**

| 구분  | 세부분류             | 목 표 설 정   | 방 법                            |
|-----|------------------|---|--------------------------------|
| 학 생 | 대학·대학원           |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br>강좌 및 세미나<br>자원봉사자 및 인턴 참여                               |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br>인턴십 운영         |
|     | 초등학생 및<br>중·고등학생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br>워크시트를 이용한 참여<br>교과목과의 연계<br>교내 특별활동 활용<br>전통문화 체험시설 이용 | 홈페이지 관리<br>학교 연계방안             |
|     | 유치부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br>워크시트를 이용한 참여<br>전통문화 체험시설 이용                           | 유치원과 연계방안                      |
| 일반인 | 안성시 문화시설<br>이용자  | 전시관 프로그램과 연계 참여   |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br>문화시설 연계방안      |
|     | 가족단위 이용자         | 가족 체험 프로그램<br>자녀를 위한 부모용 워크시트   |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성인, 주부, 노인       | 강좌 프로그램 참여<br>구성원별 답사 프로그램 참여   | 회원제<br>교육 프로그램 운영<br>문화답사 운영   |
| 전문인 | 관련연구단체           | 강좌 및 세미나 참여<br>전시관 및 연구기관, 대학 연계  | 전문 프로그램 운영<br>박물관·연구기관·대학 연계방안 |
|     | 교사               | 교육프로그램 수강 또는 연구   | 전문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방안

## □ 관람객 안내·탐방 프로그램 운영

-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프로그램을 봉업사지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기존 운영 프로그램에 봉업사지를 포함시켜 시범으로 운영하며, 시범 운영기간에 관람객의 반응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한 홍보효과를 얻고, 차후 정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 최근 유적 자체를 현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탐방·체험프로그램 위주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변화의 방향이다. 안성시와 죽산면(주민 포함)이 주도하여 봉업사지와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응모하도록 한다. 공모 사업의 기획은 문화유산에 집중하되 죽산면 일대의 농촌체험을 혼합한 경쟁력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 문화재청 공모사업 응모

-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봉업사지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재야행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그 간 광역시와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졌던 문화재야행 사업이 중소도시와 마을 중심형 소도시로도 한층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민이 야행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을 둘 만하다.
- 실제로 죽산지역은 「2019 죽산면 문화재 야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업사지와 죽산면 일대 문화재를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 주변 고려시대 유적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봉업사지 및 죽산지역의 역사도시 이미지 구축
  - 봉업사지 활용한 다양한 상품 제작 및 배포
  -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대중매체 동원하여 봉업사지 홍보
  - 인터넷 방문 및 안내 홈페이지 제작
  - 팸플렛, 리플렛 등 기획홍보물을 유적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정보제공

## (2) 단기 : 사역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과 임시 편의시설 마련

### □ 안내판 설치

- 봉업사지에 마련할 안내판은 외부에서 봉업사지로 유도하는 표지와 봉업사지 내부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진입유도 안내판은 국도변 갈래길과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한다. 사역 내 설치할 안내판은 전체 안내판, 개별 문화유산

안내판, 각 건물지별 안내판, 건물지와 건물지 사이 동선 연결용으로 세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 안내 유형 | 방 법   | 효 과   |
|-------|---|---|
| 단순 안내 | 간단한 표식으로 그 위치를 알림   | 사유지 등 지역 제반 행정문제를 고려하여 위치만을 표시해 유적의 존재 공개       |
| 개괄 안내 | 문헌자료 및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유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 |
| 입체 안내 | 개괄 안내를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사진도면 자료를 포함한 잔존현상 및 고유의 가치까지 복원한 입체적 안내 | 유적의 중요성 및 고유 가치까지 공개하여 활용 및 교육 효과 발생            |

#### 안내판의 종류

#### □ 관람로 조성

- 국내에 정비된 사지 관람코스는 크게 코스형과 자율형으로 분류된다. 코스형은 관람하는 순서와 동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유구 보존에도 유리하지만 관람에 제한적이며, 안내판이나 해설, 유인물 제공이 소홀하면 의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다. 자율형은 관람자 스스로 코스를 설정하므로 원하는 위치나 유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구를 훼손할 가능성과 체계적 이해에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 관람로는 건물지 정비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건물지 정비를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관람로를 조성하여 사역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최근 확충되는 추세인 관람데크는 관람자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유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나 관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멀리서 관망해도 이해될 만큼 유구가 분명한 사지와 달리 봉업사지 잔존유구는 하부구조만 남아 있어 상부 구조를 유추하기 어렵다. 결국 근접 관람방식이 효과가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봉업사지 내부에 유구가 없는 부분으로 관람로를 개설해 유구를 보존하며 관람환경도 개선 가능하다.

| 구분    | 시 설 물 | 배 치 계 획                      | 시 설 내 용                      |
|-------|-------|------------------------------|------------------------------|
| 편의 시설 | 화장실   | 유적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            | 조립식 간이화장실, 남·녀, 장애인과 어린이로 구분 |
|       | 의자    | 산책로, 전망지점 등                  | 나무의자, 간략한 형태의 디자인            |
|       | 긴급전화기 | 유적 산책로 중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 응급 상황 대비                     |
|       | 식음료수대 | 사람의 활동이 많은 지점에 설치            | 이동식 식음료수대                    |
|       | 가로등   | 주진입부와 산책로 : 50m 단위           |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디자인               |
|       | 쓰레기통  | 시설밀집지역 등 5개소                 | 친환경디자인                       |
| 안내 시설 | 방향표지판 | 탐방로의 갈림길에 코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치   | 나무재질의 단순한 디자인                |

| 구분    | 시 설 물    | 배 치 계 획                           | 시 설 내 용                  |
|-------|----------|-----------------------------------|--------------------------|
|       | 전시설명     | 시설집중지역 및 발굴지점 등                   | 용도마다 다른 나무 재질 디자인        |
|       | 공원시설 배치도 | 주차장과 유적 진입부 등                     | 유적과 주변일대에 대한 위치 조감도      |
| 보호 시설 | 담장시설     | 복원된 유적이 있거나 꼭 관리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 | 친환경적이면서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 |
|       | CCTV     | 주요 관리 시설                          | 가로등 및 주요시설과 연계 설치        |

유적지 내 주요 필요시설

□ 유적 정비

- 봉업사지는 발굴 조사 완료 후 복토됨에 따라 지상에서 유구의 흔적이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비를 실시하여 시각적인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 보통 건물지를 정비하는 기법은 복토, 복토 위 재현, 유구노출, 유구 표시, 유구수복 등으로 실행 과정에서 유구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징을 드러내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 이런 방식은 건물 구조나 규모를 이해하기에 멧멧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지만 기둥 일부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세우는 입체적 접근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왜곡의 우려 때문이지만 적어도 초석에 남은 기둥자리는 기둥 바닥면 크기를 반영하므로 기둥 단면 크기를 추론하기에 부족한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봉업사지 건물지는 일부 치석된 초석과 기단용 석재가 잔존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자연석으로 사용하여 적심과 기단, 아궁이, 배수로 등을 만들었고 잔존 높이도 낮아 유구를 노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 그러나 봉업사지의 기발굴지는 복토된 이후 발굴조사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여년이 경과하였다. 일부는 경작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하부 유구의 상태 확인은 필요하다. 현 상태로 계속 복토를 유지한다 해도 기발굴지의 유구 상태 점검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임시 편의·정보제공 시설

- 단기에 설치하는 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추후 본격 정비 과정에서 제거하기 용이하고 봉업사지 보존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시설을 살펴보면 최근 이동과 철거가 손쉬운 컨테이너는 다양한 기능을 대신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어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컨테이너는 기성품이지만 부자재 활용이 쉬워 다양한 공간과 입면 구성이 가능하여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화장실 기능도 컨테이너에 수용 가능하다.
- 우선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편의시설, 관리자의 사무실, 화장실을 갖추고 관람객이 증가할 경우 이 시설을 중심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화장실과 임시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장기 단계에서도 전시관 보다는 방문자센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임시홍보관, 방문자센터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

이 높아지고 학술적 가치가 진작된다면 전문시설 마련은 자연스럽게 대두될 문제이므로 건립 방향만 예시를 들어 제안한 것이다. 봉업사지 역시 혜음원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임시시설로 출발하여 점차 방문자센터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과주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이천 양녕대군 역사관

#### □ 주차시설 확보

- 봉업사지 방문객은 당간지주 앞이나 도로가에 주차하고 유적지를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로는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어 농기계 통행과 얽혀 불편함이 드러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긴 해도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봉업사지 인근에 주차시설 확보는 우선 고려대상이다.
- 대개의 유적지 관람환경은 주차장, 안내시설과 전시관, 유적 순으로 상황에 맞게 배치됨으로써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다. 관람동선의 출발은 대개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 시설임은 분명하다.

### (3) 중기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 『문화재보호법』 제6조 ①항에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 종합정비 학술연구를 시행한 봉업사지는 이에 근거하여 2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주기 5년은 최소요건이므로 재수립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토대로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봉업사지는 사찰 단일유적이 아니라 죽주산성과 연계된 특성을 지녔으며, 사역은 현 봉업사지 주변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방안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봉업사지 사역 내부는 되도록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한 보존·정비영역으로 계획하고, 매산리사지 즉 미륵당 일대에 존재했던 태평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이 일대는 지역경제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선시대의 원은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활용의 범위도 숙박, 음식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능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면 아무리 멀다 해도 사람들은 애써 그곳

을 방문한다. 반면 접근성이 좋다고 해도 매력 없는 장소를, 유적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죽산면 그 가운데서도 죽산리는 ‘봉업사지 광역권’과 체험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문화유산에 국한된 단조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죽산면(죽산리에 집중), 봉업사지와 죽주산성, 태평원과 영남길을 연계하는 ‘봉업사지 광역권’은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문화·불교·인물·민속·농촌체험 등 여러 분야 콘텐츠를 두루 갖추고 있다. 콘텐츠는 성장동력인 동시에 파급효과 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봉업사지 광역권’을 무대로 보존·체험·활용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은 증가하고 숙박까지 확장되는 답사, 여행으로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하므로 이를 고려한 과업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9. 종합의견

- 안성 봉업사지는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高麗史)에 광종이 병자년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 태조의 진영을 안치하였다. 공민왕 12년2월 청주에서 출발한 어가가 이 절에 들러 진전을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석탑이 남아 있다.” 는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어진을 모신 진전사원임을 알 수 있다.**
- 안성 봉업사지는 탑이 잔존하여 절터인 것은 알고 있었으며, 지역명을 붙여 죽산리사지로 불리어 왔으나, 1966년 오층석탑 주변에서 향로와 향완, 청동북이 발견되었고 이 유물에 봉업사(奉業寺)라고 적혀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 이곳이 봉업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 안성의 죽산은 삼국시대부터 남북으로는 서울-청주, 동서로는 충주-평택의 교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특히 죽주는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왕건때부터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죽주지방**을 거점으로, 광종 때에는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서 죽주를 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거는 죽주 지역 주변에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들(죽산리 사지, 매산리사지, 장명사지, 칠장사 등등)과 망이산성, 죽주산성 등은 **경기도 남부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안성 봉업사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2004년, 2018년, 2022년의 5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탑을 중심으로 한 주불전 영역, 이와 연접하여 승방구역, 북서측의 추정 진전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불전 영역을 남측부터 중문지-오층석탑-금당지-강당지로 연결되는 1탑1금당의

전형적인 고려시대 배치형태를 띄고 있으며, 출토 유물로 비정할 때, 고려 광종때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 진전 영역은 주불전의 북서측에 위치하며, 중심건물을 동서 회랑이 두르고 중심건물 남측으로 남회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건물군 전체를 두르는 외곽 담장이 있어 독특하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출토 유물에서도 준풍4년(광종4년, 963년), 건덕5년(광종18년, 967년)이 확인되어 고려 광종때, 중심사역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음을 부여주고 있다.

- 진전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파주 혜음원지와 개성 만월대의 사례를 통해 보면, 파주 혜음원지는 내담을 둘러 영역을 구분한다는 점, 동서 회랑을 두르고 중심 영역 남측에 회랑을 두고 외곽으로 내담을 둘러 독립적인 특별한 영역을 만드는 점이 유사하며, 개성 만월대의 경령전의 사례에서도 진전영역인 경령전이 북서측에 위치하며, 중심건물지를 회랑이 두르고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구성된 점을 볼 때, 충분히 진전 영역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 봉업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양하다.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이 있으며, 기와류는 11~12세기를 주 편년으로 하는 치미 ,용두, 암키와·수키와(연화문 당초문, 귀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와류 중에 중요한 명문화가 상당수 출토되어 준풍(峻豐), 건덕(乾德), 태평흥국(太平興國), 흥국(興國)등이 출토되어 봉업사지의 주요 창건연대가 10~11세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찰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의례용구로 청동북(봉업사 명 각인되어 있음), 청동 향로(보물), 향완, 청동 쌍사자 광명대, 금제 사리병과 납석제 외향아리 등은 당시 봉업사지의 위세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와같이 안성 봉업사지는 기록, 입지, 특징, 발굴현황,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시대 사찰의 특징과 진전 사원으로서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고성 동외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성 동외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경남기념물)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404-1 일원
- (3)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54필지 30,633㎡(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4) 관리단체(안) : 고성군수
- (5) 신청사유
  - 2~6세기 삼한·삼국(가야)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생활유적으로 패총, 주거지, 환호, 성토구조물 등 복합적인 생활유적으로 가치가 높음.

### 라. 참고사항

- (1) 사적 지정 추진경과
  -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1974.12.28.) : 「고성 동외동 패총」 (18,916㎡)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10.06.)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023.10.23.)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3.11.14.)
  - 현지조사 의견에 따른 보완요청(문화재청→경남, 고성 : 2023.11.24.)
  - 보완자료 제출(2024.01.09.)
- (2) 현지조사의견('23.11.14./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동외동유적은 기원전후의 원삼국시대부터 6세기 전반의 가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소가야 최고지배층의 생활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 동외동유적의 국가지정(사적)신청보고서에는 고자국 시기부터 소가야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유적으로서 환호, 패총, 제철유적, 성토 구조물에 의한 대지 확보 및 방어취락,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에 의한 대외교류 등 유적의 조성 기간과 성격, 구성, 출토 유물 등에 의한 특성들을 통한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제시되었으나
- 동외동유적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에 분포된 유적들과의 관계, 소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인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동외동 유적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소가야 중심 정치세력 집단의 성장 과정과 성격, 동외동유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적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고성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실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정신청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함.
- 동외동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설정 제시되어야 함.

### (3) 보완자료에 대한 의견('24.01.14./문화재위원 ○○○)

- 고성 동외동유적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삼한의 고자국에서 삼국의 소가야문화권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교류네트워크의 성격과 거점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 고성 동외동유적과 비슷한 시기와 성격의 유적으로서 해남 군곡리패총, 창원 성산패총, 김해 봉황대유적, 부산 동래패총 등이 분포하는데, 유적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례로는 김해 봉황대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 그리고 고성 동외동유적이다.
- 김해 봉황대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과 함께 가치를 상승시켜 가고 있음.
- 위의 유적들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고성 동외동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고대 남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의 성립 및 성장 과정과 교류네트워크의 복원, 그리고 유적의 보호와 함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성 동외동유적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사적 지정 신청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지정 신청 보고서에 동외동유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외동패총이 반복적으로 표기된 곳은 동외동유적으로 통일되어야 함.

- 고성 동외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안)(653쪽)의 내용은 사적지정 후, 별도의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제시되어야 하지만, 지정 신청 보고서에는 현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 기준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4) 보완자료에 대한 의견('24.01.22./문화재위원 ○○○)

- 동외동유적은 고자국 시기부터 소가야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된 유적으로서 환호, 패총, 제철유적, 성토 구조물에 의한 대지 확보 및 방어취락,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에 의한 대외교류 등 유적의 조성 기간과 성격, 구성, 출토 유물 등에 의한 특성들을 통한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제시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요구한 자료보완에 대하여 많은 보충을 하였으나,
- 동외동유적은 당시의 생활유적에 속한다. 그럼 당대의 매장유적은 어디에 존재하며, 이후 고성 송학동고분군 조성시의 생활유적은 어디인지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가야의 왕성은 어디이며, 동 유적과 왕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 고성송학동고분군의 조성 역시 외곽에서부터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고분군의 생활유적은 어디인지?
  - 동외동유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송학동패총과 고성읍성 내의 삼한시대 유적 등과의 연결성은 무엇인가.
  - 동외동유적의 하단 외부에서 일부 확인된 소가야토기 사용집단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을 동 유적의 마지막 활용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 동 유적이 지니는 성격에서 만립산토성과 남산토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그리고 김해 봉황동이나 창원 성산패총의 경우 패총, 환호 외에도 성곽 유적이 같은 구릉상에 시기차를 두고 결합되는 양상인데 동외동유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3명 / 제척 1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자   | 2023.11.14 (화) 대상 문화재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                                |        |        |
| 조사자  | 성명   | 전공분야                           | 소속     | 직위(직책) |
|  | ○○○  | 고고학                            | ○○대학교  | 교수     |
|  | ○○○  | 성곽                             | 문화재위원회 | 위원     |
|  | ○○○  | 건축사                            | 문화재위원회 | 전문위원   |
| 주요<br>지정<br>사항<br>검토   | ①문화재 종별                                    | 사적                             |        |        |
|  | ②문화재 명칭                                    |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        |        |
|  | ③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④연혁·유래<br>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⑤지정 가치<br>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⑥지정 대상<br>및 범위                             |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보호물 >  |  |                                |        |        |
| < 보호구역 >   |  |                                |        |        |
| 보호<br>관리<br>사항<br>검토   | ⑦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안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⑧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align="right">2023년 11월 14일</p> <p>제출자 : 문화재위원 ○○○ · ○○○<br/>문화재전문위원 ○○○</p> <p align="right">문화재청장 귀하</p> |  |                                |        |        |

##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11.14(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남 고성 동외동에 위치하는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복합 유적으로서 지역명+유적명인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성읍의 중심부 동쪽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현지형을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 동외동유적은 고성읍 중심지에서 동쪽에 치우쳐 위치하는 해발 약 32.5m의 저구릉으로, 頂部는 평면 원형의 편평한 지형을 이룬다.
- 동외동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얼핏 독립구릉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산에서 이어지는 능선에서 다시 뻗어나온 낮은 구릉이다. 명칭은 ‘동외리패총’, ‘고성패총’, ‘당산패총’이라고도 불린다. 패총이 위치하는 이 구릉을 지역에서는 ‘堂山’이라 불리는데, 과거에는 음력 선달그믐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었다.
- 고성은 주지하다시피 해안을 沿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촌락이 바다를 끼고 조성되어 있거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외동 유적의 주변으로는 낮은 충적평야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고, 동외동유적이 해안선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위치한다. 하지만 해안선이 현재보다 훨씬 상승했던 고대에는 현재의 고성읍의 평야지대인 동외리, 죽계리, 대평리 지역은 농경을 할 수 없는 저지대 또는 바다였을 것이다.
- 고성읍은 현재의 대가저수지 축조 이전까지만 해도 治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많을 때에는 침수되거나 뺄 층을 이루었다고 한다.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패각 중에는 海水性貝殼이 많고, 海獸骨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관은 바다 혹은 潮汐의 영향을 받는 연안의 구릉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灣은 良港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 현재 도기념물로 지정된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 중위까지는 텃밭 등의 밭경작지로 이용중이며, 그 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구릉 말단부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로확장공사 및 주택 건축으로 지속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동외동패총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유적의 확인과 짧은 일정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유물수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도기념물 지정범위 내에는 1969·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3차례 조사,<sup>1)</sup>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1974년의 동아대학교박물관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동외동패총 문화재지정범위 주변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택 및 상가건설,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표본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문화재지정범위 및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현황이다.

동외동패총 조사일람

| 연번 | 조사년도        | 조사내용   | 보고서명                                       | 조사기관                      |
|----|-------------|--|--|---------------------------|
| 1  | 1914        | 동외동패총 확인   | 보고서 미간                                     | 朝鮮總督府<br>鳥居龍藏             |
| 2  | 1917        | 1914년 조사에서 확인했던 동외동패총을 발굴조사하고, 유물을 수습함. 이때 수남리패총을 함께 발굴조사함.  | 보고서 미간                                     | 朝鮮總督府<br>鳥居龍藏             |
| 3  | 1969 ~ 1970 | 김해토기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구릉의 서남사면을 조사.<br>표토와 생토층을 제외한 4개층(표토(경작토, 갈색부식토)-흑갈색점질토(1층)-갈색부식토+패각층(2층)-흑색사질점토(3층)-4층-생토)의 포함층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br>트렌치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 『固城貝塚』                                     | 國立中央<br>博物館               |
| 4  | 1974        | 천도교 교당건설공사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조사를 실시.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및 야철지가 확인. 유물은 청동검과 두식·광형동모·漢鏡 및 印文陶·弥生土器 등의 외래계유물이 출토. 그 외 삼한~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골각기가 출토.                           | 『上老大島』<br>「固城東外洞貝塚」                        | 東亞大學校<br>博物館              |
| 5  | 1995        | 동외동패총 정상부의 평탄지와 사면을 가,나,다지구로 나누어 발굴하여, 정상부에 제사시설, 동사면에 居住域, 남서사면에 묘역 및 철생산시설, 폐기장[패총]이 존재하였음을 파악하고, 일정한 공간구획이 있었음을 확인.                                   | 『固城東外洞遺蹟』                                  | 國立晉州<br>博物館               |
| 6  | 2003        | 조사지점은 동외동패총 구릉의 북사면 끝자락인데, 절토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어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 「固城 東外里 貝塚 周邊<br>建築行爲에 對한 文化財<br>試掘調査」略報告書 | 慶南發展<br>研究院<br>歷史文化<br>센터 |
| 7  | 2004 ~ 2005 | 고성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삼국시대 수혈3기와 고상건물지1  | 『固城地域 調査』<br>「固城 東外里遺蹟」                    | 慶南考古學<br>研究所              |

1) 제1·2차 조사는 트렌치조사, 제3차 조사는 주변 지표조사.

| 연번 | 조사년도 | 조사내용   | 보고서명  | 조사기관     |
|----|------|--|---|----------|
|    |      | 동, 조선시대 수혈1기가 조사되어, 동외동패총의 동외동패총의 구릉 말단부까지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 發掘調査 報告書」   |          |
| 8  | 2014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조성으로 절토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고성읍 동외리 228-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9  | 2014 | 현 발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암반생토층 확인되었으며,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고성읍 동외리 2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0 | 2016 |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와 패각층, 조선시대 논층이 확인되었으며, 수습조사하여 완료.                              |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1 | 2016 |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2 | 2017 | 주차장 조성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고성 동외리 238-2번지 주차장 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3 | 2017 |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수혈 6기, 구상유구 4기, 주혈18개가 조사.                                      | 「고성 동외리 (247)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 해동문화재연구원 |
| 14 | 2018 | 동외리 249번지에서 제철 관련 추정제철로와 철재편·노벽편 확인함.  |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5 | 2021 | 동외리 255-1번지 일원. 조사결과 삼한~삼국시대 패총 1기,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됨. |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6 | 2022 | 삼한시대 대지조성층 1개소를 비롯해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12동, 수혈 26기, 구상유구 1기, 패총 1기 등이 확인                  | 「고성 동외동패총(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      | 243-2번지 일원 조사결과, 1-3·4·5·6·7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주혈, 2-1·2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수혈 2기 확인.                         | 「고성 동외동패총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
|    |      | 257-5번지외9필지. 조사결과, 1-1·3·4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수혈 3기, 2-1·2트렌치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 3-1트렌                   | 「고성 동외동패총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

| 연번 | 조사년도 | 조사내용                        | 보고서명  | 조사기관     |
|----|------|-----------------------------|---|----------|
|    |      | 치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가 확인.       |   |          |
| 17 | 202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406번지 외 1필지 |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연번3~5·14는 사적지정범위내 조사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동외동 유적의 보편적 가치

고성지역에는 삼국시대 소가야 지배층의 고분군으로서 송학동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군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위계와 문화적 특징이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나마 동외동유적에 대한 수희의 조사는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성을 포함한 서부 경남 해안지역의 가야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쪽의 마산만에서 서쪽으로 여수반도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에 고성 동외동유적에 버금갈 수 있는 삼국시대 생활유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동외동 유적은 다양한 성격의 생활 유구들과 함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와 유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면, 변한·가야사회의 생활문화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 시기와 발전 양상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지역은 소가야연맹 또는 소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송학동고분군과 더불어 동외동유적은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다.

송학동고분군은 과거의 개발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라졌고, 특정 시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동외동유적 또한 주변 일대가 개발되어 변한~가야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는 다수의 자료들이 유존되어 있다. 특히 외피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는 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사가 전무하여 변한 및 가야 전기의 양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들은 이를 메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소가야권에서 조사된 생활유적들은 사천 봉계리 유적, 진주 안간리와 평거동 유적 등 주거지와 경작유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취락들을 통해 변한 및 소가야 정치체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구명하기에는 고성 동외동유적에 미치지 못한다.

동외동 유적에는 구릉 정상부의 의례시설, 광장, 주거군, 그리고 이 시설들을 감싸고 있는 방어시설로서의 환호 등은 변한과 가야기 지배층의 존재 및 위상을 표상하는 모습일 수 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 동 시기의 생활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에는 주거군, 창고군, 접안시설 등이 확인되어 구야국~금관가야 지배층의 공간으로서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창원 성산패총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만 실시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현실이다.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변한~가야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생활유적은 고성 동외동유적뿐이다.

#### ○ 동외동유적의 독특성

##### - 삼한·삼국시대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동외동 유적은 소가야의 前史인 古自國부터 이 지역에서 대외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을 상징하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해양교류를 통해 성장한 해상세력의 모습과 당시의 해양네트워크를 밝힐 수 있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 - 최고지배층의 해외 교역품이 확인된 중요한 유적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 2~3세기의 외래계 유물로는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왕망의 신나라 화폐인 ‘대천오십’, 한경(漢鏡), 낙랑계 가락바퀴, 수레 부속구인 개궁모(蓋弓帽), 조문청동기(鳥文靑銅器) 등을 비롯하여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청동 허리띠 고리 장식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 왜는 물론 중국, 낙랑과의 해상교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 - 다중방어시설로서의 환호와 대지조성층이 확인된 유적

동외동 유적은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면서 삭토하거나 성토하여 段을 지게 하여 계단식 방어시설을 만들고 환호로 둘러싼 高地性 마을 유적이다. 그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기 2~4세기에 걸친 남해안지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 - 고자국의 시작과 소가야 멸망까지 연결된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

아울러 정상부의 아랫단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취락에서는 4세기대의 소가야 유물과 함께 대지조성층, 제철 관련 유구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은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의 독특성도 가지고 있다.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 2~3세기의 야요이계 토기들은 경기도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품을 제외하면, 한반도,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 그 수량은 매우 희소하다. 현재까지 남해안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 이 시기의 외래(계) 자료가 희소한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 유적 출토 외래계 자료들은 이 시기의 해양 교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변한 소국들이 주변의 집단들을 통합하여 보다 큰 정치체로 발전하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이 전환기에 있어 대외교류가 정치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동외동 유적에 다수 존재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적은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의 독특성도 가지고 있다. 기원 1~3세기 남해안을 무대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집단의 해양 교류의 모습, 특히 녹도 등 도서지역의 해양 국제교류의 중개기지 역할이 쇠퇴하고, 그 대안으로서 연안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동외동 유적에 잘 드러나는 점은 이 시기 해양 국제교류의 변화 실상 이해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가

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확산 등의 양상 해명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주요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동외동 유적은 경상남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남해안의 핵심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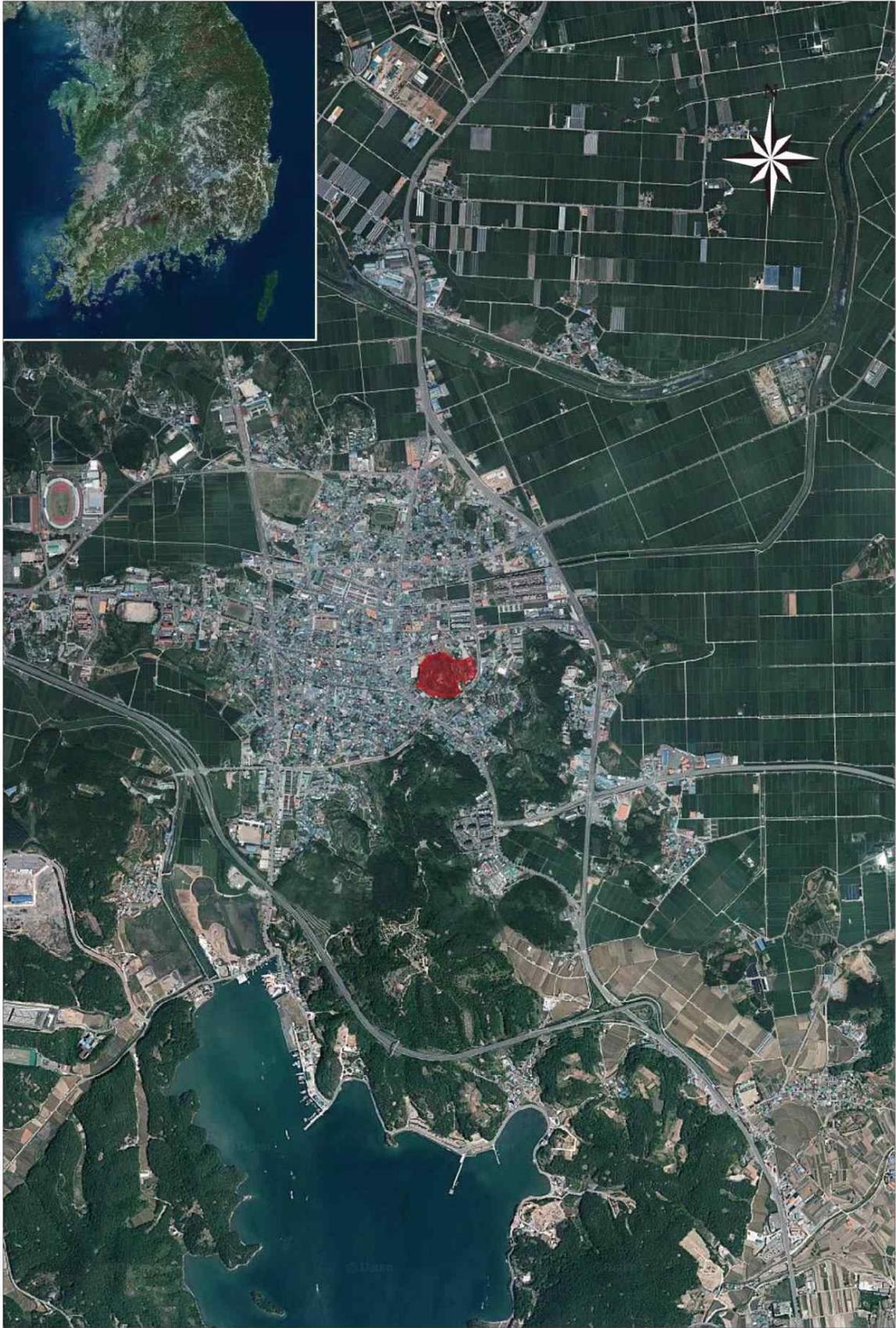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 54필지 30,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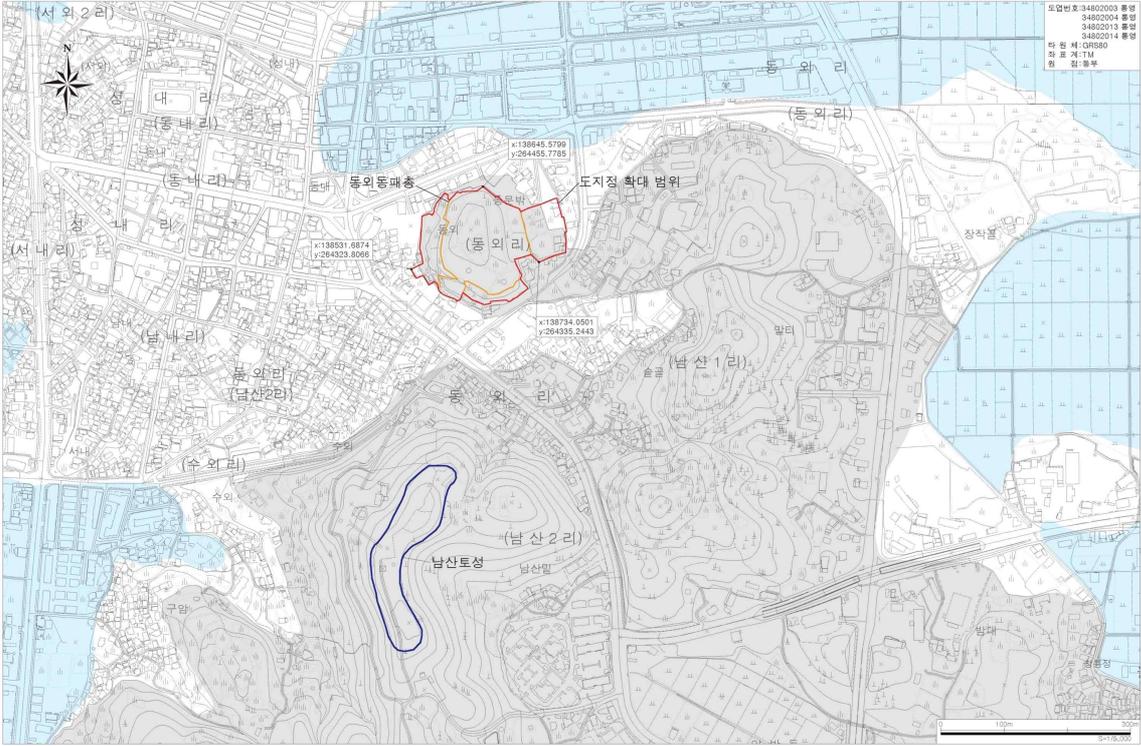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고성읍 동외리 | 255-2 | 전  | 1,038 | 1,038   |     |    |
| 2  | 고성읍 동외리 | 237   | 묘지 | 1,382 | 1,382   |     |    |
| 3  | 고성읍 동외리 | 255-1 | 전  | 721   | 721     |     |    |
| 4  | 고성읍 동외리 | 254-1 | 전  | 1,686 | 1,686   |     |    |
| 5  | 고성읍 동외리 | 255-3 | 전  | 843   | 843     |     |    |
| 6  | 고성읍 동외리 | 253-1 | 전  | 1,415 | 1,415   |     |    |
| 7  | 고성읍 동외리 | 254-2 | 전  | 780   | 780     |     |    |
| 8  | 고성읍 동외리 | 254-3 | 전  | 856   | 856     |     |    |
| 9  | 고성읍 동외리 | 253-2 | 전  | 1,498 | 1,498   |     |    |
| 10 | 고성읍 동외리 | 252   | 전  | 757   | 757     |     |    |
| 11 | 고성읍 동외리 | 249   | 전  | 1,183 | 1,183   |     |    |
| 12 | 고성읍 동외리 | 250-2 | 묘지 | 165   | 165     |     |    |
| 13 | 고성읍 동외리 | 250-1 | 전  | 1,901 | 1,901   |     |    |
| 14 | 고성읍 동외리 | 251   | 전  | 2,198 | 2,198   |     |    |
| 15 | 고성읍 동외리 | 404-1 | 전  | 1,187 | 1,187   |     |    |
| 16 | 고성읍 동외리 | 406   | 전  | 1,306 | 1,306   |     |    |
| 17 | 고성읍 동외리 | 255-4 | 전  | 479   | 479     |     |    |
| 18 | 고성읍 동외리 | 255-6 | 전  | 112   | 112     |     |    |

|    |            |       |    |       |       |  |  |
|----|------------|-------|----|-------|-------|--|--|
| 19 | 고성읍<br>동외리 | 257-1 | 전  | 165   | 165   |  |  |
| 20 | 고성읍<br>동외리 | 257-2 | 전  | 165   | 165   |  |  |
| 21 | 고성읍<br>동외리 | 257-3 | 전  | 175   | 175   |  |  |
| 22 | 고성읍<br>동외리 | 257-5 | 전  | 330   | 330   |  |  |
| 23 | 고성읍<br>동외리 | 255-5 | 전  | 1,084 | 1,084 |  |  |
| 24 | 고성읍<br>동외리 | 257-4 | 전  | 556   | 556   |  |  |
| 25 | 고성읍<br>동외리 | 256   | 전  | 902   | 902   |  |  |
| 26 | 고성읍<br>동외리 | 260-2 | 대  | 319   | 319   |  |  |
| 27 | 고성읍<br>동외리 | 260-3 | 도로 | 32    | 32    |  |  |
| 28 | 고성읍<br>동외리 | 404-5 | 잡  | 152   | 152   |  |  |
| 29 | 고성읍<br>동외리 | 404-6 | 전  | 162   | 162   |  |  |
| 30 | 고성읍<br>동외리 | 405   | 묘지 | 912   | 912   |  |  |
| 31 | 고성읍<br>동외리 | 407   | 전  | 241   | 241   |  |  |
| 32 | 고성읍<br>동외리 | 408   | 전  | 549   | 549   |  |  |
| 33 | 고성읍<br>동외리 | 408-2 | 전  | 226   | 226   |  |  |
| 34 | 고성읍<br>동외리 | 244   | 전  | 495   | 495   |  |  |
| 35 | 고성읍<br>동외리 | 244-1 | 전  | 372   | 372   |  |  |
| 36 | 고성읍<br>동외리 | 244-2 | 전  | 376   | 376   |  |  |
| 37 | 고성읍<br>동외리 | 243   | 전  | 1,021 | 1,021 |  |  |
| 38 | 고성읍<br>동외리 | 243-2 | 전  | 458   | 458   |  |  |
| 39 | 고성읍<br>동외리 | 243-3 | 전  | 104   | 104   |  |  |
| 40 | 고성읍<br>동외리 | 242-7 | 전  | 1     | 1     |  |  |
| 41 | 고성읍<br>동외리 | 242-3 | 전  | 96    | 96    |  |  |
| 42 | 고성읍<br>동외리 | 242-4 | 전  | 385   | 385   |  |  |

|    |            |       |   |        |        |  |  |
|----|------------|-------|---|--------|--------|--|--|
| 43 | 고성읍<br>동외리 | 242-6 | 전 | 27     | 27     |  |  |
| 44 | 고성읍<br>동외리 | 243-4 | 전 | 21     | 21     |  |  |
| 45 | 고성읍<br>동외리 | 243-1 | 전 | 39     | 39     |  |  |
| 46 | 고성읍<br>동외리 | 245   | 전 | 262    | 262    |  |  |
| 47 | 고성읍<br>동외리 | 245-1 | 전 | 244    | 244    |  |  |
| 48 | 고성읍<br>동외리 | 245-2 | 전 | 244    | 244    |  |  |
| 49 | 고성읍<br>동외리 | 245-3 | 도 | 93     | 93     |  |  |
| 50 | 고성읍<br>동외리 | 241-7 | 도 | 72     | 72     |  |  |
| 51 | 고성읍<br>동외리 | 242-5 | 전 | 225    | 225    |  |  |
| 52 | 고성읍<br>동외리 | 242-2 | 대 | 225    | 225    |  |  |
| 53 | 고성읍<br>동외리 | 242-1 | 대 | 226    | 226    |  |  |
| 54 | 고성읍<br>동외리 | 242   | 전 | 170    | 170    |  |  |
| 계  |            |       |   | 30,633 | 30,633 |  |  |



동외동 유적 위성사진( ■ :동외동 유적)





동외동 유적과 고성읍 전경(1) 및 동외동 유적 주변 전경(2)

(2018.6.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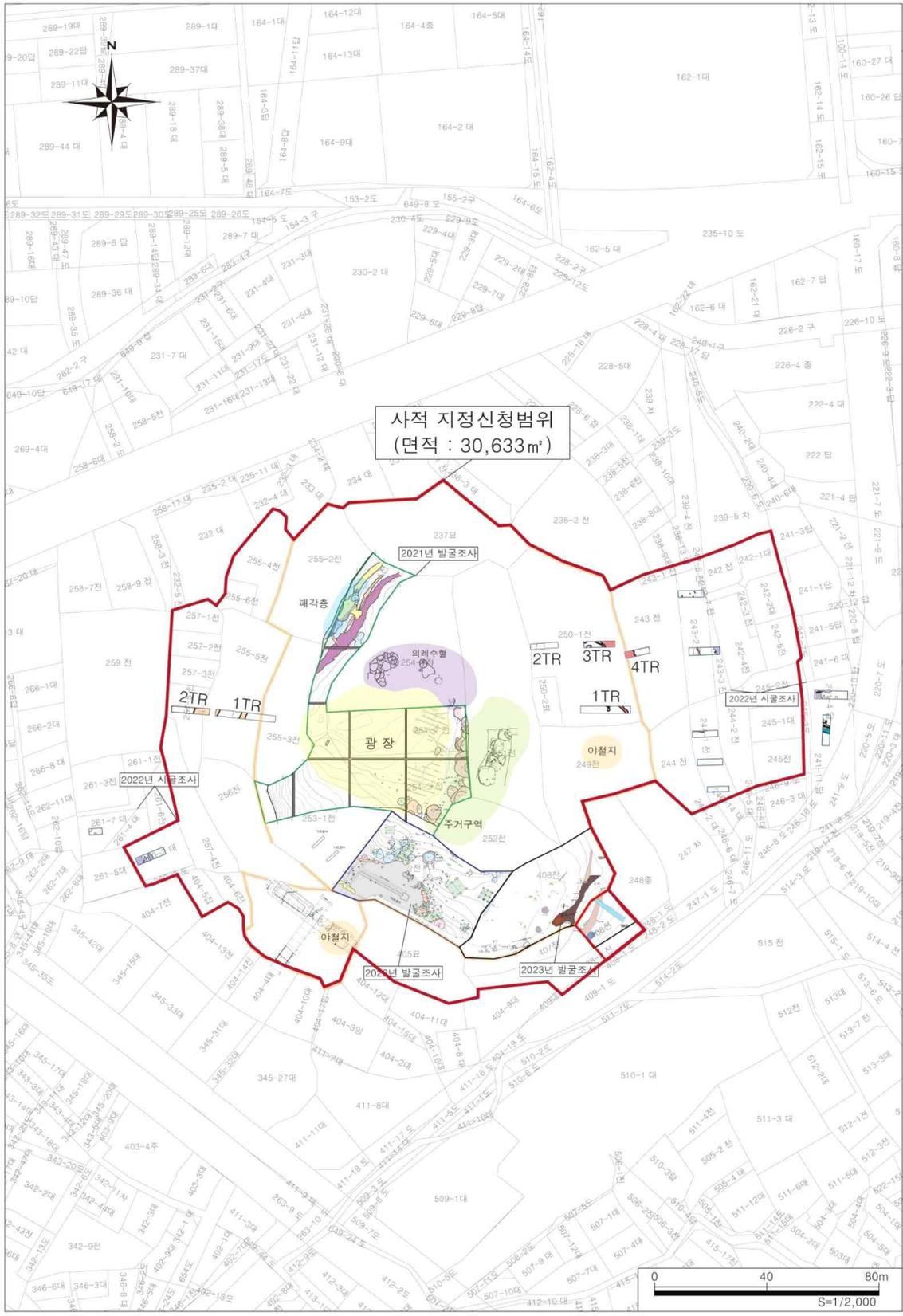
동외동 유적 공중사진1(1:서쪽에서, 2:남쪽에서)

(2018.6. 촬영)



동외동 유적 공중사진2(1:동쪽에서, 2:북쪽에서)

(2018.6. 촬영)



고성 동의동유적 사적지정 신청 범위 - 지적도



2021년도 발굴조사 공중사진(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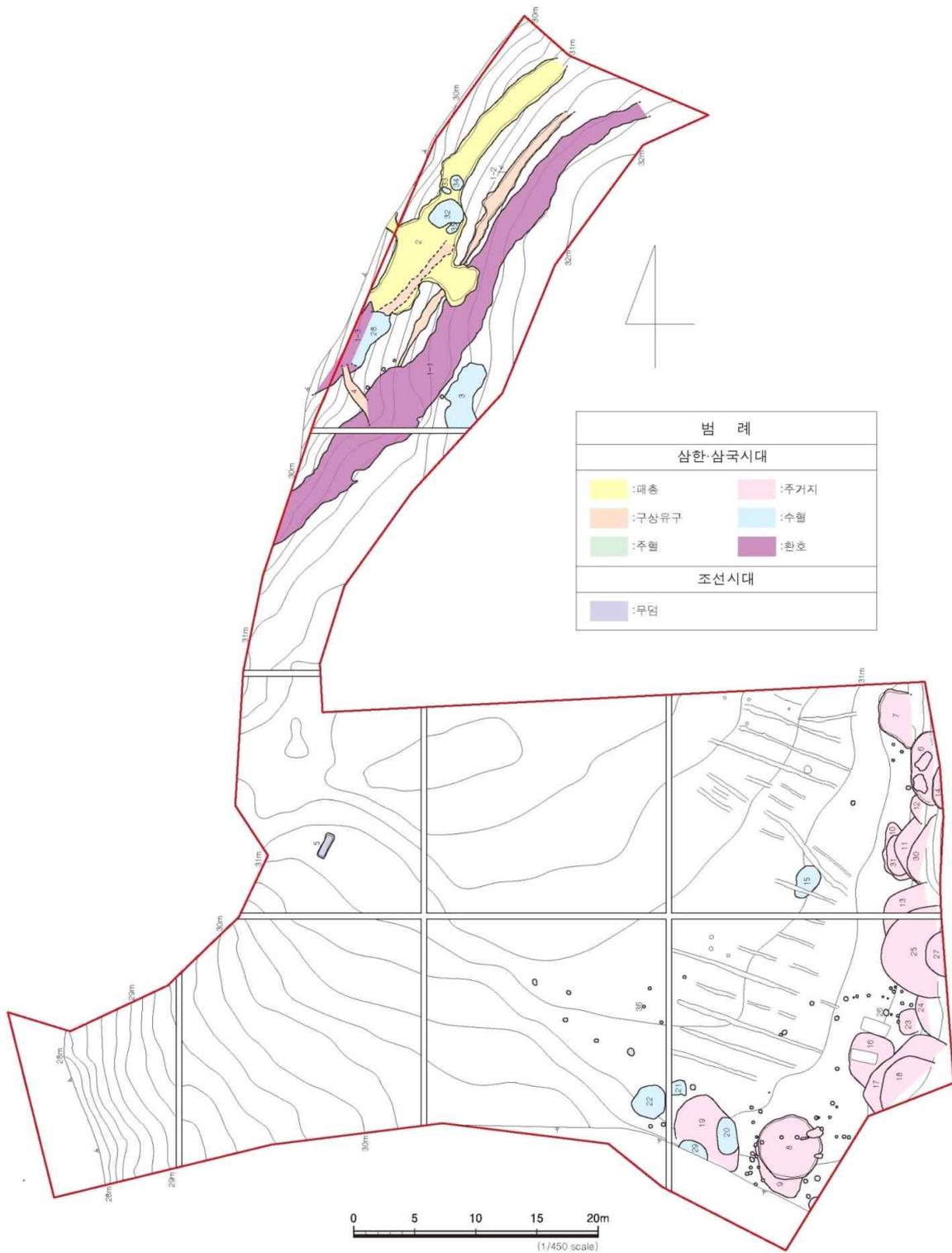
2021년도 발굴조사 - 환호와 패총(삼강문화재연구원)



2021년도 발굴조사 - 패총 조사중 전경 및 유물 노출상태(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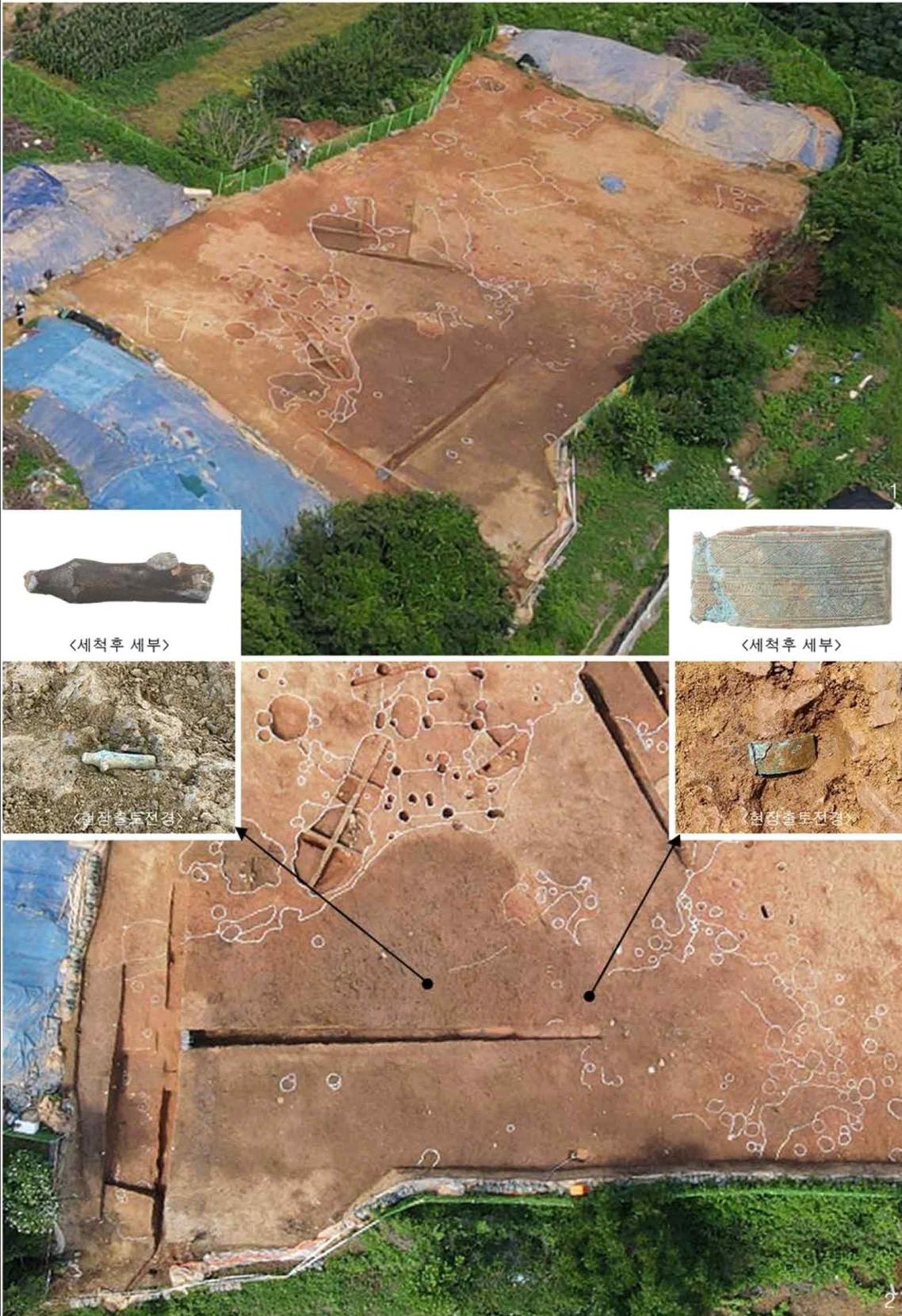
2021년도 발굴조사 - 패총 출토 패각의 종류(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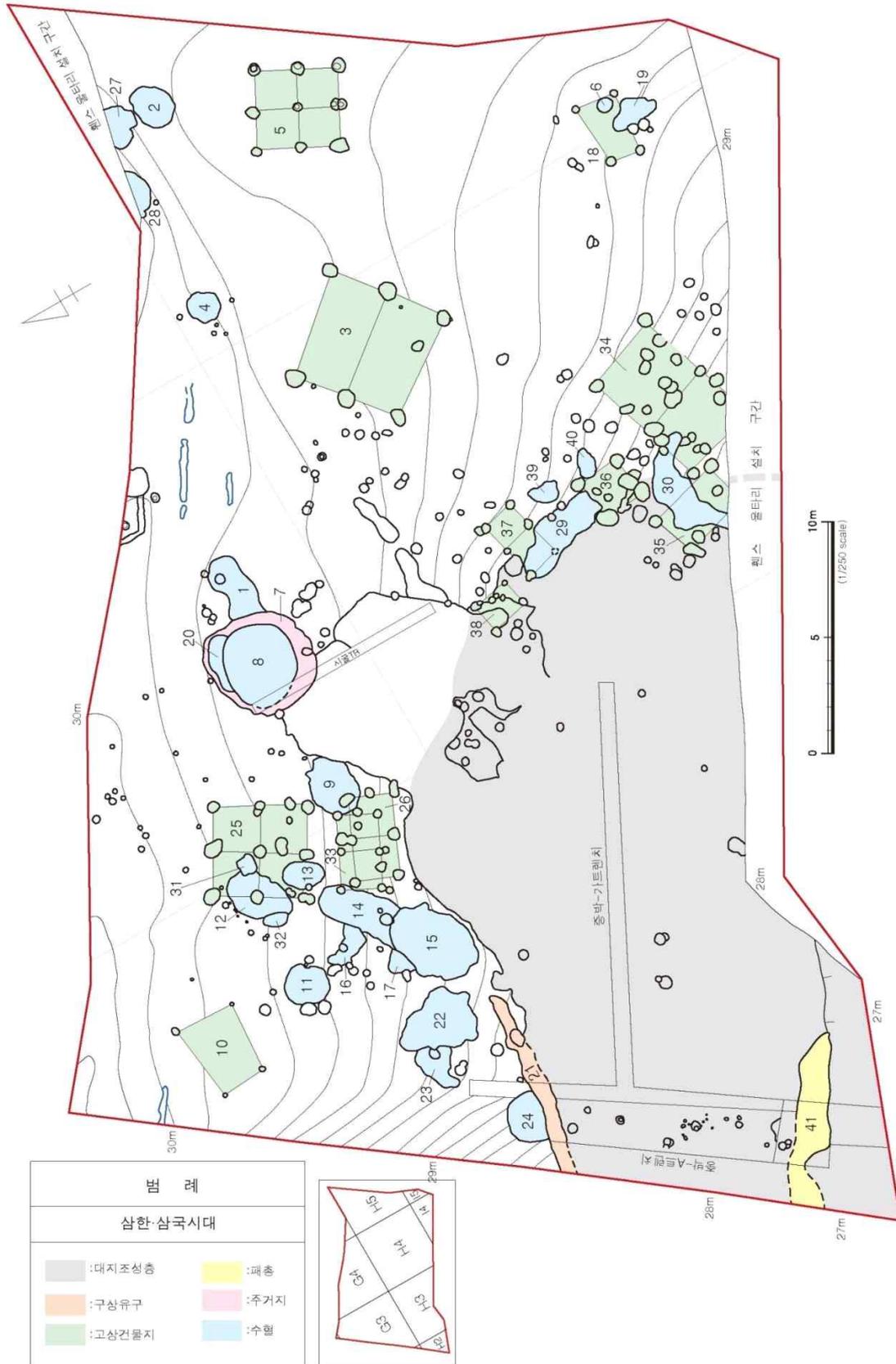
고성 동의동 유적(경남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유구배치도(삼강문화재연구원, 2021년)



고성 동외동 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22년)



2022년도 발굴조사 - 대지조성층 전경(1:남서쪽에서, 2:직상방)



고성 동외동 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유구배치도(삼강문화재연구원, 2022년)



고성 동외동 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경상문화재연구원, 2023년)



1호 주거지 토층 전경



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주거지 부뚜막 근경



주거지 상면 출토 의사점토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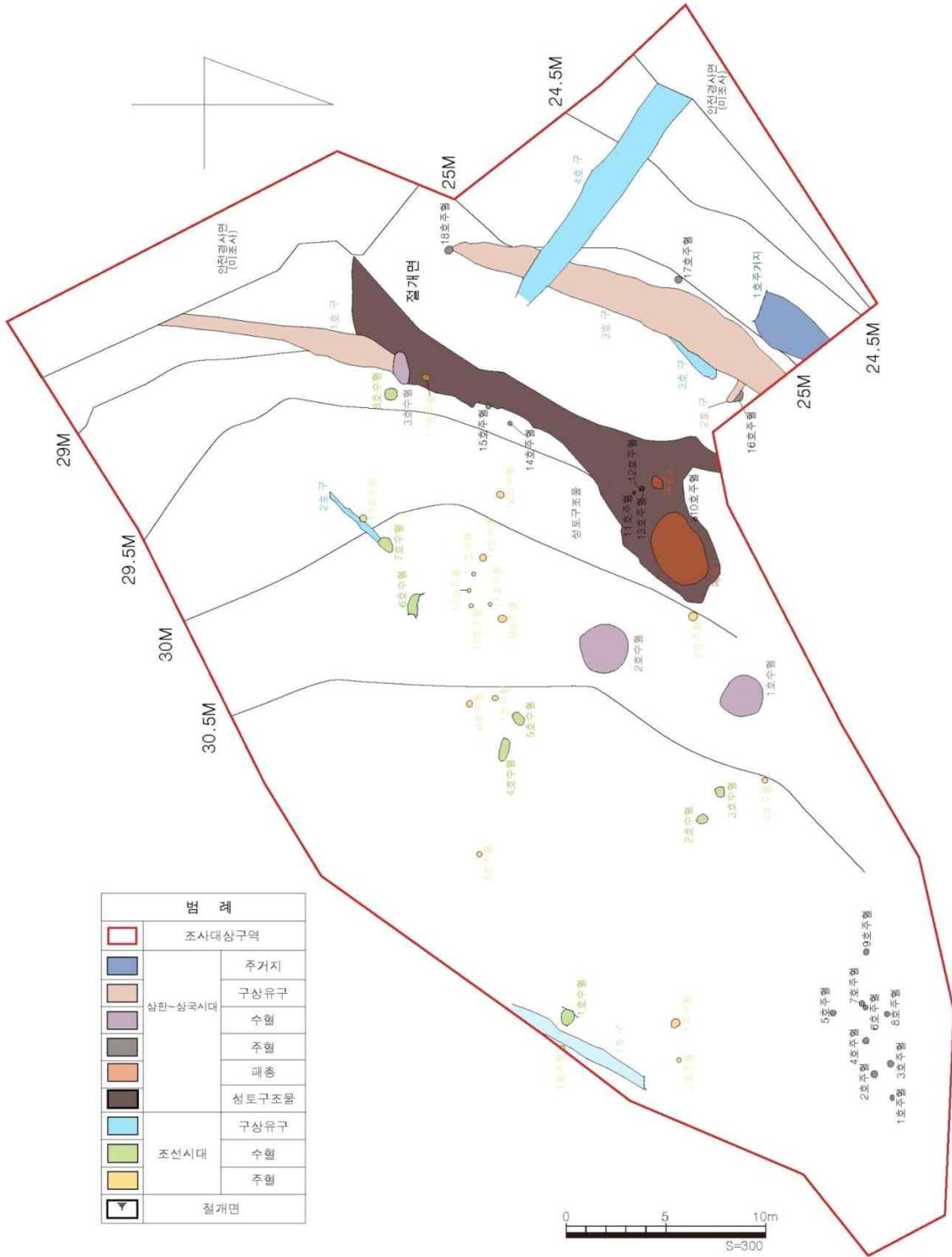


주거지 상면 출토 방추차



1호 수혈주거지 조사완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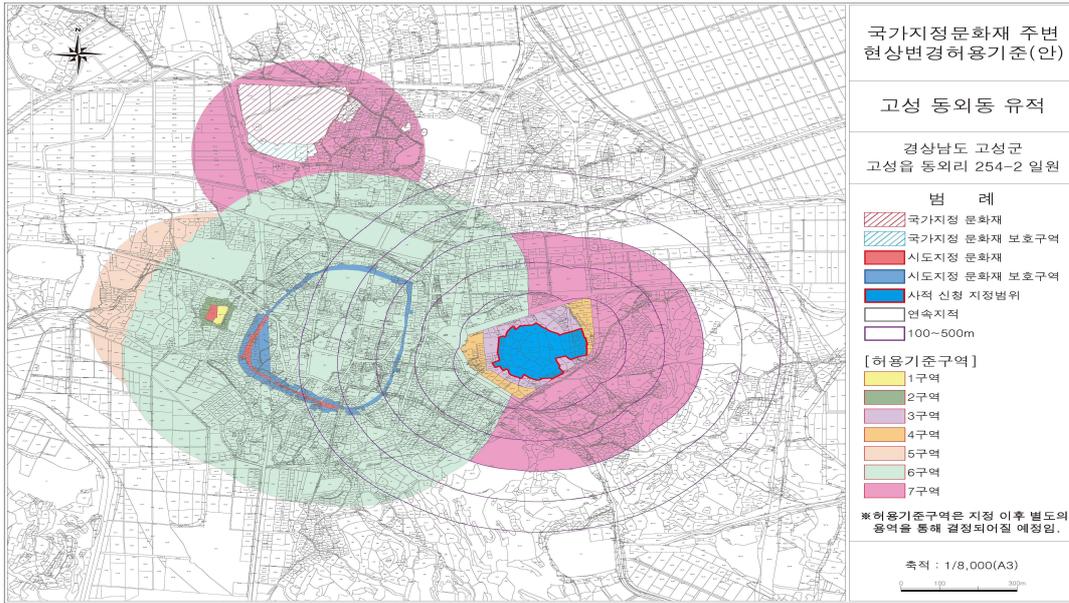
2023년도 발굴조사 1호 주거지 전경 및 출토유물(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 동외동 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유구배치도(경상문화재연구원, 2023년)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동외동 유적의 지형적 특성과 향후 유적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로를 기점으로 내부는 개별심의구역의 검토가 필요함.



| 구분   | 허용기준  |                   | 비고 |
|------|---|-------------------|----|
|      | 평슬라브  | 경사지붕              |    |
| 1구역  |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이내)   |                   |    |
| 2구역  | ○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
| 3구역  | ○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    |
| 4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    |
| 5구역  |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6구역  | ○ 고성읍성(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9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                   |    |
| 7구역  |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li> <li>○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li> <li>○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ul> |                   |    |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 문화재 보존·정비 계획

#### 1) 동외동유적 보존·정비 계획수립

고성군은 동외동유적의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수차례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의 부분적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유적 형성 당시의 범위, 유구의 성격과 분포현황 등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야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발굴결과를 통해, 향후 유적의 정비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정비방안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않다. 하지만 유적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원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동외동유적의 보존·정비는 기존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교육적 측면 및 관광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존·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유적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교육 및 관광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정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원형유지의 원칙(문화재보호법 제3조), 공개의 원칙(문화재보호법 제48조), 관리의 원칙이 있다. 때문에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형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적이 점차 훼손 중이므로,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적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발굴조사와 현장공개행사 실시

동외동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유적의 확인과 짧은 일정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유물수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도기념물 지정범위 내에는 1969·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3차례 조사,<sup>1)</sup>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1974년의 동아대학교박물관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동외동유적 문화재지정범위 주변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택 및 상가건설,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표본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화재지정범위 및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1) 제1·2차 조사는 트랜치조사, 제3차 조사는 주변 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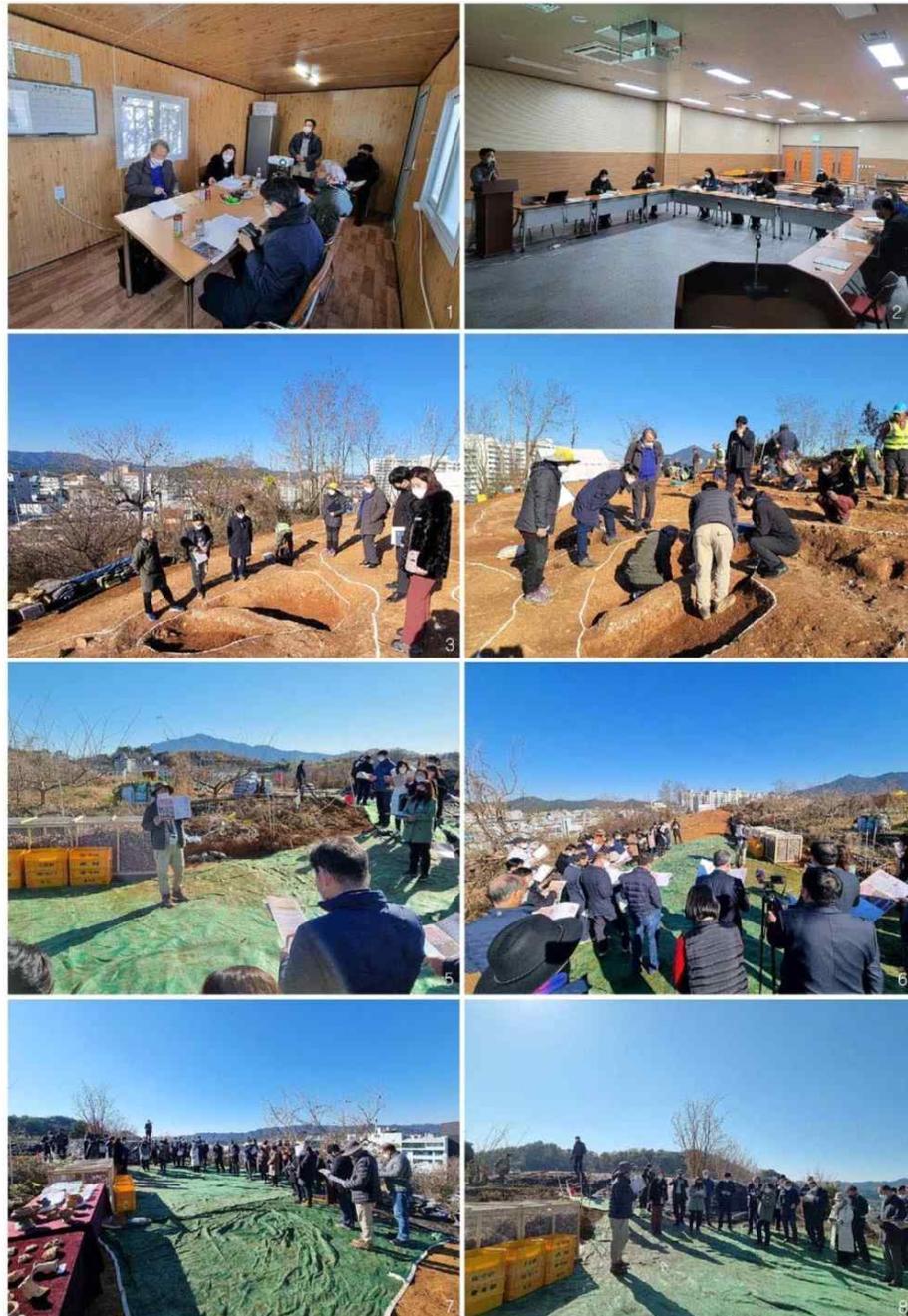
표 1. 동외동유적 조사일람

| 연번 | 조사년도           | 조사내용  | 보고서명  | 조사기관                      |
|----|----------------|---|---|---------------------------|
| 1  | 1914           | 동외동유적 확인  | 보고서 미간  | 朝鮮總督府<br>鳥居龍藏             |
| 2  | 1917           | 1914년 조사에서 확인했던 동외동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유물을 수습함. 이때 수남리 패층을 함께 발굴조사함.  | 보고서 미간  | 朝鮮總督府<br>鳥居龍藏             |
| 3  | 1969 ~<br>1970 | 김해토기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구릉의 서남사면을 조사.<br>표토와 생토층을 제외한 4개층(표토(경작토, 갈색부식토)-흑갈색점질토(1층)-갈색부식토+패각층(2층)-흑색사질점토(3층)-4층-생토)의 포함층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 트렌치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 『固城貝塚』  | 國立中央<br>博物館               |
| 4  | 1974           | 천도교 교당건설공사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조사를 실시.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및 야철지가 확인. 유물은 청동검과두식·광형동모·漢鏡 및 印文陶·弥生土器 등의 외래계유물이 출토. 그 외 삼한~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골각기가 출토.                         | 『上老大島』<br>「固城東外洞貝塚」                                   | 東亞大學校<br>博物館              |
| 5  | 1995           | 동외동유적 정상부의 평탄지와 사면을 가, 나, 다지구로 나누어 발굴하여, 정상부에 제사시설, 동사면에 居住域, 남서사면에 묘역 및 철생산시설, 폐기장[패층]이 존재하였음을 파악하고, 일정한 공간구획이 있었음을 확인.                              | 『固城東外洞遺蹟』   | 國立晉州<br>博物館               |
| 6  | 2003           | 조사지점은 동외동유적 구릉의 북사면 끝 자락인데, 절토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어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 「固城 東外里 貝塚<br>周邊 建築行爲에 對한<br>文化財<br>試掘調査」略報告書         | 慶南發展<br>研究院<br>歷史文化<br>센터 |
| 7  | 2004 ~<br>2005 | 고성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삼국시대 수혈3기와 고상건물지1동, 조선시대 수혈1기가 조사되어, 동외동유적의 동외동유적의 구릉 말단부까지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 『固城地域 調査』<br>「固城 東外里遺蹟<br>發掘調査 報告書」                   | 慶南考古學<br>研究所              |
| 8  | 2014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조성으로 절토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고성읍 동외리<br>228-7번지 근린생활시설<br>신축부지 내 문화재<br>시굴조사」약보고서 | 삼강문화재<br>연구원              |
| 9  | 2014           | 현 발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암반생토층 확인되었으며,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고성읍 동외리<br>236번지 근린생활시설<br>신축부지 내 문화재<br>시굴조사」약보고서   | 삼강문화재<br>연구원              |

| 연번 | 조사년도 | 조사내용   | 보고서명  | 조사기관     |
|----|------|--|---|----------|
| 10 | 2016 |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와 패각층, 조선시대 논층이 확인되었으며, 수습조사하여 완료.  |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1 | 2016 |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2 | 2017 | 주차장 조성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고성 동외리 238-2번지 주차장 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 13 | 2017 |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수혈 6기, 구상유구 4기, 주혈 18개가 조사.   | 「고성 동외리 (247)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 해동문화재연구원 |
| 14 | 2018 | 동외리 249번지에서 제철 관련 추정제철로와 철재편·노벽편 확인함.  | 「고성 동외동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5 | 2021 | 동외리 255-1번지 일원이며, 시·발굴 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 패총 1기,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됨.                       | 「고성 동외동유적(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6 | 2022 | 동외리 253-2번지 일원이며, 시·발굴 조사 결과 삼한시대 대지조성층 1개소를 비롯해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12동, 수혈 26기, 구상유구 1기, 패총 1기 등이 확인됨.                 | 「고성 동외동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7 | 2022 | 동외리 243-2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 결과 1지점에는 삼국시대 주혈과 조선시대 주거지 3동·도로 1기·수혈 3기·석축 1기·溝 2기·주혈이 확인되었고, 2지점에서는 삼국시대 수혈2기와 조선시대 주거지 2동이 확인됨. | 「2022년도 고성 동외동 유적 유적 범위 확인을 위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8 | 2022 | 동외리 257-5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 결과 1지점에서 삼국시대 수혈 3기와 조선시대 수혈 1기, 조선시대 구 5기가 확인되었고, 2지점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 3지점에서 삼한~삼국시대 구2기가 확인됨.      | 「2022년도 고성 동외동 유적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
| 19 | 2023 | 동외리 406번지 일원이며,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성토구조물 외 溝, 패총, 수혈, 주혈 등 총 57기의 유구가 확인됨.  |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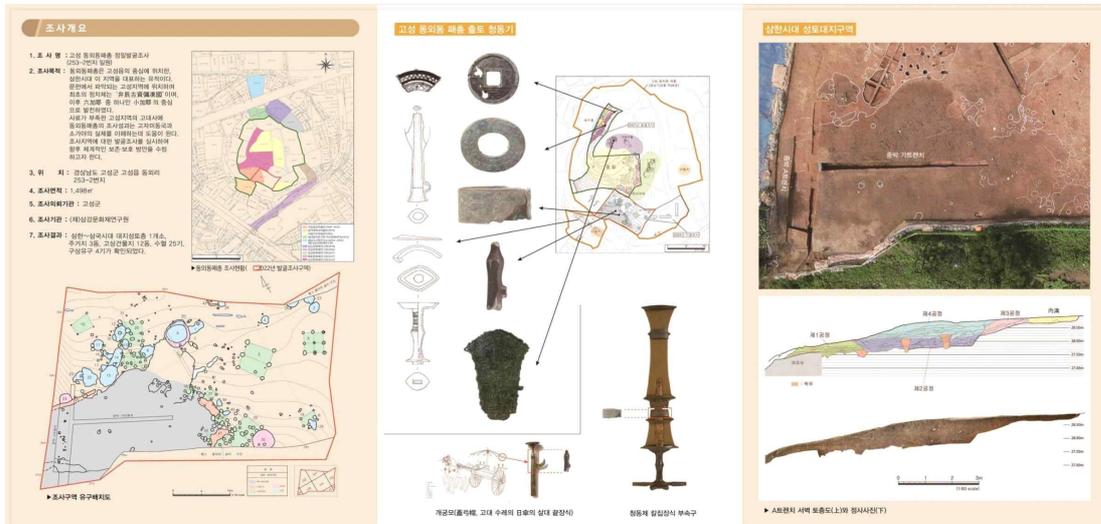
※ 연번 3~5·14는 사적지정범위내 조사

고성 동외동유적에 대한 연도별로 순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각 조사에 따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내용과 향후 보존정비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학술자문회의 외에도 관련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고성군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적에 대해 관심있는 연구자와 지역주민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발굴조사성과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년(동외리 255-1번지 일원) 발굴조사 후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공개설명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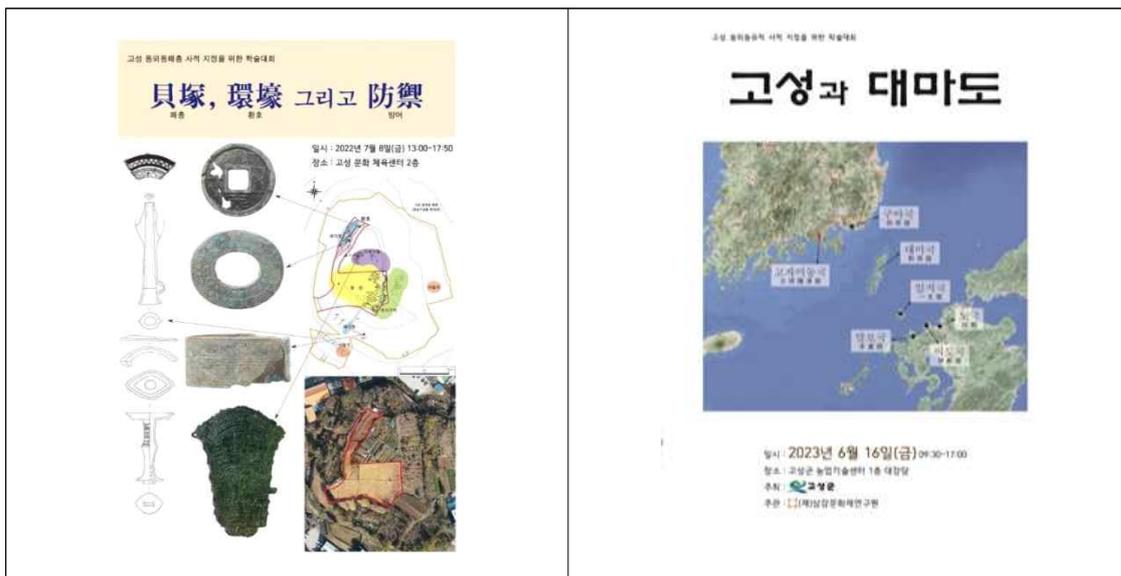


2022년(동외리 253-2번지 일원) 현장공개 브로셔

### 3) 학술심포지엄 개최

동외동유적은 일찍부터 그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함께 소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고성군은 보다 정확한 소가야사의 복원과 동외동유적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학술발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에는 “패총, 환호 그리고 방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의 조사성과에서 소가야-송학동고분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다. 2023년에는 보다 외연을 넓혀보고자 일본 대마도까지를 시야에 넣은 “고성과 대마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4) 동외동유적 정비 관리계획

##### (1) 정비방향과 정비계획

동외동유적에 대한 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하고, 가치를 손상시키는 인위적, 물리적 조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를 감안하여 수목정비, 경작지정비, 안내판 설치 등의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구릉을 중심으로 수목정비와 함께 식생조사가 필요하다. 잡목과 잡풀에 대한 벌목 및 제초작업을 통해 현 상태를 확인·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목제거 이전에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제거해야 할 수목, 보존해야 할 수목, 추가로 식재 할 수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최소한의 식생정비로 유적을 보존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이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적 내 경작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외동유적은 전체적으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계단식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적이 훼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유지매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군유지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작금지 안내판, 행정지도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군유지 또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토지에는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유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으로 그것에 맞게 안내판도 설치될 필요가 있다. 안내판에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유적의 현황과 특징,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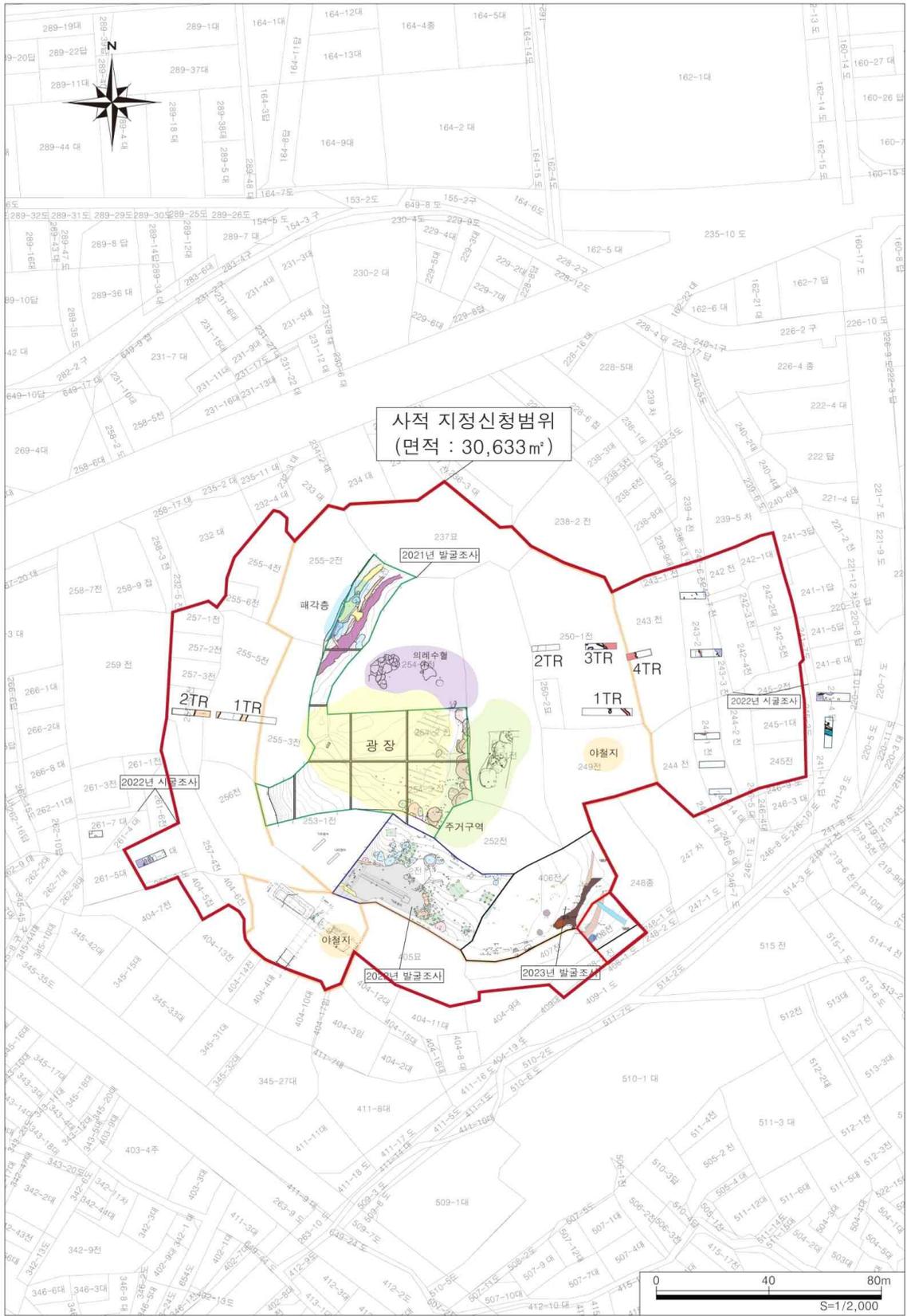
이 외에도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등과 상호협의 및 연계로 유적을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기반시설확충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와 탐방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외동유적은 단독구릉이 전체적으로 유적이지만, 정상부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와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편의시설이나 관리시설이 전무하다. 특히 유적의 탐방로는 병원 주차장, 도로 옆, 민가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탐방객이 진입로를 찾기 어렵다. 또한 주차시설이 전무하다. 유적의 탐방동선을 계획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진입로·탐방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동외동유적의 문화재 추정범위는 도심화가 진행되어 건물 및 도로로 이용 중인 곳이 많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유적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도지정문화재 확대지정이 필요하며, 확대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의 구릉주변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성 동외동유적 사적지정 신청 범위 - 지적도

#### (4)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계획

유적에 대한 기존의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일부 확보되었다.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의 환호의 조성과정과 폐기, 주거 및 생산시설의 발전을 비롯하여 2~6세기대 대외교류의 흔적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초자료와 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동외동유적의 중요성으로 파악하고, 현재 상태에서 대상 범위의 설정 및 현황자료 확인 등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 동 시기의 생활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에는 주거군, 창고군, 접안시설 등이 확인되어 구야국~금관가야 지배층의 공간으로서의 모습 확인. 창원 성산패총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만 실시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현실.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변한~가야정치체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생활유적은 고성 동외동유적이 유일하다.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계획하여 원형고증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5) 토지매입현황

유적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확인된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매입 이후에는 사유지 내의 경작을 금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경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토지소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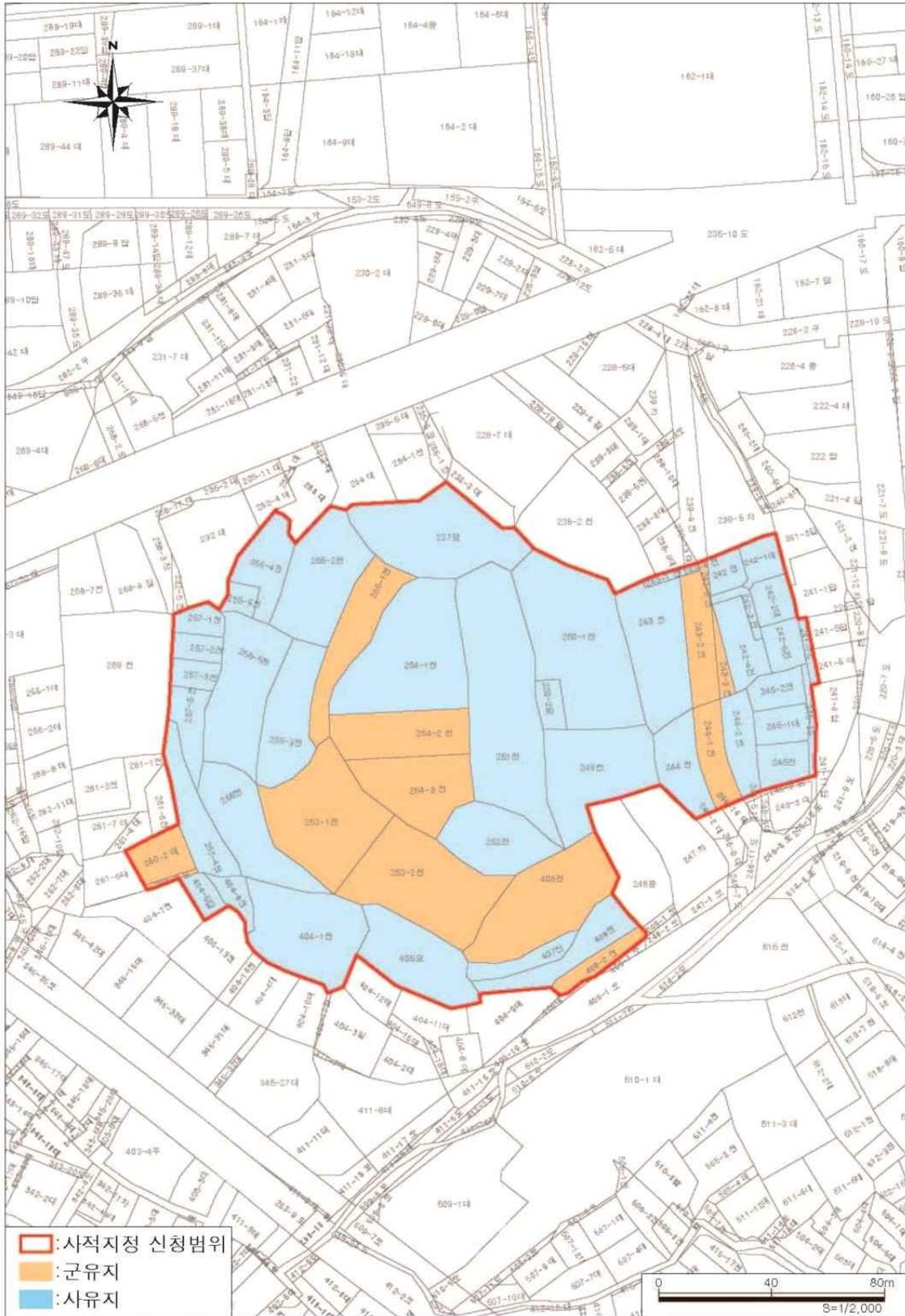
현재 동외동유적의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필지는 총 54개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0,633㎡이다. 이 가운데 공유지는 13개필지로, 면적은 8,114㎡이다. 그 외 41개필지는 사유지이며, 면적은 22,519㎡이다.

표 2. 동외동유적 토지소유현황

| 소유  | 필지수 | 면적      | 비율   |
|-----|-----|---------|------|
| 공유지 | 13  | 8,114㎡  | 26%  |
| 사유지 | 41  | 22,519㎡ | 74%  |
| 계   | 54  | 30,633㎡ | 100% |

##### ② 토지매입 방향

동외동유적 주변에는 경작지, 민가, 묘지, 교회 등이 인접해 있다. 독립된 구릉에 위치하는 유적은 대부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적이 훼손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구릉을 중심으로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적의 범위가 구릉 아래쪽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만큼 유적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의동유적 문화재지정범위 내 공유지 및 사유지 현황

표 3. 동외동유적 내 공유지 현황

| 구분 | 소유자 | 지번(필지)    | 지목 | 면적(m <sup>2</sup> ) | 비고 |
|----|-----|-----------|----|---------------------|----|
| 1  | 고성군 | 동외리 255-1 | 전  | 721                 |    |
| 2  | 고성군 | 동외리 253-1 | 전  | 1,415               |    |
| 3  | 고성군 | 동외리 254-2 | 전  | 780                 |    |
| 4  | 고성군 | 동외리 254-3 | 전  | 856                 |    |
| 5  | 고성군 | 동외리 253-2 | 전  | 1,498               |    |
| 6  | 고성군 | 동외리 406   | 전  | 1,306               |    |
| 7  | 고성군 | 동외리 260-2 | 대  | 319                 |    |
| 8  | 고성군 | 동외리 260-3 | 도로 | 32                  |    |
| 9  | 고성군 | 동외리 408-2 | 전  | 226                 |    |
| 10 | 고성군 | 동외리 244-1 | 전  | 372                 |    |
| 11 | 고성군 | 동외리 243-2 | 전  | 458                 |    |
| 12 | 고성군 | 동외리 243-3 | 전  | 104                 |    |
| 13 | 고성군 | 동외리 242-6 | 전  | 27                  |    |
| 전체 |     |           |    | 8,114               |    |

표 3. 동외동유적 내 사유지 현황

| 구분 | 소유자 | 지번(필지)    | 지목 | 면적(m <sup>2</sup> ) | 비고 |
|----|-----|-----------|----|---------------------|----|
| 1  | 사유지 | 동외리 255-2 | 전  | 1,038               |    |
| 2  | 사유지 | 동외리 237   | 묘지 | 1,382               |    |
| 3  | 사유지 | 동외리 254-1 | 전  | 1,686               |    |
| 4  | 사유지 | 동외리 255-3 | 전  | 843                 |    |
| 5  | 사유지 | 동외리 252   | 전  | 757                 |    |
| 6  | 사유지 | 동외리 249   | 전  | 1,183               |    |
| 7  | 사유지 | 동외리 250-2 | 묘지 | 165                 |    |
| 8  | 사유지 | 동외리 250-1 | 전  | 1,901               |    |
| 9  | 사유지 | 동외리 251   | 전  | 2,198               |    |
| 10 | 사유지 | 동외리 404-1 | 전  | 1,187               |    |
| 11 | 사유지 | 동외리 255-4 | 전  | 479                 |    |
| 12 | 사유지 | 동외리 255-6 | 전  | 112                 |    |
| 13 | 사유지 | 동외리 257-1 | 전  | 165                 |    |
| 14 | 사유지 | 동외리 257-2 | 전  | 165                 |    |
| 15 | 사유지 | 동외리 257-3 | 전  | 175                 |    |
| 16 | 사유지 | 동외리 257-5 | 전  | 330                 |    |
| 17 | 사유지 | 동외리 255-5 | 전  | 1,084               |    |
| 18 | 사유지 | 동외리 257-4 | 전  | 556                 |    |
| 19 | 사유지 | 동외리 256   | 전  | 902                 |    |
| 20 | 사유지 | 동외리 404-5 | 잡  | 152                 |    |
| 21 | 사유지 | 동외리 404-6 | 전  | 162                 |    |
| 22 | 사유지 | 동외리 405   | 묘지 | 912                 |    |
| 23 | 사유지 | 동외리 407   | 전  | 241                 |    |
| 24 | 사유지 | 동외리 408   | 전  | 549                 |    |
| 25 | 사유지 | 동외리 244   | 전  | 495                 |    |

| 구분 | 소유자 | 지번(필지)    | 지목 | 면적(m <sup>2</sup> ) | 비고 |
|----|-----|-----------|----|---------------------|----|
| 26 | 사유지 | 동외리 244-2 | 전  | 376                 |    |
| 27 | 사유지 | 동외리 243   | 전  | 1,021               |    |
| 28 | 사유지 | 동외리 247-7 | 전  | 1                   |    |
| 29 | 사유지 | 동외리 242-3 | 전  | 96                  |    |
| 30 | 사유지 | 동외리 242-4 | 전  | 385                 |    |
| 31 | 사유지 | 동외리 243-4 | 전  | 21                  |    |
| 32 | 사유지 | 동외리 243-1 | 전  | 39                  |    |
| 33 | 사유지 | 동외리 245   | 전  | 262                 |    |
| 34 | 사유지 | 동외리 245-1 | 전  | 244                 |    |
| 35 | 사유지 | 동외리 245-2 | 전  | 244                 |    |
| 36 | 사유지 | 동외리 245-3 | 도  | 93                  |    |
| 37 | 사유지 | 동외리 241-7 | 도  | 72                  |    |
| 38 | 사유지 | 동외리 242-5 | 전  | 225                 |    |
| 39 | 사유지 | 동외리 242-2 | 대  | 225                 |    |
| 40 | 사유지 | 동외리 242-1 | 대  | 226                 |    |
| 41 | 사유지 | 동외리 242   | 전  | 170                 |    |
| 전체 |     |           |    | 22,519              |    |

## 나. 문화재 활용계획

### 1) 현황 및 활용 기본방향

동외동유적의 보존활용은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적의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교육적 측면 및 관광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형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적이 점차 훼손중이므로,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적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현황 및 여건

고성군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하는데,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발굴을 통해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내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알려지지 않거나 문화재로 비지정되어 행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송학동고분 정비 및 고성박물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부족과 읍면지역 간에 문화기반시설의 격차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동외동유적은 고성을 대표할 만한 유적이다. 그러나 유적은 일부구간이 발굴된 후,

동아대학교에서 유적보호를 위해 매입한 조사구간(404-1번지)을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어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 기념물 지정범위 주변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시가지가 되면서 동외동유적 원형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주들은 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야산으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큰 지경이다. 오히려 문화재가 고성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동외동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본방향 및 전략

① 체계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해 향후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또는 전략적으로 발굴조사지를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동외동유적에서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경우는 1995년에 실시된 국립진주박물관의 조사가 처음이었다. 그 이전의 조사는 트렌치조사 또는 긴급수습조사에 불과하였다. 동외동유적 주민들의 住居域(나지구)으로 파악된 경사면의 주거지는 당시여건상 上層部의 주거지만 조사되어 完掘되지 못했다. 따라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 추가로 시·발굴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성군은 2021년과 2022년에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동외동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② 경남도기념물 지정범위 외 실제 동외동유적의 유적범위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된 범위 바깥에도 유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대부분 건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건물개축이나 공사를 진행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곳이다.

③ 동외동유적을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복원정비를 바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동외동유적 주변에 문화재 안내판(개별안내판,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리플렛 같은 간단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성박물관이나 군청,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분, 읍성, 사직단 같은 등 군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테마별 또는 소요시간별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개별로 존재하는 유적들을 연계시킨다. 예를 들어, 고성읍내에 소재하는 동외동유적, 송학동 고분군·박물관, 고성읍성, 만림산 토성, 남산토성, 사직단을 연결하는 역사탐방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여건이 된다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반하여 안내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가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함께 강구되어 한다. 유적은 지역민들의 공동자산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유적을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

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④ 유적의 안정적 보호조치를 위해 향후 국가사적으로의 승급을 추진한다.

동외동유적은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불안정한 상태의 보존조치이다. 보다 안정적인 조치를 위하여 국가사적 승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사적 지정은 국가가 직접 유적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외동유적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사적에 걸맞은 중요한 유적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고성군은 단계적인 추가조사 및 주변유적과의 연계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국가사적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 2) 동외동유적의 활용방안 및 사례

### (1) 유적의 활용방안

유적활용은 원형훼손금지, 유적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지속가능한 활용방안모색, 학술조사 성과의 공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동외동유적의 활용방안의 기본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유적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② 주변 유적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의 개발, ③ 학술성과 공유를 위한 안내서·리플렛 발간, SNS의 활용, ④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유적관리 및 보호활동 진행 등이 필요하다.

### (2) 유적의 정비·활용 사례

#### ① 김해 봉황동 유적

|           |   |
|-----------|---|
| 지정구분      | 사적 제2호  |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
| 정비특징      | 패총전시관을 통한 패총 단면 관람<br>봉황대 유적과 함께 유적공원으로 정비  |
| 정비현황 및 방향 | 유적에 설치된 관람로는 대체로 편평하고, 고르게 포장되어 있으며 일정거리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br>그러나 관람을 위한 이정표와 음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안내판의 경우 비닐이 벗겨지거나 안내판 안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복원된 고상가옥과 주거 같은 경우 일부 건물이 퇴락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패총전시관 전경



패총전시관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패총전시관 진입로(자연친화적 목재 사용)



유적 주변 보호책



복원된 고상가옥



복원된 가야시대 선박

② 창원 성산 패총

|           |   |
|-----------|---|
| 지정구분      | 사적 제240호  |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 정비특징      | 야철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노출전시<br>유물전시관에서 관련 유물과 패총 단면 표본 전시   |
| 정비현황 및 방향 | 창원 성산패총은 낮은 구릉위에 위치하고 있고, 구릉의 꼭대기에는 유물전시관이 있으며, 전시관 내부에는 창원지역의 패총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br>유물전시관을 건립한 뒤 성산패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역사교육의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성산패총에서는 매년 야철제례가 열린다.<br>야철지 보호시설은 1975년 설치되었으며, 2층에서 1층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다. 노출전시에는 야철지와 야철지 위 토층에 쌓인 패총의 단면까지 전시하고 있다.<br>비교적 단정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적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



야철지 보호시설 전경



야철지 보호시설 내부: 유구 노출전시 모습



성산패총유물전시관 전경



성산패총유물전시관 내부

## 9. 종합의견

- 삼한시대의 고성지역은 『三國志』 弁辰傳에 기록된 ‘弁辰古資彌凍國’ 혹은 『三國史記』 勿稽子傳에 등장하는 浦上八國의 일국인 ‘古史浦國’ 로 비정된다.<sup>1)</sup>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고성읍의 동외동패총, 송학리 309-1유적,<sup>2)</sup> 고성읍성지<sup>3)</sup> 내 삼한유구와 고성읍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하일면의 송천리 솔섬석관묘유적<sup>4)</sup>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의 고성은 六加耶의 일국인 小加耶의 중심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고성 지역에 존재한 소국의 명칭은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自郡’과 『三國遺事』 避隱編의 ‘古自國’의 용례에 근거하여 ‘古自國’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본다.

- 고성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패총의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고성패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 이후 1969~1970 국립중앙박물관, 1974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어 삼한·삼국시대 문화층, 옹관묘, 석관묘, 야철지 등이 조사되었으며 청동검과두식, 광형동모편, 후한경, 야요이계 토기 등 출토되어 2~3세기에 축조된 유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 1995년 국립 진주박물관의 조사에서는 삼한·삼국시대 의례수혈, 주거지, 수혈 등이

1) 『三國志』 卷二十 魏書二十 烏丸鮮卑東夷傳二十 弁辰傳  
『三國史記』 卷第四十八列傳八 勿稽子傳  
『三國遺事』 卷五 避隱八 勿稽子

2)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固城 松鶴里 309-1 番地 遺蹟』

3) 東亞大學校博物館, 2006, 『固城邑城址』

4) 東亞大學校博物館, 1977, 『固城 松川里솔섬石棺墓』

조사되어 새무늬청동기 등이 발견되어, 동외동유적의 성격이 정상부에 의례공간과 생활공간이 구획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2021~2023년 소가야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3차례의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외곽, 내곽부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패총, 주거지, 고상건물지, 환호, 성토구조물 등 중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청동대구 부속구, 왕망전, 금동일산살조각, 세형동검 검집결속구 등이 발견되어 환호로 둘러싸인 마을유적으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었다.
- 이러한 고성 동외동 유적의 입지와 조사결과로 보아, 외래계 유물을 통해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이며, 늑도 세력의 소멸 이후에 대외 교역을 이어받은 소가야 세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 동외동 유적은 늦어도 기원 후 2세기 이후부터 6세기 후반 초까지의 토기 자료들이 출토되는 점에 송학동 고분군의 전신 세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성 지역의 고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유적으로서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면서 삭토하거나 성토하여 段을 지게 하여 계단식 방어시설을 만들고 환호로 둘러싼 고지성 마을유적으로, 구릉 정상부의 의례시설, 광장, 주거군, 그리고 이 시설들을 감싸고 있는 방어시설로서의 환호 등은 변함과 가야기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성 동외동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부산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검토

####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지정구역의 추가지정 및 조정(문화재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 2017.06.30. 지정)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52-47번지(1필지 3,014㎡)
  - 문화재구역 조정
    - 당초(문화재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74번지(1필지 2,764㎡)
    - 변경(문화재보호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74번지(1필지 2,764㎡)
- (4) 신청사유
  - 2022년에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고분이 형성된 일부 영역의 문화재 구역 지정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영역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의 조정을 신청함.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자 | 2024.2.23 (금) | 대상 문화재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
| 조사자  | 성명            | 전공분야   | 소속                     | 직위(직책) |
|      | ○○○           | 건축사    | ○○대학교                  | 교수     |
|      | ○○○           | 성곽     | ○○대학교                  | 교수     |
|      | ○○○           | 고고학    | ○○대학교                  | 교수     |
|      | ○○○           | 건축사    | 문화재위원회                 | 전문위원   |

|                      |                       |                        |
|----------------------|-----------------------|------------------------|
| 주요<br>지정<br>사항<br>검토 | ①문화재 종별               | 사적                     |
|                      | ②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                      | ③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④연혁·유래<br>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⑤지정 가치<br>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⑥지정 대상<br>및 범위        |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 < 보호물 >              |                       |                        |
| < 보호구역 >             |                       |                        |
| 보호<br>관리<br>사항<br>검토 | ⑦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안)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⑧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장 귀하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02.23.(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본 건은 부산 연산동 고분의 고분이 잔존하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현 지정된 구역 중 유적이 잔존하지 않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산동 고분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명+유적명인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연제구 소재지의 배산(254m)의 완만한 구릉 하단부에 조성되어있으며,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과 마주 보고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의 고층고분과 주변의 소형고분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으로, 구릉 정상부의 고층고분은 18기가 확인되며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어있다. 주변 문화유적으로는 배산성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동래 패총, 동래읍성, 동래고읍성, 경상좌수영성지, 거제동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층고분의 경우는 영남지역 삼국시대 고분 중 가장 큰 규모의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적으로 판단된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조영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산동 고분군은 3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1기의 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4~7기의 중·대형의 고분이 모인 형태를 보이며, 중심고분과 주변 고분들의 조성시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 수정들과 관련 계보들의 무덤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매장주체시설의 축축방향은 구릉의 능선 방향과 거의 같은 남북 또는 남서-북동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M6호분만 동서방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M6호분을 제외한 석곽의 축축방향이 구릉의 능선 방향과 동일한 것은 양쪽의

지형 고저 차이가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구릉 능선의 7~8부 능선을 수평으로 삭평하여 묘광 상면 높이를 같게 함으로서 석곽을 지하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고분이 위치한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 중요시되었고, 피장자의 두향은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영공법과 연약지반의 치환공법, 점토덩어리를 이용한 봉토 쌓기, 석곽 내 목곽 설치 등의 독자적인 고총고분 축조방식이 확인되었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출토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갈·등자·안교·마갑·행엽 등의 마구류와 만곡종장판주·판갑·찰갑 등의 무기류, 철촉·철모·철부·철검 등 무기류 등의 철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출토유물로 보아 무장적인 성격이 강한 지배층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당시 시대상황과 출토유물<sup>3)</sup>의 형태를 보았을 때 신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독자적인 활동 세력으로 추정되며, 특히 출토 유물 중 국내 최초로 깃이 있는 판갑이 확인되었는데, 고분의 조영 당시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서 취사시설(화덕지)이 확인되었는데, 과거 장지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례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조성집단은 신라 복속 전(기원전~ 5C 후반)까지 복천동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체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6C 전반까지 복천동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연산동 고분군으로 주도권이 이동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도 세력의 교체가 아닌 복천동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연산동 고분군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대형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과 봉분은 소실되었지만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중·소형 고분이 전시기를 걸쳐 분포하고 있어 고대 부산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확인되었다.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삼국시대 5~6C에 축조된 영남지역의 중심고분중 하나로 이 일대 집단 세력의생활상,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현재까지 조사된내용을살펴보면, 1987년 부산여자대학박물관(현 신라대학교박물관)과 경성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고분2기(M4·M8호분)가 정식 발굴조사된 이후 1989년 수습조사, 2000년 연산동 산12-1번지발굴조사, 2007년연산동322번지 일원 공용 주택 예정부지 발굴조사가 각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 연산동 고분군 일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총28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2008년에는 연산동 고분군 정비 및 복원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기존 부산광역시 기념물에서 사적으로 승격됨으로 고분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연제구에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정<sup>4)</sup>된 문화재(보호)

구역은발굴조사시유적이확인되지않은대상지1(옛골공원: 연산동2274)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M11호분의 일부 영역인 대상지2(연산동952-47)을 누락하여 고시되었다. 이에 당해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대상지1(옛골공원)은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M11호분의 미지정 영역은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연산동고부군문화재구역의조정에필요한영역은기존문화재구역에서보호구역으로 변경설정이 필요한 영역(대상지1)은 총1필지, 지적/지정면적2,764㎡/2,764㎡이며, 추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할 영역(대상지2)은 총 1필지, 지정/지정면적: 3,014㎡/3,014㎡이다.

## 6. 지정 대상 및 범위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보호)구역)

지정 면적 : 추가 문화재 구역 1필지 3014㎡,  
지정구역 →보호구역 1필지/2,764㎡

1: 사표도보기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    |        |         |     |    |     |    |     |    |                     |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적면적: 66,318㎡, 지정면적: 66,318㎡) |     |        |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연산동 | 산90-4  | 일  | 164    | 164     |     |    |     |    |     |    | 기지정                 |
| 2   | 연산동 | 산90-5  | 일  | 694    | 694     |     |    |     |    |     |    | 기지정                 |
| 3   | 연산동 | 산90-7  | 일  | 14,408 | 14,408  |     |    |     |    |     |    | 기지정                 |
| 4   | 연산동 | 산90-18 | 도  | 81     | 81      |     |    |     |    |     |    | 기지정                 |
| 5   | 연산동 | 산90-19 | 일  | 5,078  | 5,078   |     |    |     |    |     |    | 기지정                 |
| 6   | 연산동 | 산90-20 | 일  | 993    | 993     |     |    |     |    |     |    | 기지정                 |
| 7   | 연산동 | 산90-21 | 일  | 1,828  | 1,828   |     |    |     |    |     |    | 기지정                 |
| 8   | 연산동 | 산90-22 | 일  | 6,507  | 6,507   |     |    |     |    |     |    | 기지정                 |
| 9   | 연산동 | 산90-23 | 일  | 169    | 169     |     |    |     |    |     |    | 기지정                 |
| 10  | 연산동 | 산90-24 | 일  | 27     | 27      |     |    |     |    |     |    | 기지정                 |
| 11  | 연산동 | 산90-25 | 일  | 21     | 21      |     |    |     |    |     |    | 기지정                 |
| 12  | 연산동 | 산90-26 | 일  | 37     | 37      |     |    |     |    |     |    | 기지정                 |
| 13  | 연산동 | 산90-27 | 일  | 42     | 42      |     |    |     |    |     |    | 기지정                 |
| 14  | 연산동 | 산91-1  | 일  | 218    | 218     |     |    |     |    |     |    | 기지정                 |
| 15  | 연산동 | 산91-3  | 일  | 1,779  | 1,779   |     |    |     |    |     |    | 기지정                 |
| 16  | 연산동 | 산91-4  | 일  | 89     | 89      |     |    |     |    |     |    | 기지정<br>산 91-3<br>분할 |
| 17  | 연산동 | 산91-5  | 일  | 6      | 6       |     |    |     |    |     |    | 기지정<br>산 91-3<br>분할 |
| 18  | 연산동 | 산92-2  | 일  | 4,860  | 4,860   |     |    |     |    |     |    | 기지정                 |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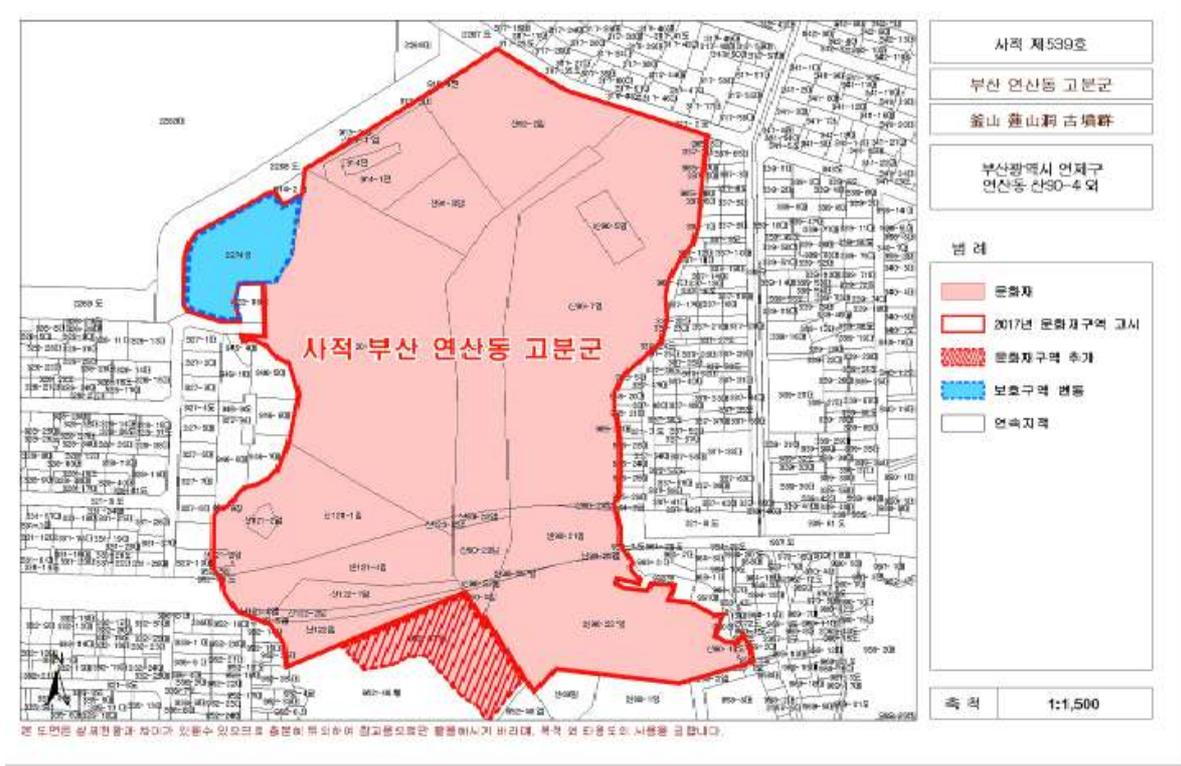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        |    |        |         |     | (지적면적: 66,318㎡, 지정면적: 66,318㎡)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9                   | 연산동 | 산120-1 | 일  | 13,918 | 13,918  |     |                                |     |    |     |    | 기지정            |
| 20                   | 연산동 | 산120-2 | 일  | 62     | 62      |     |                                |     |    |     |    | 기지정            |
| 21                   | 연산동 | 산121-1 | 일  | 4,265  | 4,265   |     |                                |     |    |     |    | 기지정            |
| 22                   | 연산동 | 산121-2 | 일  | 198    | 198     |     |                                |     |    |     |    | 기지정            |
| 23                   | 연산동 | 산121-3 | 일  | 99     | 99      |     |                                |     |    |     |    | 기지정            |
| 24                   | 연산동 | 산121-4 | 일  | 2,962  | 2,962   |     |                                |     |    |     |    | 기지정            |
| 25                   | 연산동 | 산121-5 | 일  | 11     | 11      |     |                                |     |    |     |    | 기지정            |
| 26                   | 연산동 | 산121-6 | 일  | 45     | 45      |     |                                |     |    |     |    | 기지정            |
| 27                   | 연산동 | 산122   | 일  | 1,074  | 1,074   |     |                                |     |    |     |    | 기지정            |
| 28                   | 연산동 | 산122-1 | 일  | 1,057  | 1,057   |     |                                |     |    |     |    | 기지정            |
| 29                   | 연산동 | 산122-2 | 일  | 348    | 348     |     |                                |     |    |     |    | 기지정            |
| 30                   | 연산동 | 913-2  | 대  | 36     | 36      |     |                                |     |    |     |    | 기지정            |
| 31                   | 연산동 | 914    | 전  | 231    | 231     |     |                                |     |    |     |    | 기지정            |
| 32                   | 연산동 | 914-1  | 전  | 1,987  | 1,987   |     |                                |     |    |     |    | 기지정            |
| 33                   | 연산동 | 915-4  | 전  | 17     | 17      |     |                                |     |    |     |    | 기지정            |
| 34                   | 연산동 | 915-5  | 대  | 3      | 3       |     |                                |     |    |     |    | 기지정            |
| 35                   | 연산동 | 952-47 | 일  | 3,014  | 3,014   |     |                                |     |    |     |    | 규회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
| 36                   | 연산동 | 2274   | 광복 | 2,764  | 2,764   |     |                                |     |    |     |    | 규회 문화재 구역 지정해제 |

| 구분   |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
| 기지정  | 35  | 66,069㎡ | 66,069㎡ |
| 규회지정 | 1   | 3,014㎡  | 3,014㎡  |
| 지정해제 | 1   | 2,764㎡  | 2,764㎡  |
| 총    | 35  | 66,318㎡ | 66,318㎡ |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보호구역) |     |      |    |       |         |     | (면적: 2,764㎡)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연산동 | 2274 | 광복 | 2,764 | 2,764   |     |              |     |    |     |    | 규회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

| 구분           | 필지수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
| 규회 보호구역 추가지정 | 1필지 | 2,764 | 2,764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검토의견 :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름.

9. 종합의견

- 본 건은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지정구역 중,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종합정비기본 계획에서 편의시설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그리고 지정 구역 내 11호분 일부를 포함한 경사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구역은 유구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구역에 한하여 보호구역으로 하고 11호분의 일부를 포함한 연접지는 유구가 잔존하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3-018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내 고사목 제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3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김해<br>대성동<br>고분군 | 경남<br>김해시  | ○○○ | <고사목 제거><br>○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br>(문화재구역)<br>○ 사업내용 : 소나무 고사목 제거 1주   | 허가        | '24.02.28. |
| 사적<br>진주<br>평거동<br>고분군 | 경남<br>진주시  | ○○○ | <지반조사><br>○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59번지<br>(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br>○ 사업내용<br>- 남부내륙철도 제7공구 지반조사(시추<br>공 2개소, 깊이 40m, 지름 76mm)   | 허가        | '24.02.28. |
| 사적<br>양산<br>북정리<br>고분군 | 경남<br>양산시  | ○○○ | <고향의 봄 공원 조성><br>○ 위치 : 경남 양산시 북정동 산47-2번<br>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 2구역)<br>○ 사업내용<br>- 공원 조성 면적 : 414,833㎡<br>○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실시                                     | 조건부<br>허가 | '24.02.28. |
| 사적<br>여주<br>고달사지       | 경기도<br>여주시 | ○○○ | <이동식 화장실 설치><br>○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br>151번지 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74m<br>이격/1구역)<br>○ 사업내용<br>- 대지면적 : 833㎡<br>- 설치면적 : 1.4㎡<br>- 수량 : 1동<br>- 규모 : 1.05m × 1.37m × 2.34m | 허가        | '24.02.26.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하남<br>이성산성      | 경기도<br>하남시 | ○○○ | <p>&lt;시추조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147-1번지 외 9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용면적 : 3m× 8m(24m<sup>2</sup>) 10개소</li> <li>- 굴착깊이 : 60m</li> <li>- 굴착구경 : 76mm</li> <li>- 시추방법 : 시추기(천공기) 이용</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16. |
| 사적<br>하남<br>미사리<br>유적 | 경기도<br>하남시 | ○○○ | <p>&lt;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95번지 8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195m<sup>2</sup></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16.40m<sup>2</sup>/217.96m<sup>2</sup></li> <li>- 층수/높이 : 지상 3층(1층 필로티 주차장)/8.1m(경사지붕)</li> <li>-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19. |
| 사적<br>고양<br>행주산성      | 경기도<br>고양시 | ○○○ | <p>&lt;다세대 주택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56 외 1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2-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동 : 대지면적 310m<sup>2</sup>, 건축면적/연면적 185.77m<sup>2</sup>/425.83m<sup>2</sup>, 건축규모/최고높이 4층(1동)/14.3m, 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조</li> <li>- B동 : 대지면적 364m<sup>2</sup>, 건축면적/연면적 174.28m<sup>2</sup>/441.63m<sup>2</sup>, 건축규모/최고높이 4층(1동)/14.3m, 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조</li> <li>- C동 : 대지면적 431m<sup>2</sup>(도로72m<sup>2</sup> 포함), 건축면적/연면적 181.07m<sup>2</sup>/459.01m<sup>2</sup>, 건축규모/최고높이 4층(1동)/14.3m, 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조</li> <li>- D동 : 대지면적 454m<sup>2</sup>, 건축면적/연면적 248.60m<sup>2</sup>/570.47m<sup>2</sup>, 건축규모/최고높이 4층(1동)/14.5m, 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조</li> </ul> </li> </ul> | 허가        | '24.02.27.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화성<br>제암리<br>3·1운동<br>순국 유적 | 경기도<br>화성시 | ○○○ | <p>&lt;고제천(소하천)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419번지 9호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3, 5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4,744㎡</li> <li>- 정비구간 : L 156m, B 13~14m(금번 공사구간 B 6.5~7.0m)</li> <li>- 전석쌓기 : L 156m, H 2.4~3.1m</li> <li>- 제방도로(콘크리트포장) : 403㎡(L 156m, H 0.2m, B 3.0m)</li> <li>- 교량(고제5교) 재설치 : L 13m, B 4.0~8.0m</li> <li>- 홍수방어벽 : L 30m, H 0.8m</li> <li>- 배수통관 : 1개소(D1500)</li> <li>- 절토/성토 : 227㎡/889㎡</li> </ul> </li> </ul> | 허가        | '24.02.20. |
| 사적<br>청주<br>정북동<br>토성             | 충북<br>청주시  | ○○○ | <p>&lt;비닐하우스 1동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07번지 5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1동 설치(가로 8m, 길이 15m, 높이 3.5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일로부터 3년 까지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전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함</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3.04. |
| 사적<br>강릉<br>굴산사지                  | 강원도<br>강릉시 | ○○○ | <p>&lt;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오독떼기길41-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9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설치면적 : 79.18㎡(7.326m×10.808m)</li> <li>- 높이 : 3.49m(건축물 높이 포함 7.994m)</li> </ul> </li> </ul>   | 허가        | '24.02.16. |
| 사적<br>남한산성                        | 경기도<br>광주시 | ○○○ | <p>&lt;화장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142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1구역)</li> <li>○ 변경내용 : 위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3,293.㎡</li> <li>- 건축면적/연면적 : 42.03㎡/42.03㎡</li> <li>- 층수/높이 : 지상1층/6.2m</li> <li>- 변경사항 : 위치변경 2.6m</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3.07.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강화<br>부근리<br>지석묘 | 인천시<br>강화군 | ○○○ | <p>&lt;보호구역 내외 제14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48번지 외 3필지(문화재보호구역, 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구조물 : 몽골텐트(3×3×4.8m) 25동 / 포토게시물(2.4×1×5m) 2동</li> </ul> </li> <li>○ 허가조건 : 행사 전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26. |
| 사적<br>강화<br>부근리<br>지석묘 | 인천시<br>강화군 | ○○○ | <p>&lt;보호구역 내 어린이날 기념행사(가설 시설물 설치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29, 330-1, 331, 332-1, 332-2, 334, 335-1번지(문화재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일자(사업기간) : 2024.5.5. (2023.5.1. ~ 5.12.)</li> <li>- 신청면적 : 4,525㎡</li> <li>- 시설현황 : 행사무대, 체험부스, 군장비 전시관람부스, 운영진행부스, 놀이 시설(에어바운스, 꼬마기차 등), 의자 등</li> <li>· 무대 설치 : 5×12×1.5m/1개소</li> <li>· 몽골텐트 설치 : 5×5×2.5m/30개, 3×3×2.5m/10개</li> <li>· 놀이시설 설치(7개) 등</li> </ul> </li> <li>○ 허가조건 : 행사 전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강화군 문화재과의 사전 검토 및 지도·감독을 받아 추진하도록 할 것</li> </ul> | 조건부<br>허가 | '24.03.04. |
| 사적<br>강화<br>외성         | 인천시<br>강화군 | ○○○ | <p>&lt;부지조성 및 옹벽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15-6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8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587㎡(허가신청면적)</li> <li>- 토공 : 성토 4,478㎡</li> <li>-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강토 옹벽 : 1~3단</li> <li>· 높이 : 0~9.7m</li> <li>· 길이 : 131.3m</li> <li>· 면적 : 977.89 m<sup>2</sup></li> </ul> </li> </ul> </li> </ul>   | 허가        | '24.02.28.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강화<br>삼랑성 | 인천시<br>강화군 | ○○○ | <p>&lt;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6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설치면적 : 61.42㎡(2.462m×1.134m, 22개), 경사고정형</li> <li>- 높이 : 4.138m(건축물 높이 포함 8.2m)</li> </ul> </li> <li>* 기존건축물 2층 테라스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고높이 변동 없음.</li> </ul>  | 허가   | '24.02.28. |
| 사적<br>강화산성      | 인천시<br>강화군 | ○○○ | <p>&lt;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72-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95㎡(변경없음)</li> <li>- 건축면적/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전 : 83.38㎡</li> <li>· 변경후 : 83.75㎡</li> </ul> </li> <li>-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전 : 지상1층(1동) 최고높이 : 5.1m 평지붕</li> <li>· 변경후 : 지상1층(1동) 최고높이 : 6.0m 경사지붕</li> </ul> </li> <li>- 보강토 옹벽(H=0.5~2.9m) : 48.4m (변경없음)</li> </ul> </li> </ul> | 허가   | '24.03.05. |
| 사적<br>금정산성      | 부산시<br>금정구 | ○○○ | <p>&lt;숲가꾸기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산5-5, 5-8 구서동 산4-9(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70ha</li> <li>- 방식 : 숲아베기(고사목 제거, 밀생목 제거, 산물 수집, 임내정리 등)</li> <li>- 기간: 2024.3 ~ 2024.5</li> </ul> </li> </ul>   | 허가   | '24.02.26. |
| 사적<br>관문성       | 울산시<br>북구  | ○○○ | <p>&lt;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존치 기간연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 81-4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가설건축물 18㎡ / 1개소 존치 기간 연장</li> <li>- 존치기한 종료 전 필요시 재신청 할 것</li> </ul> </li> <li>○ 변경사항 : 존치기간 연장(~2027.2.27.까지)</li> </ul>   | 허가   | '24.02.28.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관문성          | 울산시<br>북구 | ○○○ | <p>&lt;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존치 기간연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 80-3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7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가설건축물 18㎡ / 1개소 존치 기간 연장</li> <li>- 존치기한 종료 전 필요시 재신청 할 것</li> </ul> </li> <li>○ 변경사항 : 존치기간 연장(~2027.2.27.까지)</li> </ul>  | 허가        | '24.02.28. |
| 사적<br>경주 낭산<br>일원  | 경북<br>경주시 | ○○○ | <p>&lt;관광농원 시설 증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15번지 외 1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25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용도 : 가동(관리동), 나동(수영장)</li> <li>- 건축규모/구조 : 가동(199.80㎡/일반철골구조), 나동(4.8㎡/강파이프)</li> <li>- 건축높이 : 가동(5.8m), 나동(4.8m)</li> <li>- 토목 : 절토 181㎡</li> <li>- 절·성토고 : 절토고 최저 0.2m~최고 0.4m / 성토고 최저 0.1m~최고 0.15m</li> </ul> </li> <li>○ 허가조건 : 시굴조사 후 실시</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16. |
| 사적<br>경주 대릉원<br>일원 | 경북<br>경주시 | ○○○ | <p>&lt;쪽샘지구 시설물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원화로 189 일원 (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샘지구 주차장 정비(총 496대)</li> <li>- 화강석 경계석 신재설치(L=59.1m)</li> <li>- 기존 스톤블럭 철거 후 스톤블럭 포장(A=1,091㎡)</li> <li>- 기존 스톤블럭 철거 후 아스콘 포장(A=1,928.00㎡)</li> <li>- 이동식 화강석 블라드 설치 26EA(1m 간격)</li> <li>- 기존 안내판 철거(3EA) / 안내문구 글자수정(3EA)</li> <li>- 콘크리트 패드 설치 2개소</li> <li>- 출입구 문자 도색</li> <li>- 관제 시스템 설치</li> </ul> </li> <li>○ 허가조건 : 참관조사 후 실시</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22.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    |      |        |         |     |              |              |     |                  |               |    |            |
|------------------------|------------------|---------------|--|-----------|------------|------|--------|----|----|------|--------|---------|-----|--------------|--------------|-----|------------------|---------------|----|------------|
| 사적<br>경주<br>대릉원<br>일원  | 경북<br>경주시        | ○○○           | <p>&lt;대릉원 돌담길 수목투사등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3-34번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지중등 설치 : 나무 한그루당 2개씩(54W×354개)</li> <li>- 모양 : 원통형(∅ 320 × H 104mm)</li> <li>- 재질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li> <li>- 운영시간 : 일몰 ~ 22:00로 통일하여 운영</li> <li>- 자립형 제어반 설치 : 6면(900×1000×300mm)</li> </ul> </li> </ul>   | 허가        | '24.02.23. |      |        |    |    |      |        |         |     |              |              |     |                  |               |    |            |
| 사적<br>경주<br>대릉원<br>일원  | 경북<br>경주시        | ○○○           | <p>&lt;야영장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58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9m 이격/1구역)</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기 허가사항</th> <th style="width: 35%;">변경사항</th> </tr> </thead> <tbody> <tr> <td>관리동 층수</td> <td>2층</td> <td>1층</td> </tr> <tr> <td>건축면적</td> <td>97.30㎡</td> <td>115.00㎡</td> </tr> <tr> <td>소매점</td> <td>경량철골조 (판넬2층)</td> <td>경량철골조 (판넬1층)</td> </tr> <tr> <td>캠핑장</td> <td>15동(경량철골조) 69.3㎡</td> <td>7동(경량철골조) 51㎡</td> </tr> </tbody> </table> | 구분        | 기 허가사항     | 변경사항 | 관리동 층수 | 2층 | 1층 | 건축면적 | 97.30㎡ | 115.00㎡ | 소매점 | 경량철골조 (판넬2층) | 경량철골조 (판넬1층) | 캠핑장 | 15동(경량철골조) 69.3㎡ | 7동(경량철골조) 51㎡ | 허가 | '24.02.27. |
| 구분                     | 기 허가사항           |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
| 관리동 층수                 | 2층               | 1층            |  |           |            |      |        |    |    |      |        |         |     |              |              |     |                  |               |    |            |
| 건축면적                   | 97.30㎡           | 115.00㎡       |  |           |            |      |        |    |    |      |        |         |     |              |              |     |                  |               |    |            |
| 소매점                    | 경량철골조 (판넬2층)     | 경량철골조 (판넬1층)  |  |           |            |      |        |    |    |      |        |         |     |              |              |     |                  |               |    |            |
| 캠핑장                    | 15동(경량철골조) 69.3㎡ | 7동(경량철골조) 51㎡ |  |           |            |      |        |    |    |      |        |         |     |              |              |     |                  |               |    |            |
| 사적<br>경주<br>금척리<br>고분군 | 경북<br>경주시        | ○○○           | <p>&lt;금량교 개체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924-1(문화재구역 내외/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형 라멘교 신설 : B=10m, L=27m</li> <li>- 토공 : 터파기 3,410㎡, 되메우기 3,326㎡, 흙쌓기 649㎡, 사토 590㎡, 가도설치(B=7.0m) L=100m</li> <li>- 구조물공 : 역T형옹벽(H=4.0m) L=26m, 식생옹벽블럭(H=2.0m) L=6m, 석축찰쌓기(H=2.0~1.0m) L=10m</li> <li>- 포장공 : 아스콘포장(t=40cm) A=582㎡, 콘크리트포장 A=80㎡</li> </ul> </li> <li>○ 허가조건 : 참관조사 후 실시</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27. |      |        |    |    |      |        |         |     |              |              |     |                  |               |    |            |
| 사적<br>경주<br>남산<br>일원   | 경북<br>경주시        | ○○○           | <p>&lt;전기공작물 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85-3 (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전주 1기 설치(10m)</li> <li>- 터파기 0.312㎡, 되메우기 0.051㎡, 굴착깊이 1.75m</li> </ul> </li> <li>○ 허가조건 : 참관조사 후 실시</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27. |      |        |    |    |      |        |         |     |              |              |     |                  |               |    |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공주<br>무령왕릉과<br>왕릉원 | 충남<br>공주시  | ○○○ | <p>&lt;공주 문화관광지(2단계) 부지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49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5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면적 : 84,213㎡(현상변경 면적 : 72,001㎡)</li> <li>- 성토높이(성토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공구 : 1.75~3.62m(205,734㎡)</li> <li>· 2공구 : 6.25~6.30m(35,570㎡)</li> </ul> </li> </ul> </li> </ul>   | 허가        | '24.02.26. |
| 사적<br>익산<br>미륵사지         | 전북<br>익산시  | ○○○ | <p>&lt;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기면 등 7개리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4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용수개발면적 : 218.5ha</li> <li>- 양수장 1개소, 토출수조 1개소, 송수관로 6.621km, 용수간선 9.709km, 용수지선 6.845km</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2.29. |
| 사적<br>서울<br>운현궁          | 서울시<br>종로구 | ○○○ | <p>&lt;2024년 운현궁 내 전통문화 행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10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현궁 내 공연 및 전통혼례 등 상설 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li> <li>-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li> <li>-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할 것</li> <li>- 행사 추진시,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li> </ul> </li> </ul> | 조건부<br>허가 | '24.03.08. |
| 사적<br>고령<br>지산동<br>고분군   | 경북<br>고령군  | ○○○ | <p>&lt;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번지 외 10필지, 산22-1번지 외 8필지(문화재구역 내외)</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1구역(면적 6.0ha, 길이 1.2km, 폭 50m), 2구역(면적 4.5ha, 길이 1.2km, 폭 40m)</li> </ul> </li> <li>○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할 것</li> </ul>   | 조건부<br>허가 | '24.03.04.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br>의성<br>금성면<br>고분군         | 경북<br>의성군 | ○○○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 및 원상복구><br>○ 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60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8m 이격)<br>○ 사업내용<br>- 굴착규모 : 지하굴착공 1개소(깊이 100m, 지름 250mm)  | 허가        | '24.03.08. |
| 사적<br>여수 석보                    | 전남<br>여수시 | ○○○ | <통신전주 설치><br>○ 위치 : 전남 여수시 여천동 880-29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br>○ 사업내용 : 통신전주 1식 설치<br>- 최고높이 14.8m(피뢰침 포함)<br>○ 허가조건<br>- 보완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할 것.   | 조건부<br>허가 | '24.02.21. |
| 사적<br>정읍<br>은선리와<br>도계리<br>고분군 | 전북<br>정읍시 | ○○○ | <태양광 시설 설치><br>○ 위치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30-6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 이격/3구역)<br>○ 사업내용 : 기존 축사 위 태양광 시설 설치<br>- 태양광 패널 설치 293.62㎡, 높이 10.493m(기존 건물 높이 : 7.55m)   | 허가        | '24.02.27. |
| 사적<br>화순<br>운주사지               | 전남<br>화순군 | ○○○ | <벌채 후 조립><br>○ 위치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 6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6m 이격/1구역)<br>○ 사업내용<br>- 면적 : 24,471㎡, 절토 268㎡, 성토 268㎡, 작업로 개설(폭 3m, 연장 약 585m)<br>- (벌채) 소나무, 리기다, 삼나무 등 1,455주<br>- (조립) 상수리(H 1.0m), 편백(H 1.0m), 대추(H 0.6~0.7m), 대봉(H 1.0m), 밤나무(H 1.0m) 2,260주 | 허가        | '24.02.21. |

####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접수 14명